

희년

제 1 장

1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나온 첫해 셋째 달 열여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게로 산에 올라오라. 내가 너에게 내가 기록한 율법과 계명이 새겨진 두 돌판을 주겠다. 너는 그것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2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에 머물렀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덮었더라.
3 그리고 그분은 일곱째 날에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는데, 여호와의 영광의 모습이 산꼭대기에서 불타는 불꽃 같았습니다.
4 모세가 산에서 사십 일 사십 밤을 지내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에게 율법과 증거의 모든 날을 나누는 앞부분과 뒷부분의 역사를 가르쳐 주셨다.
5 그리고 그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산에서 너에게 하는 모든 말씀에 마음을 기울이고 그것을 책에 기록하여라. 그리하여 그들의 후손들이 내가 오늘 시내산에서 너와 맺은 언약을 어겨 그들이 행한 모든 악행에도 불구하고 나를 버리지 않았음을 보게 하라.'
6 그러므로 이 모든 일이 그들에게 닥치면 그들은 내가 그들의 모든 판단과 모든 행위에 있어서 그들보다 더 의롭다는 것을 깨닫고 내가 참으로 그들과 함께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7 내가 오늘 너에게 선포하는 이 모든 말씀을 너는 기록하여라. 내가 그들의 반역과 완고함을 알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 곧 '너희 자손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는 땅으로 인도하기 전에, 너희 자손을 그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8 그들은 먹고 배부르게 되면 이방 신들, 곧 그들의 어떤 환난에서도 그들을 구원할 수 없는 신들을 섬길 것이다. 이 증언은 그들에게 불리한 증거가 될 것이다. 그들은 나의 모든 계명, 곧 내가 명한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이방인들을 따라 그들의 부정한 것과 수치스러운 것을 행하며 그들의 신들을 섬길 것이다. 그리하면 이것들이 그들에게 걸림돌과 환난과 고난과 올무가 될 것이다.
9 많은 사람이 멸망하고 사로잡혀 원수의 손에 넘어갈 것이다. 이는 그들이 나의 율례와 계명과 나의 언약의 절기와 나의 안식일과 내가 그들 가운데 거룩하게 구별한 나의 성소와 내가 그 땅 가운데 거룩하게 구별한 나의 장막과 나의 성소를 버렸기 때문이다. 내가 그 땅 위에 내 이름을 두고 내 이름이 거기에 거하게 하려 함이었다.
10 그들은 자기들을 위해 산당과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만들고, 각기 자기들의 우상을 숭배하여 미혹될 것이며, 자기들의 자녀를 귀신과 마음의 잘못된 모든 일에 제물로 바칠 것이다.
11 내가 그들에게 증인들을 보내어 내가 그들을 대적하여 증언하게 하겠지만, 그들은 듣지 않고 증인들까지 죽일 것이며, 율법을 찾는 자들을 박해하고, 내 눈앞에서 악을 행하려고 모든 것을 폐지하고 바꿀 것이다.
12 내가 그들에게서 내 얼굴을 숨기고 그들을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어 사로잡히게 하고, 먹이가 되게 하고, 잡아먹히게 하고, 그들을 땅 가운데에서 제거하고 이방인들 가운데 흩어지게 하리라.
13 그들은 나의 모든 율법과 모든 계명과 모든 규례를 잊어버리고 초하루와 안식일과 절기와 희년과 규례를 어기며 길을 잃을 것이다.
14 그 후에 그들이 온 마음과 온 영혼과 온 힘을 다하여 이방인 가운데서 내게로 돌아올 것이며, 내가 그들을 모든 이방인 가운데서 모을 것이니, 그들이 나를 찾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날 것이다.
15 내가 그들에게 의로움과 함께 풍성한 평화를 나타내고, 온 마음과 온 영혼을 다해 그들에게서 정직의 나무를 뽑아낼 것이니, 그들은 저주가 아니라 복이 되고, 꼬리가 아니라 머리가 될 것이다.
16 내가 그들 가운데 내 성소를 세우고 그들과 함께 거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진실과 의로움으로 내 백성이 될 것이다.
17 내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고 그들을 실망시키지 아니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18 모세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며 이르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과 주의 기업을 버리지 마사 그들이 마음의 잘못에 빠져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을 원수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지 마사 그들이 그들을 다스려 주께 죄를 짓게 하지 않게 하옵소서
19 주님, 주의 자비를 주의 백성 위에 베푸시고 그들 안에 정직한 마음을 심어 주시어, 벨리아르의 영이 그들을 지배하여 주 앞에서 그들을 고발하고 의로운 길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 앞에서 멸망하게 하지 마소서.
20 그러나 그들은 주의 백성이요 주의 기업이니, 주께서 큰 권능으로 이집트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느니라. 그들 속에 정결한 마음과 거룩한 영을 창조하셔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죄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2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들의 고집과 생각과 목이 완고함을 알고 있다. 그들은 자기들의 죄와 조상들의 죄를 자백하기 전에는 순종하지 않을 것이다.'
22 그 후에 그들이 온전한 마음과 온 영혼으로 내게 돌아올 것이니 내가 그들의 마음의 포피와 그들의 자손의 마음의 포피를 잘라 버리고 그들 안에 성령을 불어넣어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그날부터 영원까지 내게서 돌아서지 않게 하리라.
23 그들의 영혼은 나에게, 그리고 나의 모든 계명에 붙들 것이며, 그들은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나는 그들의 아버지가 되고 그들은 나의 자녀가 될 것이다.
24 그들은 모두 살아 계신 하나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며, 모든 천사와 모든 영이 알게 될 것이다. 참으로 그들은 이들이 나의 자녀이며, 내가 그들의 아버지로서 의롭고 정직하며 그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25 그리고 너는 내가 이 산에서 너에게 선포하는 이 모든 말씀, 곧 처음과 마지막 말씀을 모두 기록하여라. 이 말씀은 율법과 증거와 주간과 희년의 모든 절기에 걸쳐

영원까지 이루어질 것이며, 내가 내려와 영원토록 그들과 함께 거할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26 그리고 그분은 임재의 천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조의 시작부터 내 성소가 그들 가운데 영원토록 세워질 때까지 모세를 위하여 기록하라.”
27 여호와께서 모든 사람의 눈앞에 나타나실 때에 모든 사람이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모든 자손의 아버지요 시온 산의 왕으로 영원까지 있을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시온과 예루살렘은 거룩하게 될 것이다.
28 이스라엘 진영 앞에 나아가던 임재의 천사가 창조 때부터 각 연도별로 기록된 율법과 희년의 증거 판을 가져다가, 하늘과 땅과 그 모든 피조물이 하늘의 권능대로 새롭게 되고 땅의 모든 피조물이 새롭게 되는 새 창조의 날부터, 시온 산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이 세워지고 모든 광명체가 치유와 평화와 복을 위하여 새롭게 되어 이스라엘의 모든 택하신 자들을 섬길 때까지, 그 날부터 땅의 모든 날까지 그러하도록 기록하였다.

제 2 장

1 그리고 여호와의 임재의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창조의 모든 역사를 기록하라 곧 여호와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모든 일을 마치시고 모든 창조물을 완성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일을 지켜 영원토록 거룩하게 하시고 모든 일에 대한 표징으로 정하신 것을 기록하라
2 첫째 날에 그분은 위의 하늘과 땅과 물과 그분 앞에서 섬기는 모든 영들, 곧 임재의 천사들, 거룩하게 하는 천사들, 불의 영의 천사들, 바람의 영의 천사들, 구름의 영의 천사들, 어둠의 영의 천사들, 눈의 영의 천사들, 우박의 영의 천사들, 음성의 영의 천사들, 천둥의 영의 천사들, 번개의 영의 천사들, 추위의 영의 천사들, 더위의 영의 천사들, 겨울의 영의 천사들, 봄의 영의 천사들, 가을의 영의 천사들, 여름의 영의 천사들, 그리고 하늘과 땅에 있는 그분의 모든 피조물의 영들을 창조하셨습니다. 또한 깊은 곳과 어둠, 저녁과 밤, 그리고 빛과 새벽과 낮을 창조하셨는데, 이는 그분이 마음의 지식으로 예비하신 것입니다.
3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작품을 보고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의 모든 작품을 위하여 그분 앞에 찬미하였으니, 이는 그분께서 첫째 날에 일곱 가지 위대한 작품을 창조하셨음이니라.
4 둘째 날에 하나님께서 물 가운데 궁창을 창조하시고, 그 날에 물이 갈라져서 절반은 궁창 위로 올라가고 절반은 궁창 아래로 내려가 온 땅을 덮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둘째 날에 창조하신 유일한 작품입니다.
5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그분은 물이 온 땅에서 한 곳으로 모여들고 마른 땅이 드러나게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6 그러자 물은 그분의 명령대로 되어 땅에서 물러가 하늘 밖 한 곳으로 모였고, 마른 땅이 나타났습니다.
7 그 날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각기 다른 곳에 모이는 바다와 모든 강과 산과 땅 위의 물이 모이는 곳과 모든 호수와 땅의 모든 이슬과 뿌려진 씨앗과 싹이 트는 모든 것들과 열매 맺는 나무와 숲의 나무들과 에덴 동산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식물들을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8 하나님께서는 이 네 가지 큰 창조물을 셋째 날에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시고 그것들을 하늘 궁창에 두셔서 온 땅을 비추게 하시고 낮과 밤을 다스리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셨습니다.
9 하나님께서는 해를 땅 위에 큰 표징으로 삼으시어 날들과 안식일들과 달들과 절기들과 해들과 안식년들과 희년들과 모든 계절에 나타내시도록 하셨습니다.
10 그리고 빛과 어둠을 나누고 번영을 가져다주니, 땅에서 싹이 나고 자라는 모든 것이 번성하게 하느니라.
11 그분은 넷째 날에 이 세 종류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에는 물 깊은 곳에 큰 바다 괴물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것들은 그분의 손으로 창조된 최초의 육신의 피조물들이니, 물고기와 물속에 움직이는 모든 것, 그리고 날아다니는 모든 것, 곧 새와 그 모든 종류입니다.
12 그리고 해가 그들 위에 떠올라 그들을 번영하게 하였고, 땅 위에 있는 모든 것, 땅에서 돋아나는 모든 것, 모든 열매 맺는 나무, 모든 육체 위에 떠올랐습니다.
13 그분은 다섯째 날에 이 세 종류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땅의 모든 동물과 모든 가축과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14 그 후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땅 위의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것과 날아다니는 모든 것과 짐승과 가축과 땅 위를 움직이는 모든 것과 온 땅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으니, 이 모든 것을 그에게 다스릴 권세를 주셨더라.
15 그리고 그분은 여섯째 날에 이 네 종류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스물두 종류가 되었습니다.
16 그리고 그분은 여섯째 날에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바다에 있는 것과 깊은 곳에 있는 것과 빛에 있는 것과 어둠에 있는 것과 모든 것을 다 완성하셨습니다.
17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큰 표징, 곧 안식일을 주셨으니, 이는 우리가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모든 일을 하지 않고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18 그리고 임재의 모든 천사들과 거룩하게 하는 모든 천사들, 이 두 큰 부류의 천사들—그분은 우리에게 하늘과 땅에서 그분과 함께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하셨습니다.
19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를 위해 한 백성을 택하여 안식일을 지키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하고 복을 줄 것이다. 내가 안식일을 나를 위해 거룩하게 하고 지금도 거룩하게 하는 것처럼, 나도 그들을 그렇게 복을 줄 것이며,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20 내가 본 모든 사람 중에서 야곱의 자손을 택하여 내 맏아들로 기록하고 영원무궁토록 내게 거룩하게 구별

하였으니 내가 그들에게 안식일을 가르쳐 그들이 그 날에 모든 일을 하지 않고 안식일을 지키게 하리라.
21 그리하여 그분은 그곳에 표징을 세우셨으니, 이는 그들이 우리와 함께 일곱째 날에 안식일을 지켜 먹고 마시며,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을 찬양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모든 민족 가운데서 특별한 백성을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것처럼, 그들도 우리와 함께 안식일을 지키게 하려 하심이라.
22 그리고 그분은 자신의 명령을 온 날 동안 그분 앞에서 향기로운 냄새로 여기도록 하셨습니다...
23 아담으로부터 야곱까지 인류의 머리가 스물두 개 있었고, 일곱째 날까지 스물두 가지 종류의 일이 행해졌으니 이것은 복되고 거룩하며, 이전 것도 복되고 거룩하니, 이것은 저것과 함께 거룩함과 복을 위하여 봉사하는 것이라.
24 그리고 야곱과 그의 자손에게는 첫째 증거와 율법의 복되고 거룩한 자들이 항상 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이는 그분께서 일곱째 날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신 것과 같습니다.
25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모든 일을 위하여 하는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요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명하셨느니라.
26 그러므로 주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날을 지키라고 명하시어 거룩하게 여기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며 더럽히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날은 다른 모든 날보다 더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27 누구든지 이 날을 더럽히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 날에 어떤 일을 하는 자는 반드시 영원히 죽을 것이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이 날을 지키고 그 땅에서 뿌리 뽑히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는 이 날이 거룩하고 복된 날이기 때문이니라.
28 누구든지 안식일을 지키고 그 날에 모든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와 같이 평생 거룩하고 복을 받을 것입니다.
29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날의 법을 선포하여 이르되 안식일을 지키되 마음의 잘못으로 그것을 버리지 말며, 안식일에는 부적절한 일을 하거나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며, 먹거나 마실 것을 준비하지도 말고, 물을 긷거나 성문을 통해 짐을 들여오거나 내보낼 것도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다만 여섯째 날에 집에서 준비한 것은 예외로 하라.
30 그 날에는 집집마다 물건을 들여오거나 내놓지 말라. 그 날은 모든 희년의 날보다 더 거룩하고 복된 날이니라. 우리가 그 날에 하늘에서 안식일을 지켰으니, 땅에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이 사람에게 알려지기 전의 일이니라.
31 만물의 창조주께서 그 날을 축복하셨으나 모든 백성과 나라가 그 날을 지키도록 거룩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허락하셨으니, 그들에게만 그 날 땅에서 먹고 마시며 안식일을 지키도록 하셨다.
32 만물의 창조주께서 복과 거룩과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신 이 날을 모든 날 가운데서 복되게 하셨습니다.
33 이 율법과 증거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들의 대대로 영원한 율법으로 주어졌습니다.

제 3 장

1 둘째 주 엿새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짐승과 모든 가축과 모든 새와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 속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그 종류와 모양대로 아담에게 데려왔습니다. 첫째 날에는 짐승을, 둘째 날에는 가축을, 셋째 날에는 새를, 넷째 날에는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섯째 날에는 물 속에 움직이는 것을 데려왔습니다.
2 아담은 그들 모두에게 각자의 이름을 지어 주었고, 그가 부른 대로 그들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3 그리고 이 닷새 동안 아담은 땅 위에 있는 모든 종류의 남녀 짐승들을 보았으나, 자기에게는 돕는 배필이 없어서 혼자였다.
4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자.'
5 그리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깊이 잠들게 하시니 그가 잠들고 나서 그의 갈비뼈 중에서 한 갈빗대를 취하여 여자를 위하여 만드셨으니 이 갈빗대가 여자의 근원이 되었느니라. 그리고 그 자리에 살을 붙여 여자를 만드셨느니라.
6 그리고 그분께서 아담을 잠에서 깨우시니, 아담이 여섯째 날에 깨어나서 그녀를 그에게로 데려오시니, 아담이 그녀를 알아보고 이르시되, '이제 이 여자는 내 뼈 중의 뼈요, 내 살 중의 살이니, 내 아내라 불릴 것이다. 이는 그녀가 그녀의 남편에게서 취해졌기 때문이다.' 하시니라.
7 그러므로 남자와 아내는 하나가 되어야 하니,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되어야 한다.
8 첫째 주에 아담이 창조되었고 그의 아내인 갈비뼈가 창조되었습니다. 둘째 주에 하나님께서 그녀를 아담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남자는 칠 일, 여자는 두 칠 일 동안 부정하게 지내야 한다는 계명이 주어졌습니다.
9 아담이 자기가 창조된 땅에서 사십 일을 마친 후에 우리는 그를 에덴 동산으로 인도하여 그곳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였습니다. 그의 아내는 팔십 일째 되는 날에 데려와서 그 후에 에덴 동산에 들어가게 하였습니다.
10 그러므로 해산하는 여인에 관하여 하늘의 돌판에 계명이 기록되어 있으니, '만일 그녀가 남자를 낳으면 첫째 주간에 따라 칠 일 동안 부정한 상태로 있어야 하고, 삼십삼 일 동안은 정결하게 하는 피를 흘리며 있어야 하며, 그 기간이 다 될 때까지는 어떤 거룩한 것도 만지지 말고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라.'
11 그러나 여자아이의 경우에는 처음 두 주 동안 부정한 상태로 두 주를 보내고, 정결하게 되는 피를 흘리는 기간 동안 육십육 일, 곧 총 팔십 일을 지내야 한다.
12 그리고 그녀가 팔십 일 동안 산고를 그쳤을 때 우리는 그녀를 에덴 동산으로 인도했습니다. 에덴 동산은

온 땅보다 더 거룩하고 그 안에 심은 모든 나무도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13 그러므로 아들이나 딸을 낳은 여자는 그 아이의 출산 예정일이 될 때까지 거룩한 것을 만지지 말고 성소에 들어가지 말라는 규례를 세웠습니다.
14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기록된 율법과 증거이니, 그들이 모든 날 동안 그것을 지키도록 하려 함이라.
15 그리고 첫째 희년 첫째 주에 [오전 1 시~7 시] 아담과 그의 아내는 에덴 동산에서 칠 년 동안 경작하고 지키며 살았는데, 우리가 그에게 일을 주고 경작에 적합한 모든 일을 하도록 지시하였더라.
16 그리고 그는 (동산을) 경작하였고, 벌거벗었음에도 그것을 알지 못하였고, 부끄러워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새와 짐승과 가축으로부터 동산을 지키고, 그 열매를 거두어 먹고, 남은 것은 자기와 아내를 위해 따로 떼어 두었다.
17 그가 거기서 7 년을 채우고 그 후 정확히 7 년이 지난 후, 둘째 달 17 일에 뱀이 와서 여자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너희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명하셨느냐?' 하더라
18 그러자 그녀가 그것에게 말했습니다.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으라고 하셨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셨으니, 만일 만지면 죽을 것이다.'
19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아시되 너희가 그 열매를 먹는 날에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처럼 되어 선악을 알게 될 것을 아시느니라
20 그 여자는 그 나무가 보기에 아름답고 싱싱하며 그 열매가 먹기에 좋으니 따먹었다.
21 마리아가 먼저 무화과 잎으로 자신의 수치를 가린 후, 그것을 아담에게 주어 먹게 하니, 그의 눈이 열리고 자기가 벌거벗었음을 알게 되었다.
22 그리고 그는 무화과 잎을 가져다가 꿰매어 앞치마를 만들어 자기의 수치를 가렸다.
23 그리고 하나님은 뱀을 저주하시고 영원히 뱀에게 진노하셨다…
24 예수께서 여자가 뱀의 말을 듣고 먹었으므로 그 여자에게 진노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 슬픔과 고통을 크게 더하리라. 너는 고통 가운데 아이를 낳을 것이며, 네 남편에게로 돌아가 그가 너를 다스릴 것이다.'
25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먹지 말라고 명령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므로, 너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아 네게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며,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땀을 흘리며 빵을 먹을 것이다. 너는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26 그리고 그분은 그들을 위해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시고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셨다.
27 아담이 에덴동산에서 나온 날에, 그는 자기의 수치를 가린 날 아침 해 뜰 때에 향기로운 제물로 유향과 갈바눔과 향료를 바쳤습니다.
28 그 날에 모든 짐승과 가축과 새와 걷는 것과 움직이는 모든 것의 입이 닫혀서 더 이상 말할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모두 한 입술과 한 혀로 서로 말했었기 때문입니다.
29 그리고 그분은 에덴 동산에 있던 모든 생물을 그곳에서 내보내시니, 그 생물들은 종류대로, 모양대로 각기 처소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30 그리고 그분은 모든 짐승과 가축 중에서 오직 아담에게만 그의 수치를 가릴 수 있는 것을 주셨다.
31 그러므로 율법의 심판을 아는 모든 자는 자기의 수치를 가리고 이방인들처럼 몸을 드러내지 말라는 것이 하늘의 돌판에 기록되어 있다.
32 넷째 달 초하루에 아담과 그의 아내는 에덴 동산에서 나와 그들이 창조된 땅인 엘다 땅에 거주하였다.
33 아담은 그의 아내의 이름을 이브라 불렀다.
34 그들에게는 첫 번째 희년까지 아들이 없었고 [오전 8 시] 그 후에 그는 그녀와 동침했습니다.
35 이제 그는 에덴 동산에서 받은 가르침대로 땅을 경작했습니다.

제 4 장

1 그리고 셋째 주, 즉 두 번째 희년(기원전 64-70 년)에 그녀는 가인을 낳았고, 넷째 주(기원전 71-77 년)에 그녀는 아벨을 낳았으며, 다섯째 주(기원전 78-84 년)에 그녀는 딸 아완을 낳았습니다.
2 그리고 셋째 희년 첫째 해에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3 그가 들판에서 그를 죽였으니 그의 피가 땅에서 하늘을 향해 부르짖으며 그가 그를 죽였다고 탄식하였다.
4 여호와께서 아벨을 죽인 가인을 책망하시고, 그의 형제의 피 때문에 그를 땅에서 방황하게 하시고, 땅에서 저주를 내리셨다.
5 그러므로 하늘의 돌판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자기 이웃을 배신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 보고 들은 자는 다 '그렇게 되기를' 하고 말하라. 보고도 말하지 않은 자도 그와 같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6 그러므로 우리가 주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늘과 땅에서, 빛과 어둠 속에서, 그리고 모든 곳에서 행해지는 모든 죄를 고백합니다.
7 아담과 그의 아내는 아벨을 위해 사십 년 동안 슬퍼하였고, 다섯째 주의 넷째 해에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아담은 아내와 다시 동침하여 아들을 낳았고, 그 이름을 셋이라 불렀습니다. 이는 그가 '가인이 아벨을 죽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땅 위에 두 번째 씨를 일으키셨다'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8 그리고 여섯째 주에 [오전 134-40 시] 그는 딸 아즈라를 낳았다.
9 그리고 카인은 그의 누이 아완을 아내로 맞이하여 네 번째 희년이 끝날 무렵에 에녹을 낳았습니다. [190-196 AM] 그리고 다섯 번째 희년 첫째 주 첫째 해에 [197 AM] 땅 위에 집들이 세워졌고, 카인은 성읍을 건설하여 그의 아들 에녹의 이름을 따서 그 이름을 지었습니다.

10 아담이 그의 아내 이브를 알았더니 이브가 아홉 아들을 낳았다.
11 그리고 다섯 번째 희년의 다섯 번째 주에 [기원전 225-31 년] 셋은 그의 누이 아즈라를 아내로 맞이했고, 그녀는 (여섯 번째 주 넷째 해에) [기원전 235 년] 그에게 에노스를 낳았다.
12 그는 땅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13 그리고 일곱 번째 희년 셋째 주에 에노스는 그의 누이 노암을 아내로 맞이하여 다섯 번째 주 셋째 해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의 이름을 케난이라 불렀다.
14 여덟 번째 희년이 끝날 무렵에 케난은 그의 누이 무알렐레트를 아내로 맞이했고, 그녀는 아홉 번째 희년, 곧 이 주의 셋째 해 첫째 주에 그에게 아들을 낳았으며, 케난은 그의 이름을 마할랄렐이라 불렀다.
15 그리고 열 번째 희년 둘째 주에 마할랄렐이 그의 아버지의 형제 바라키엘의 딸 디나를 아내로 맞이하여 여섯째 해 셋째 주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는 그 이름을 야렛이라 불렀다. 이는 그의 시대에 주의 천사들, 곧 파수꾼이라 불리는 자들이 땅에 내려와 사람들을 가르치고 땅에서 공의와 정직을 행하게 하였음이라.
16 그리고 열한 번째 희년[512-18 년]에 야렛은 라수잘의 딸이자 그의 아버지의 형제의 딸인 바라카라는 아내를 맞이했습니다. 이 희년의 넷째 주[522 년]에 그녀는 그에게 아들을 낳았습니다. 희년의 넷째 해인 다섯째 주에 야렛은 그의 이름을 에녹이라 불렀습니다.
17 그는 땅에 태어난 사람들 가운데 처음으로 글쓰기와 지식과 지혜를 배우고, 하늘의 징조들을 달의 순서대로 책에 기록하여 사람들이 각 달의 순서대로 계절을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8 그리고 그는 증언을 기록한 첫 번째 사람이었고, 땅의 모든 세대 가운데 있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증언했으며, 희년의 주간을 세어 알려주고, 연도의 날들을 알려주고, 달들을 순서대로 정하고, 우리가 그에게 알려준 대로 안식일들을 세어 알려주었습니다.
19 그리고 예수께서는 꿈결 중에 환상으로 과거의 일과 미래의 일을 보셨으니, 이는 심판 날까지 모든 세대에 걸쳐 사람의 자손에게 일어날 일입니다. 예수께서는 모든 것을 보고 깨달으시고, 그 증거를 기록하여 모든 사람의 자손과 그 후손을 위하여 땅에 두셨습니다.
20 그리고 열두 번째 희년[582-88] 일곱 번째 주에 그는 아내를 맞이했는데, 그녀의 이름은 에드나였고, 그녀는 다니엘의 딸이며 그의 아버지의 형제의 딸이었다. 그리고 여섯 번째 해 이 주[587 AM]에 그녀는 그에게 아들을 낳았고 그는 그의 이름을 므두셀라라 불렀다.
21 그리고 그는 이 여섯 희년 동안 하나님의 천사들과 함께 있었는데, 천사들이 그에게 땅과 하늘에 있는 모든 것, 곧 해의 법칙을 보여주었고, 그는 그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22 그리고 그는 사람의 딸들과 합하여 죄를 지은 파수꾼들을 증언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사람의 딸들과 합하여 더럽혀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에녹은 그들 모두를 책망했습니다.
23 그리고 그는 사람들의 자녀들 가운데서 택함을 받아 영광스럽고 존귀하게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셨으니, 거기서 그는 세상의 정죄와 심판과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기록하셨느니라.
24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홍수를 에덴 온 땅에 내리셨습니다. 이는 그가 모든 인류를 대적하여 증거하는 표징이 되어 심판의 날까지 모든 세대의 행위를 기록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25 그리고 그는 성소의 향을 피웠으니 곧 산 위에서 주님 앞에서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향료였다.
26 주님께서는 땅 위에 네 곳을 마련해 두셨으니, 에덴 동산과 동방 산과 오늘 네가 서 있는 이 산, 시내 산과 시온 산이다. 시온 산은 새 창조 때 땅을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거룩하게 될 것이다. 그곳을 통하여 땅은 모든 죄악과 부정한 것으로부터 온 세대에 걸쳐 거룩하게 될 것이다.
27 그리고 열네 번째 희년(기원전 652 년)에 므두셀라는 자기 아버지의 형제의 딸인 아즈리알의 딸 에드나를 아내로 맞이하여 이 주의 첫째 해 셋째 주(기원전 701-7 년)에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라멕이라 불렀다.
28 열다섯 번째 희년 셋째 주에 라멕은 베테노스라는 여자와 결혼했는데, 그녀는 바라킬의 딸이며 그의 아버지의 형제의 딸이었다. 이 주에 그녀는 아들을 낳았고, 라멕은 그의 이름을 노아라 지었다. 이는 그가 말하기를 '이 아이가 나의 고난과 나의 모든 일과 여호와께서 저주하신 땅을 위로할 것이다' 하였음이라.
29 그리고 열아홉 번째 희년이 끝나는 여섯째 해 일곱째 주에 아담이 죽었고 그의 모든 아들들이 그를 그가 창조한 땅에 장사 지냈으니 그는 땅에 묻힌 첫 번째 사람이라.
30 그리고 그분은 천 년 중 칠십 년을 채우지 못하셨습니다. 이는 하늘의 증거로 천 년이 하루와 같기 때문이며, 따라서 지식의 나무에 관하여 '너희가 그 열매를 먹는 날에는 죽을 것이다'라고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그 날의 해를 채우지 못하고 그 날에 돌아가셨습니다.
31 이 희년이 끝날 무렵, 가인도 같은 해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의 집이 무너져 그 집 한가운데서 죽었는데, 돌에 맞아 죽은 것입니다. 가인이 돌로 아벨을 죽였으므로, 그도 의로운 심판에 따라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32 그러므로 하늘의 돌판에 이렇게 기록되었다. '사람이 이웃을 죽인 그 도구로 그도 죽임을 당할 것이요, 그가 이웃을 상하게 한 그 방법으로 그도 벌을 받을 것이다.'
33 그리고 이십오 희년에 노아는 아내를 맞이했는데, 그녀의 이름은 라케엘의 딸이며 그의 아버지의 형제의 딸인 엠자라였다. 그녀는 희년 첫째 해 다섯째 주에 그와 결혼하여 삼 년째 해에 셈을 낳았고, 다섯째 해에 함을 낳았으며, 희년 첫째 해 여섯째 주에 야벳을 낳았다.

제 5 장

1 사람의 자손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하고 딸들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의 천사들이 희년의 어느 해에 그들을 보았는데, 그들이 아름다워서 그들이 자기들이 원하

는 대로 아내를 맞이하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들은 거인이었다.
2 그리하여 땅 위에 불법이 성행하고 모든 생물이 그 행실을 타락하였으니 사람과 가축과 짐승과 새와 땅 위를 걷는 모든 것이 다 그 행실과 질서를 타락시키고 서로 잡아먹기 시작하였더라. 땅 위에 불법이 성행하고 모든 사람의 생각과 계획이 끊임없이 악하였더라.
3 하나님께서 땅을 보시니, 땅이 부패하였고 모든 육체가 그 질서를 타락시켰으며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이 그의 눈앞에서 온갖 악을 행하였더라.
4 그리고 그분은 자신이 창조하신 땅 위의 사람과 모든 생물을 멸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5 그러나 노아는 주님 앞에서 은혜를 입었습니다.
6 그리고 그분께서 땅에 보내신 천사들에게 진노하셔서 그들을 그 모든 권세에서 뿌리 뽑으라고 명하시고, 땅속 깊은 곳에 결박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보십시오, 그들은 그들 가운데 결박되어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7 그리고 그들의 아들들을 향하여 그분 앞에서 명령이 내려졌으니, 그들은 칼에 맞아 죽고 하늘 아래에서 제거될 것이다.
8 그리고 그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영이 항상 사람 위에 머물지 않을 것이다. 그들도 육체이며 그들의 수명은 백이십 년이다.'
9 그러자 그분께서 그들 가운데로 칼을 보내시어 각자가 자기 이웃을 죽이게 하셨고, 그들은 서로 죽이기 시작하여 마침내 모두 칼에 맞아 쓰러져 땅에서 멸망했습니다.
10 그들의 조상들은 그들의 멸망을 목격했고, 그 후 그들은 큰 심판의 날까지 영원히 땅속 깊은 곳에 갇혀 있었으니, 그 날은 주님 앞에서 자기들의 행실과 행위를 타락시킨 모든 자들에게 심판이 집행되는 날이다.
11 그리고 그분은 그 모든 사람을 그 자리에서 멸하셨고, 그들의 모든 악행에 따라 심판하지 않은 자가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12 그리고 그분은 모든 피조물을 위하여 새롭고 의로운 본성을 만드셨으니, 이는 그들이 온 본성으로 영원히 죄를 짓지 않고, 각기 자기 종류대로 항상 의롭게 되게 하려 하심이라.
13 모든 사람의 심판이 정해져 있고 의로움으로 하늘의 돌판에 기록되어 있으니, 곧 정해진 길에서 벗어난 모든 사람의 심판이니라. 만일 그들이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면 모든 피조물과 모든 종류에 대하여 심판이 기록되어 있느니라.
14 하늘에도 땅에도, 빛에도 어둠에도, 스올에도 깊은 곳에도, 어둠의 장소에도 심판받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으며, 그 모든 심판은 정해져 있고 기록되어 있고 새겨져 있다.
15 그분은 모든 사람을 그의 크신 대로 심판하시고, 작은 자는 그의 작은 대로 심판하시며, 각 사람을 그의 행위대로 심판하실 것이다.
16 그분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며, 선물도 받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각 사람에게 심판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바친다 해도, 그분은 선물이나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아무것도 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의로운 심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17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되고 정해졌으니, 만일 그들이 의롭게 그분께 돌아오면 그분께서 그들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사하시리라.
18 기록된 바와 같이, 그분은 모든 죄악에서 돌이키는 모든 사람에게 매년 한 번씩 자비를 베푸실 것입니다.
19 홍수 이전에 그들의 행실과 생각을 타락시킨 모든 사람 중에서 노아 외에는 아무도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이는 노아가 그의 아들들을 대신하여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 그의 아들들을 홍수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노아는 모든 행실에 있어서 마음이 의로웠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대로 행했으며, 그에게 정해진 어떤 것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20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땅 위에 있는 모든 것, 곧 사람과 가축과 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멸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에게 홍수에서 자신을 구원할 방주를 만들라고 명하셨습니다.
21 노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방주를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지었는데, 이는 27 년 희년 5 년째 되는 해 5 주 차(초승달이 뜨는 날)에 한 것이었다. [오전 13 시 7 분]
22 그가 그 해 여섯째 해 둘째 달 초하루 16 일까지 그 달에 들어가셨고 우리가 그분께 가져온 모든 것과 함께 언약궤 안으로 들어가셨으며 주님께서 17 일 저녁에 밖에서 언약궤를 닫으셨습니다.
23 여호와께서 하늘의 일곱 홍수문을 열고 큰 깊은 샘들의 입구를 일곱 개 여시니라.
24 그러자 홍수 문들이 닫히고 하늘에서 물이 사십 주야 동안 쏟아져 내렸으며, 깊은 샘들도 물을 솟아나게 하여 온 세상이 물로 가득 찼습니다.
25 물이 땅 위에 차올라 십오 규빗이나 모든 높은 산보다 높이 솟아올랐고, 방주가 땅 위로 들려 올라가 물 위를 움직였다.
26 물이 땅 위에 다섯 달, 곧 백오십 일 동안 가득 찼습니다.
27 그리고 언약궤는 아라랏 산 중 하나인 루바르 산 꼭대기에 이르렀다.
28 그리고 넷째 달 초하루에 큰 깊은 곳의 샘들이 닫히고 하늘의 홍수 문들이 막혔으며, 일곱째 달 초하루에 땅의 모든 심연의 입구가 열리고 물이 깊은 곳으로 내려가기 시작했다.
29 열 번째 달의 초승달에는 산봉우리들이 보였고, 첫째 달의 초승달에는 땅이 보였다.
30 그 물이 그 제 7 년 제 5 주에 땅 위에서 사라지고, 제 2 월 제 17 일에 땅이 마르게 되었습니다.
31 그리고 그 스물일곱째 날에 예수께서 언약궤를 여시고 그 안에서 짐승과 가축과 새와 모든 움직이는 것을 내보내셨다.

제 6 장

1 셋째 달 초하루에 예수께서 방주에서 나오셔서 그 산에 제단을 쌓으셨다.
2 그리고 그분은 땅을 위해 속죄하시려고 어린 염소 한 마리를 가져다가 그 피로 땅의 모든 죄를 속죄하셨습니다. 이는 노아와 함께 방주에 있던 것들 외에는 땅 위에 있던 모든 것이 멸망했기 때문입니다.
3 그가 그 기름을 제단 위에 놓고, 소 한 마리, 염소 한 마리, 양 한 마리, 새끼 염소 한 마리, 소금 한 마리, 산비둘기 한 마리, 비둘기 새끼 한 마리를 가져다가 번제물을 제단 위에 놓고, 기름을 섞은 제물을 그 위에 붓고, 포도주를 뿌리고, 유향을 그 위에 뿌려서, 여호와 앞에서 기뻐하시는 향기가 나도록 하였습니다.
4 여호와께서 그 향기로운 냄새를 맡으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시되 다시는 홍수로 땅을 멸하지 아니하시고 땅의 모든 날, 곧 씨 뿌리는 때와 추수하는 때가 끊이지 아니하며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그 순서대로 변함없이 영원히 계속되리라 하시니라.
5 '너희는 땅 위에서 번성하여 수가 많아지고 그 위에 복이 되라. 내가 땅과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마음을 불어넣으리라.'
6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모든 짐승과 모든 날개 달린 것과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 속의 물고기와 모든 먹을 것을 주었으니 푸른 풀과 같이 먹을 것을 다 주었느니라.
7 그러나 생명과 피가 있는 고기는 먹지 말라. 모든 고기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이다. 너희 생명의 피를 요구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모든 사람의 손에서, 모든 짐승의 손에서, 나는 사람의 피를 요구할 것이다.
8 누구든지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는 그의 피를 흘리게 될 것이니,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지으셨음이니라.
9 너희는 번성하여 땅에서 번성하라.'
10 노아와 그의 아들들은 고기에 있는 피는 절대 먹지 않겠다고 맹세하였고, 이 달에 온 땅의 모든 세대에 걸쳐 영원히 지킬 언약을 주 하나님 앞에서 맺었습니다.
11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네가 이 달에 산에서 맹세로 이스라엘 자손과 언약을 맺고, 주님께서 그들과 영원히 맺으신 언약의 모든 말씀 때문에 그들에게 피를 뿌리라고 네게 말씀하셨다.
12 이 증언은 너희가 항상 지켜야 할 것을 명하는 것이니, 땅이 있는 모든 날 동안 짐승이나 새나 가축의 피를 먹지 말라. 땅이 있는 모든 날 동안 짐승이나 가축이나 새의 피를 먹는 사람은 그와 그의 자손이 땅에서 뿌리 뽑힐 것이다.
13 그리고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피를 먹지 말라고 명하여 그들의 이름과 자손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영원히 있게 하라.
14 이 율법에는 기한이 없으니 영원합니다. 그들은 대대로 이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하여 제단 앞에서 피를 흘리며 여러분을 위해 간구해야 합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에 주님 앞에서 여러분을 위해 끊임없이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이 율법을 지키고 뿌리 뽑히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15 그리고 그분은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다시는 땅에 홍수가 나지 않을 것이라는 표징을 주셨습니다.
16 그분은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셨으니, 이는 땅이 있는 모든 날 동안 다시는 홍수로 땅이 멸망하지 않겠다는 영원한 언약의 표징이니라.
17 그러므로 그들이 이 달에 일 년에 한 번 오순절을 지켜 언약을 해마다 새롭게 하도록 하늘의 돌판에 기록하고 정한 바입니다.
18 그리고 이 모든 축제는 창조일부터 노아 시대까지 하늘에서 지켜졌으니 곧 26 년 5 주간(서기 1309-1659 년) 동안이었더라. 노아와 그의 아들들은 7 년 1 주간, 곧 노아가 죽는 날까지 이 축제를 지켰고, 노아가 죽은 날부터 그의 아들들은 아브라함 시대까지 이 축제를 폐지하고 피를 먹었느니라.
19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것을 지켰고, 이삭과 야곱과 그의 자손들도 네 시대까지 그것을 지켰으나, 네 시대에 이르러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것을 잊어버렸고, 너희가 이 산에서 다시 그것을 기념하기까지 그러하였다.
20 그리고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절기를 모든 세대에 걸쳐 지키도록 명하여라. 이는 그들에게 주어진 명령이니, 그들은 이 달의 일 년에 하루를 이 절기로 지켜야 한다.
21 이는 오순절이며 초실절이기 때문입니다. 이 절기는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으니, 기록되고 새겨진 말씀대로 지키십시오.
22 내가 첫째 율법책, 곧 너를 위해 기록한 책에 네가 그 절기를 지켜 일 년에 하루씩 지키도록 기록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이 달에 일 년에 하루씩 그 절기를 기억하고 지키도록 그 제사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23 첫째 달 초하루, 넷째 달 초하루, 일곱째 달 초하루, 열째 달 초하루는 기념하는 날이요, 절기의 날도 사계절로 정하여 지킨 날들이니, 이는 영원한 증거로 기록되고 제정된 것이다.
24 노아는 그것들을 자신을 위하여 대대로 영원히 지켜야 할 절기로 정하였으므로, 이로써 그것들은 그를 기념하는 절기가 되었습니다.
25 그리고 첫째 달 초승달이 뜨는 날에 그는 자신을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는 명령을 받았고, 그 날에 땅이 마르고 그가 (방주를) 열어 땅을 보았다.
26 넷째 달 초하루에 땅속 깊은 곳의 입구가 닫혔고, 일곱째 달 초하루에 땅속 깊은 곳의 모든 입구가 열리고 물이 그 안으로 내려오기 시작했다.
27 열 번째 달 초승달이 뜰 때에 산꼭대기들이 보이니 노아가 기뻐하였다.
28 그러므로 그는 이 절기들을 자신을 위한 영원한 기념 절기로 제정하셨고, 이로써 이 절기들이 제정되었습니다.
29 그리고 그들은 그것들을 하늘의 돌판에 새겨 두었는데, 각 돌판은 열세 주간씩 지나갔고, 첫째에서 둘째로, 둘째에서 셋째로, 셋째에서 넷째로 이어지는 기념일이 되었다.
30 그리고 그 계명의 모든 날은 오십이 주간이 되어 일 년을 온전히 채우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하늘의 돌판에 새겨지고 정해졌느니라.

31 그리고 이 계명을 어느 해라도, 또는 해마다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32 그리고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이 계산대로 한 해를 지키게 하라. 곧 삼백육십사일이요, 이것으로 온전한 한 해가 되리라. 그들은 그 날들과 절기들을 어기지 말고 지켜야 하니, 모든 것이 그들의 증언대로 이루어질 것이며, 그들은 어떤 날도 빼놓지 말고 어떤 절기도 어기지 말아야 하리라.
33 그러나 만일 그들이 그분의 계명대로 그것들을 소홀히 여기고 지키지 아니하면, 그들은 모든 절기를 어지럽히고 해의 질서를 흐트러뜨리며, 그들의 규례를 소홀히 여기게 될 것이다.
34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은 잊어버리고 해의 흐름을 찾지 못할 것이며, 초승달과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고 해의 모든 순서를 잘못 판단하게 될 것이다.
35 내가 알고 있으므로 이제부터 너에게 알려 주겠다. 이것은 내가 생각해낸 것이 아니다. 책이 내 앞에 기록되어 있고, 하늘의 돌판에는 날들의 구분이 정해져 있다. 이는 그들이 언약의 절기를 잊지 않고 이방인의 절기를 따라 그들의 잘못과 무지대로 행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36 만일 어떤 이들이 달을 관찰하여 계절을 바꾸고 해마다 열흘씩 일찍 돌아오는 것을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37 그러므로 그들이 질서를 어지럽히고 가증한 날을 증언의 날로, 부정한 날을 명절로 삼으며, 거룩한 날과 부정한 날을, 부정한 날과 거룩한 날을 혼동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이는 그들이 달과 안식일과 명절과 희년을 잘못 분별할 것이기 때문이다.
38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명하고 증언하노니, 네가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라. 네가 죽은 후에 네 자녀들이 그들을 혼란스럽게 하여 1 년을 삼백육십사일로만 지키지 않을 것이요, 이로 말미암아 초승달과 절기와 안식일과 명절을 잘못 지키며 온갖 피와 온갖 고기를 함께 먹을 것이니라.

제 7 장

1 그리고 그 희년 첫째 해 일곱째 주에 노아는 방주가 머물렀던 산, 곧 아라랏 산 중 하나인 루바르 산에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 나무는 넷째 해에 열매를 맺었고, 노아는 그 열매를 지켜서 그 해 일곱째 달에 거두었습니다.
2 그리고 그는 그것으로 포도주를 만들어 그릇에 담아 5 년째 되는 해, 곧 첫째 달 초하루까지 보관하였다.
3 그는 이 절기의 날을 즐거워하며 여호와께 번제물을 바쳤는데, 어린 소 한 마리와 숫양 한 마리, 일 년 된 양 일곱 마리, 그리고 염소 새끼 한 마리를 바쳐 자기와 자기 아들들의 죄를 속죄하였다.
4 그리고 그는 먼저 어린 염소를 준비하고, 그 피를 얼마간 자기가 만든 제단 위에 있는 고기 위에 얹고, 모든 기름을 번제물을 바치는 제단 위에 놓고, 소와 숫양과 양의 모든 살코기도 제단 위에 얹었다.
5 그리고 그는 그들의 모든 예물을 기름과 섞어 그 위에 올려놓고, 그 후에 제단 위에 미리 피워 놓은 불에 포도주를 뿌리고, 제단 위에 향을 피워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올라오게 하였습니다.
6 그러자 그는 기뻐하며 그 포도주를 마셨고, 그와 그의 자녀들도 즐거워하였다.
7 저녁이 되자 그는 자기 천막으로 들어가 술에 취해 누워 잠이 들었는데, 천막 안에서 이불도 덮지 않고 잤다.
8 함은 그의 아버지 노아가 벌거벗은 것을 보고 나가서 밖에 있는 그의 두 형제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9 셈은 옷을 가져다가 야벳과 함께 일어나 어깨에 걸치고 뒤로 물러가 아버지의 수치를 가리고 얼굴을 뒤로 돌렸다.
10 노아가 잠에서 깨어나 자기 둘째 아들이 자기에게 한 모든 일을 알고 아들을 저주하며 말했습니다. '가나안은 저주받을지어다! 그는 자기 형제들의 종이 될 것이다!'
11 그가 셈을 축복하며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는 복되도다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리라 하시니라
12 하나님께서 야벳을 번성하게 하시고 셈의 집에 거하시며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될 것이다.
13 함은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저주한 것을 알고, 아버지가 아들을 저주한 것에 대해 불쾌해하며, 아버지와 헤어져 아들들인 구스와 미스라임과 풋과 가나안과 함께 떠났다.
14 그리고 그는 자신을 위해 성읍을 건설하고 그 이름을 그의 아내 네엘라타마욱의 이름을 따서 지었다.
15 야벳은 그것을 보고 형을 시기하여 자기도 성읍을 세우고 그 이름을 자기 아내의 이름을 따서 아다타네세스라 불렀다.
16 셈은 그의 아버지 노아와 함께 살았으며, 아버지 곁에 있는 산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읍의 이름을 그의 아내 세데게텔레밥의 이름을 따서 지었다.
17 보라, 이 세 도시는 루바르 산 근처에 있다. 세데케텔레바브는 산의 동쪽에 위치하고, 나엘타마욱은 남쪽에, 아다탄에세스는 서쪽에 있다.
18 셈의 아들들은 엘람, 아수르, 아르박삿(이 아들은 홍수 후 이 년 만에 태어났다), 룻, 아람이다.
19 야벳의 아들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다이와 야반과 투발과 메섹과 티라스이니, 이들은 노아의 아들들이다.
20 그리고 제 28 희년(서기 1324-1372 년)에 노아는 그의 자손들에게 자신이 아는 모든 규례와 계명과 법도를 명하기 시작했으며, 그의 자손들에게 의를 지키고, 육체의 수치를 가리고, 창조주를 찬양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음행과 부정과 모든 불의로부터 영혼을 지키라고 권면했습니다.
21 이 땅에 홍수가 난 것은 이 세 가지 때문이니, 곧 파수꾼들이 자기들의 규례를 어기고 사람의 딸들을 따라 음행을 저지르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아내로 삼았으므로 부정의 시작이 되었느니라.
22 그들이 나피딤 자손을 낳았는데, 그들은 모두 서로 달랐고 서로 잡아먹었다. 거인들은 나필족을 죽였고, 나필족은 엘조족을 죽였고, 엘조족은 사람들을 죽였고, 사람들은 서로를 죽였다.
23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악을 행하고 많은 피를 흘리기 위해 자신을 팔았으므로 땅이 악으로 가득 찼더라.

24 그 후에 그들은 짐승과 새와 땅 위에 움직이고 걷는 모든 것에 대하여 죄를 지었으므로 땅에 많은 피가 흘렀고 사람의 모든 생각과 욕심은 허무와 악을 끊임없이 꾸며냈더라.
25 여호와께서 그들의 악한 행위와 그들이 땅 가운데 흘린 피 때문에 땅에서 모든 것을 멸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모든 것을 멸하신 것이라.
26 '그리고 나와 너희 아들들, 그리고 우리와 함께 방주에 들어간 모든 것이 남았는데, 보라, 내가 너희의 행위를 내 앞에서 보니 너희는 의롭게 행하지 아니하고 멸망의 길로 들어서서 서로 갈라지고 시기하며 화목하지 못하는구나. 내 아들들아, 너희는 각자 형제와 화목하지 못하도다.'
27 내가 보니, 악령들이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유혹하기 시작하였으니,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땅 위에 사람들의 피를 흘리고 땅에서 멸망당할까 두려워한다.
28 누구든지 사람의 피를 흘리거나 다른 생물의 피를 먹는 자는 땅에서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29 피를 먹거나 땅에서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는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며, 하늘 아래 그의 자손이나 후손도 남지 아니할 것이니, 그들은 스올로 가고 심판의 장소로 내려가며 깊은 어둠 속으로 들어가 잔혹한 죽음을 당할 것이라.
30 너희 몸에는 어떤 피도 묻지 않게 하라. 너희가 짐승이나 가축이나 땅 위에 날아다니는 모든 것을 죽인 날에 피를 흘리지 않게 하라. 땅 위에 흘린 피를 덮어 너희 영혼에 유익한 일을 하라.
31 너희는 피와 함께 먹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너희 앞에서 아무도 피를 먹지 못하게 하라. 피를 가리라. 이는 내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라는 명령을 받았음이니라.
32 그리고 영혼이 육신과 함께 먹히지 않게 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의 생명인 피가 땅에서 피를 흘리는 어떤 육신의 손에서도 요구되지 않게 하십시오.
33 땅은 그 위에 흘려진 피로 말미암아 깨끗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그 피를 흘리신 분의 피를 통해서만 땅이 모든 세대에 걸쳐 정결하게 될 것입니다.
34 이제 내 자녀들아, 잘 들으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여 온 땅 위에 의로 심겨지고, 홍수에서 나를 구원하신 나의 하나님 앞에 너희의 영광이 높여지게 하라.
35 보라, 너희는 가서 너희를 위하여 성읍들을 건설하고 그 안에 땅 위에 있는 모든 식물과 열매 맺는 나무들을 심을 것이다.
36 삼 년 동안은 먹는 모든 것의 열매를 거두지 말라. 그리고 넷째 해에는 그 열매를 거룩하게 여겨 하늘과 땅과 만물을 창조하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 기쁘게 받으실 만한 첫 열매로 바치라. 그들은 포도주와 기름의 첫 열매를 풍성히 주님의 제단에 첫 열매로 바치라. 주님께서 그것을 받으시리라. 그리고 남은 것은 주님의 집 종들이 그것을 받으시는 제단 앞에서 먹게 하라.
37 그리고 다섯째 해에는 의롭고 정직하게 풀어주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의롭게 될 것이며, 여러분이 심는 모든 것이 형통할 것입니다.
38 이는 너희 아버지의 아버지인 에녹이 그의 아들 므두셀라에게 이와 같이 명령하였고, 므두셀라는 그의 아들 라멕에게 명령하였고, 라멕은 그의 조상들이 명령한 모든 것을 내게 명령하였기 때문이다.
39 그리고 나도 너희 아들들에게 명령을 내리겠다. 에녹이 첫 번째 희년 때 그의 아들에게 명령한 것과 같이 말이다. 그는 살아 있는 동안, 즉 그의 세대에서 일곱 번째 사람이었을 때, 그의 아들과 그의 손자들에게 죽을 때까지 명령하고 증언했다.

제 8 장

1 제 29 희년 첫째 주[1373 년] 초에 아르팍삿은 수산의 딸이자 엘람의 딸인 라수에야라는 아내를 맞이하였고, 이 주[1375 년]에 아들을 낳았으며, 그의 이름을 가이남이라 불렀다.
2 그 아들이 자라자 아버지는 그에게 글쓰기를 가르쳤고, 그는 스스로 도시를 차지할 곳을 찾아 나섰다.
3 그리고 그는 이전 세대가 바위에 새겨 놓은 글을 발견하고, 그 글을 읽고 옮겨 적었는데,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지었다. 그 글에는 파수꾼들이 해와 달과 별의 징조를 보고 하늘의 모든 징조를 관찰하는 방법에 대한 가르침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4 그리고 그는 그것을 기록해 두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는 그가 노아에게 그 일에 대해 말하면 노아가 그에게 노할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5 그리고 삼십 희년(서기 1429 년) 둘째 주, 그 희년 첫째 해에 그는 멜가라는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는데, 그녀는 야벳의 아들 마다이의 딸이었다. 그리고 사십 년째 해(서기 1432 년)에 그는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셀라라 불렀다. 이는 그가 “참으로 나는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6 [그리고 넷째 해에 그가 태어났고], 셀라는 자라서 아내를 맞이했는데, 그녀의 이름은 무악이었고, 그의 아버지의 형제인 케셋의 딸이었다. 이는 삼십일 희년의 다섯째 주, 그 첫째 해[서기 1499 년]에 이루어졌다.
7 그리고 그녀는 그 후 5 년째 되는 해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의 이름을 에베르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32 번째 희년, 그 3 년째 되는 해 일곱 번째 주에 네브롯의 딸 아즈라드를 아내로 맞이하였습니다. [1564]
8 그리고 그 여섯째 해에 그녀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그의 이름을 펠렉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태어난 때에 노아의 자손들이 땅을 나누어 갖기 시작했기 때문이라 그가 그의 이름을 펠렉이라 불렀음이라.
9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은밀히 나누어 노아에게 알려주었다.
10 그리고 서른세 번째 희년 초에 그들이 셈과 함과 야벳에게 각자의 유산대로 땅을 삼등분하여 주었는데, 이는 우리 중 한 사람이 그들과 함께 있었던 첫째 해 첫째 주에 일어난 일이었다.
11 그가 그의 아들들을 부르니 그들과 그들의 자녀들이 그에게 가까이 나아왔다. 그가 땅을 제비뽑기로 나누어 그의 세 아들이 차지할 땅을 정하였다. 그들이 손을 내밀어 그들의 아버지 노아의 가슴에서 글을 취하였다.

12 그리고 셈의 몫으로 기록된 땅의 중앙 부분이 나왔는데, 그것은 라파 산맥의 중앙에서 티나 강 어귀에서부터 시작하여, 그 강 한가운데를 지나 서쪽으로 뻗어 나가, 깊은 심연의 물에까지 이르는데, 이 강은 거기에서 흘러나와 메앗 바다로 흘러 들어가고, 이 강은 다시 큰 바다로 흘러간다. 북쪽의 모든 것은 야벳의 것이요, 남쪽의 모든 것은 셈의 것이다.
13 그리고 그것은 카라소에 이르기까지 뻗어 있습니다. 이곳은 남쪽을 향하는 혀의 중심부입니다.
14 그리고 그의 몫은 큰 바다를 따라 뻗어 있으며, 남쪽을 향한 혀의 서쪽까지 곧게 뻗어 있습니다. 이는 이 바다를 이집트 바다의 혀라고 부르기 때문입니다.
15 그리고 여기서 남쪽으로 방향을 틀어 큰 바다 어귀의 해안가로 향하고, 서쪽으로는 아프라까지 뻗어 있으며, 기혼 강물에 이르고, 기혼 강물 남쪽으로는 이 강둑까지 뻗어 있습니다.
16 그리고 그것은 동쪽으로 뻗어 나가 에덴 동산 남쪽에 이르며, 에덴 땅 전체와 동쪽 전체의 동쪽에서 동쪽으로 방향을 틀어 라파 산 동쪽에 이르고 티나 강 어귀의 둑으로 내려갑니다.
17 이 땅은 제비뽑기를 통해 셈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아갔으니, 그들이 대대로 영원히 소유하게 될 것이다.
18 노아는 셈과 그의 아들들을 위해 이 몫이 주어졌음을 기뻐하며, 자기가 입으로 예언했던 모든 것을 기억하였다. 그가 말하기를 '셈의 하나님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라. 여호와께서 셈의 집에 거하시게 하소서.' 하였더라.
19 그리고 그는 에덴 동산이 지성소요 여호와의 거처요, 시내 산은 광야의 중심이요, 시온 산은 땅의 중심이니 이 셋은 서로 마주 보게 거룩한 곳으로 창조되었음을 아셨다.
20 그리고 그는 주님의 말씀을 자기 입에 넣어 주신 신들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였다.
21 그리고 그는 셈과 그의 자손에게 대대로 영원토록 복된 몫과 축복이 임했음을 알았습니다. 곧 에덴 온 땅과 홍해 온 땅과 동방과 인도 온 땅과 홍해와 그 산들과 바산 온 땅과 레바논 온 땅과 카프투르 섬과 사니르와 아마나의 온 산과 북쪽의 앗수르 산과 엘람과 앗수르와 바벨과 수산과 마에다이의 온 땅과 아라랏 산과 앗수르 산 너머 북쪽의 바다 건너편 지역, 곧 복되고 넓은 땅이며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매우 좋은 땅이었습니다.
22 그리고 함의 땅의 두 번째 부분은 기혼 너머 남쪽, 동산 오른쪽에 있으며, 남쪽으로 뻗어 모든 불의 산에 이르고, 서쪽으로 아텔 바다에 이르고, 서쪽으로 마욱 바다에까지 이르니, 그 바다는 멸망하지 않은 모든 것이 내려가는 곳이다.
23 그리고 그 선은 북쪽으로 가디르 경계까지 나아가고, 바닷가에 이르러 큰 바다에 이르러 기혼 강에 가까이 가서 기혼 강을 따라 에덴 동산 오른쪽까지 이른다.
24 이 땅은 함이 자신과 그의 자손 대대로 영원히 차지할 몫으로 주어진 땅이다.
25 야벳 지파의 삼분의 일은 티나 강 북쪽, 그 물줄기가 흘러나오는 곳 바로 너머에서 시작되었고, 북동쪽으로는 곡의 온 지역과 그 동쪽의 모든 땅까지 뻗어 있었습니다.
26 그리고 그것은 북쪽으로 뻗어 나가 북쪽으로 켈트 산맥까지 이르고 마욱 바다까지 이르며 가디르 동쪽으로 바닷물 지역까지 뻗어 나간다.
27 그리고 그 강은 파라 서쪽에 이르러 아페라그 쪽으로 되돌아가며 동쪽으로 메아트 바다의 물가까지 뻗어 있습니다.
28 그리고 그 강은 북동쪽으로 티나 강 유역까지 뻗어 나가다가 라파 산 쪽 강줄기의 경계에 이르러 북쪽으로 방향을 바꿉니다.
29 이것은 야벳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진 유산으로서, 그들이 대대로 소유하게 될 땅이다. 그 땅은 다섯 개의 큰 섬과 북쪽의 큰 땅이다.
30 그러나 함의 땅은 춥고, 셈의 땅은 덥고, 셈의 땅은 춥지도 덥지도 않고, 추위와 더위가 섞여 있다.

제 9 장

1 함이 그의 아들들에게 나누어 주니, 첫 몫은 동쪽으로 구스에게, 서쪽으로는 미스라임에게, 그 서쪽으로는 풋에게, 그리고 그 서쪽 바닷가로는 가나안에게 주었다.
2 셈도 그의 아들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었는데, 첫 번째 몫은 함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아갔으니, 티그리스 강 동쪽에서 강이 동쪽에 닿는 곳까지, 인도의 모든 땅, 홍해 연안, 데단 강 유역, 메브리 산과 엘라 산, 수산 땅 전체, 파르낙 산 쪽에서 홍해와 티나 강까지의 모든 땅이었다.
3 그리고 앗수르 지방에서는 두 번째 몫이 나왔는데, 그것은 앗수르와 니네베와 시날의 모든 땅과 인도 국경까지이며, 강을 따라 올라가고 강변을 따라 뻗어 있습니다.
4 아르팍삿에게는 세 번째 몫이 주어졌는데, 그것은 유프라테스 강 동쪽 홍해에 접한 갈대아 지역의 모든 땅과 이집트를 향해 있는 바닷가 근처의 사막의 모든 물가, 그리고 레바논과 사니르와 아마나의 모든 땅이며, 그 땅은 유프라테스 강 경계까지 이르는 땅이다.
5 아람에게는 넷째 몫이 나왔으니, 곧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의 메소포타미아 땅 전체, 곧 갈대아 북쪽에서 앗수르 산맥과 아라라 땅의 경계까지 이르는 땅이었다.
6 그리하여 루드에게는 다섯 번째 몫인 앗수르 산맥과 그에 속한 모든 땅이 나왔는데, 그 땅은 큰 바다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그의 형제 앗수르의 동쪽까지 이르렀다.
7 그리고 야벳은 자기가 상속받은 땅을 아들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8 그리고 고멜을 위하여 첫 번째 땅은 북쪽에서 동쪽으로 티나 강까지 나왔고, 북쪽에서는 마곡을 위하여 북쪽 내륙의 모든 땅이 메앗 바다까지 나왔습니다.
9 그리고 마다이는 그의 두 형제의 서쪽 땅에서부터 섬들과 그 해안까지 이르는 땅을 차지하도록 그의 몫으로 나왔습니다.
10 그리고 야완에게는 모든 섬과 루드 경계 쪽으로 향하는 섬들의 4 분의 1 이 주어졌습니다.

11 그리고 투발의 경우에는 혀의 가운데 다섯 번째 부분이 나왔는데, 이는 루드의 부분 경계에 가까워져 두 번째 혀에 이르고, 두 번째 혀 너머 세 번째 혀에 이르는 영역입니다.
12 메섹의 몫은 여섯 번째 몫, 곧 셋째 혀 너머부터 가디르 동쪽까지 이르는 모든 지역이었습니다.
13 그리고 티라스의 몫으로는 일곱 번째 몫이 나왔는데, 바다 한가운데 있는 네 개의 큰 섬이 함의 몫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카마투리 섬들은 제비뽑기를 통해 아르팍삿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주어졌습니다.]
14 그리하여 노아의 아들들은 아버지 노아 앞에서 자기 아들에게 몫을 나누어 주었고, 노아는 그들을 모두 맹세로 결박하며 제비뽑기에서 자기에게 돌아오지 않은 몫을 차지하려는 자는 누구든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선포하였다.
15 그들이 다 이르되 자기들과 자기 자손 대대로 영원히 그렇게 되리라 하더라. 심판 날에 주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부정한 악행과 죄악으로 말미암아 칼과 불로 심판하시리니, 그들이 온 땅을 허물과 더러움과 음행과 죄로 가득 채웠음이라.

제 10 장

1 그리고 이 희년의 셋째 주에 더러운 귀신들이 노아의 자손들을 미혹하여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멸망시키기 시작했습니다.
2 노아의 아들들이 그들의 아버지 노아에게 와서 그의 손자들을 미혹하고 눈을 멀게 하고 죽이는 악령들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3 그가 주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이르되, '모든 육체의 영의 하나님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저와 제 아들들을 홍수에서 구원하셨으며 멸망의 아들들처럼 저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셨나이다. 주의 은혜가 저에게 크시며 주의 자비가 제 영혼에 크사오니, 주의 은혜가 제 아들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악한 영들이 그들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그들이 땅에서 멸망하지 않게 하소서.'
4 그러나 주께서 나와 내 아들들을 축복하시어 우리가 번성하고 번성하여 땅에 만천에 이르게 하옵소서.
5 주님께서는 주의 파수꾼들, 곧 이 영들의 아버지들이 내 시대에 어떻게 행했는지 아십니다. 살아 있는 이 영들을 가두어 심판의 자리에 굳게 붙잡아 두시고, 주의 종 나의 하나님인 내 아들들에게 파멸을 가져오지 못하게 하소서. 이들은 악하며 멸망시키려고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6 그리고 그들이 산 자들의 영을 다스리지 못하게 하소서. 오직 주님만이 그들을 다스리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부터 영원토록 그들이 의인들의 자녀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하소서.
7 그리고 우리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사람을 묶으라고 명하셨습니다.
8 그러자 영들의 우두머리인 마스테마가 와서 말했습니다. '주님, 창조주시여, 그들 중 몇 명을 제 앞에 남겨 두시고, 제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제가 말하는 모든 것을 행하게 하소서. 만일 그들 중 몇 명이 제게 남지 않는다면, 저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제 뜻을 행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제 심판 전에 타락하고 미혹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아들들의 악함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9 그리고 그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 중 십분의 일은 내 앞에 남게 하고, 아홉 부분은 심판의 장소로 내려가게 하라.'
10 그리고 그분은 우리 중 한 사람에게 노아에게 그들의 모든 의술을 가르치라고 명하셨습니다. 이는 그들이 정직하게 행하지도 않고, 공의롭게 애쓰지도 않을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11 우리는 그분의 모든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곧 악한 자들은 모두 심판할 곳에 결박하고, 그 십일조는 사탄 앞에서 땅에서 복종하게 하려고 남겨 두었습니다.
12 그리고 우리는 노아에게 그들의 질병에 대한 모든 치료법과 그들이 유혹에 빠지는 이유를 설명하고, 땅에서 나는 약초로 그들을 어떻게 고칠 수 있는지 알려주었습니다.
13 노아는 우리가 가르쳐 준 모든 약에 관한 모든 것을 책에 기록했습니다. 그리하여 악령들이 노아의 아들들을 해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14 그리고 그는 자신이 쓴 모든 편지를 맏아들 셈에게 주었다. 이는 그가 셈을 모든 아들들보다 훨씬 더 사랑했기 때문이다.
15 노아는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들었고, 아라랏 땅의 루바르 산에 묻혔다.
16 그는 950 년을 살았고, 19 번의 희년과 2 주 5 년을 살았습니다. [1659 년 AM]
17 그리고 그는 지상 생활에서 에녹을 제외한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뛰어났는데, 이는 그가 의로 말미암아 완전했기 때문입니다. 에녹의 직분은 세상 모든 세대에 증거가 되도록 세워졌으므로, 그는 심판 날까지 대대로 모든 행적을 기록해야 했습니다.
18 그리고 서른세 번째 희년 첫째 주에 펠렉은 시날의 딸 롬나를 아내로 맞이하여 이 주 넷째 해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의 이름을 레우라 지었다. 이는 그가 이렇게 말했기 때문이다. '보라, 사람의 자녀들이 시날 땅에 성읍과 망대를 세우려는 악한 목적으로 악하게 되었도다.'
19 그들은 아라랏 땅에서 동쪽으로 시날로 떠났으니, 이는 그들이 그 시대에 성읍과 망대를 건축하면서 '자, 우리가 이 길로 하늘에 올라가자'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20 그들이 건축을 시작하였더니 넷째 주에 불로 벽돌을 만들었고, 그 벽돌은 돌 대신 쓰였으며, 벽돌을 붙이는 데 사용한 진흙은 바다와 시날 땅의 샘에서 나오는 역청이었다.
21 그들이 그것을 건축하였으니, 건축 기간은 사십삼 년(서기 1645 년~1688 년)이었으며, 너비는 벽돌 203 개였고, 벽돌 하나의 높이는 벽돌 하나의 3 분의 1 이었으며, 높이는 5433 규빗 2 야자나무 길이였고, 한쪽 벽의 길이는 13 스타디온(다른 쪽 벽의 길이는 30 스타디온)이었다.

22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그들은 한 백성인데, 이제 이런 일을 시작했으니, 그들에게서 막을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혼란스럽게 하여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고, 여러 성읍과 나라로 흩어지게 하자. 그러면 심판 날까지 그들에게 한 가지 목적이 더 이상 없을 것이다."
23 그리고 주님께서 내려오시니 우리도 그분과 함께 내려가서 사람들이 세운 성읍과 탑을 보았습니다.
24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란스럽게 하셔서 그들은 더 이상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되었고, 그 후로 그들은 성읍과 망대를 짓는 것을 그만두었다.
25 그러므로 시날 온 땅은 바벨이라 불리게 되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사람의 모든 언어를 혼란하게 하셨고, 그들이 거기서 각기 언어와 민족에 따라 여러 성읍으로 흩어졌기 때문이라.
26 여호와께서 강한 바람을 보내어 그 망대를 땅 위에 무너뜨리셨으니, 보라, 그 망대는 아수르와 바빌론 사이 시날 땅에 있었더라. 사람들이 그 이름을 '무너짐'이라 불렀더라.
27 첫째 해 넷째 주, 곧 서른네 번째 희년 초에 그들은 시날 땅에서 흩어졌습니다.
28 함과 그의 아들들은 그가 남쪽 땅에서 자기 몫으로 얻게 될 땅으로 들어가 정착하였다.
29 가나안은 이집트 강까지 이르는 레바논 땅을 보고 그 땅이 매우 좋다고 여겨서, 서쪽 바다에 있는 자기 기업의 땅으로 가지 않고, 요단 강 경계와 바다 경계에서 동쪽과 서쪽으로 뻗어 있는 레바논 땅에 거주하였다.
30 그의 아버지 함과 그의 형제 구스와 미스라임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네 땅도 아니고 우리에게 제비뽑기로 돌아가지도 않은 땅에 정착하였으니 그렇게 하지 말라. 만일 그렇게 하면 너와 네 아들들이 그 땅에서 반역죄로 말미암아 멸망하고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네가 반역죄로 그 땅에 정착하였으니 네 자손들도 반역죄로 멸망할 것이며 너는 영원히 뿌리 뽑힐 것이다.
31 셈의 집에 거하지 말라. 그 집은 셈과 그의 아들들에게 제비뽑기로 주어진 것이니라.
32 너는 저주받았고, 노아의 모든 자손보다 더 큰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는 우리가 거룩한 심판자 앞에서, 그리고 우리 아버지 노아 앞에서 맹세로 맺은 저주이다.
33 그러나 그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하맛에서부터 이집트 입구까지 레바논 땅에 그의 아들들과 함께 오늘날까지 거주하였다.
34 그러므로 그 땅의 이름이 가나안이라 불리느니라.
35 야벳과 그의 아들들은 바닷가로 가서 자기들에게 속한 땅에 거주하였다. 마다이는 바닷가 땅을 보고 마음에 들지 않아 함과 아수르와 그의 아내의 오빠 아르박삿에게서 땅을 구하여 메디아 땅, 곧 그의 아내의 오빠 곁에서 오늘날까지 거주하였다.
36 그리고 그는 자기 거처와 아들들의 거처를 그들의 아버지 마다이의 이름을 따라 메디아라 불렀다.

제 11 장

1 그리고 제 35 희년 제 3 주간 제 1 년[서기 1681 년]에 레우는 오라라는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는데, 그녀는 케셋의 아들 우르의 딸이었고, 그녀는 레우에게 아들을 낳았으며, 레우는 그 아들의 이름을 세로라라고 지었다. 이는 이 희년 제 7 주간[서기 1687 년]에 일어난 일이다.
2 노아의 아들들은 서로 싸우기 시작하여 포로를 잡고 서로를 죽이고 사람의 피를 땅에 흘리며 피를 먹고 견고한 성읍과 성벽과 망대를 쌓았으며, 각 개인은 나라보다 자신을 높이고 왕국의 시초를 세우고 백성과 백성, 나라와 나라, 성읍과 성읍을 서로 싸우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악을 행하고 무기를 얻고 아들들에게 전쟁을 가르치며 성읍들을 점령하고 남녀 노예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3 케셋의 아들 우르는 갈대아 사람들의 아라 성을 건설하고 자기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그 이름을 지었다. 그들은 부어 만든 우상을 숭배하고, 새긴 우상과 부정한 모조품을 만들기 시작했다. 악한 영들이 그들을 부추겨 죄악과 부정한 행위를 저지르게 했다.
4 그리고 마스테마 왕자는 이 모든 일을 행하려고 애썼으며, 그의 손에 맡겨진 다른 영들을 보내어 온갖 악행과 죄악을 저지르고, 땅을 타락시키고 파괴하며, 땅에 피를 흘리게 하였습니다.
5 그러므로 그는 세로흐의 이름을 세룩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들이 온갖 죄악과 범죄를 저지르기 자로 돌아섰음이라.
6 그리고 그는 자라서 갈대아 우르에 거주하였으니, 그의 아내의 어머니의 아버지 근처였더라. 그는 우상을 숭배하였고, 제 36 희년 제 5 주간 제 1 년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그녀의 이름은 멜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의 딸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의 딸이라.
7 그리고 그녀는 이 주간의 첫해에 나홀을 낳았습니다. 그는 자라서 갈대아 우르에 살았고, 그의 아버지는 그에게 갈대아의 점술과 예언을 가르쳐 하늘의 징조에 따라 점을 치도록 했습니다.
8 그리고 삼십일째 희년 여섯째 주, 그 첫째 해에 [서기 1800 년] 그는 아내를 맞이했는데, 그녀의 이름은 갈대아 사람 네스탁의 딸 이아스카였다.
9 그리고 그녀는 이 주의 일곱째 해에 그에게 테라를 낳았습니다. [오전 18 시 6 분]
10 마스테마 왕자는 땅을 황폐하게 하고 사람들의 수고를 빼앗으려고 까마귀와 새들을 보내 땅에 뿌려진 씨앗을 먹어치우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씨앗을 갈아엎기도 전에 까마귀들이 땅 표면에서 씨앗을 쪼아 먹었습니다.
11 그러므로 까마귀와 새들이 그들의 씨를 먹어 치워 그들을 궁핍하게 만들었으므로 그가 그들의 이름을 데라라 하였느니라.
12 그러자 새들 때문에 세월이 흐르면서 농사가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들이 나무의 모든 열매를 다 먹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 시대에 온 세상의 열매를 조금이라도 남겨두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야 했습니다.
13 그리고 이 희년 39 년째 되는 해 첫째 주 둘째 주에 데라는 아내를 맞이했는데, 그녀의 이름은 아브람의 딸

이며 그의 아버지의 누이의 딸인 에드나였다. 그리고 이 주 7 년째 되는 해에 그녀가 아들을 낳았는데, 데라는 그의 어머니의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그의 이름을 아브람이라 불렀다.
14. 그의 딸이 아들을 잉태하기 전에 그가 죽었기 때문이다.
15 그리고 그 아이는 세상의 잘못을 깨닫기 시작했는데, 모든 사람이 새긴 우상과 부정한 것을 따라 길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그가 두 주(1890 년) 되었을 때, 그는 아버지와 함께 우상을 숭배하지 않으려고 아버지에게서 독립했습니다.
16 그리고 그는 만물의 창조주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께서 자신을 사람들의 죄악에서 구원해 주시고, 자신의 삶이 더러움과 추악함에 빠지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17 씨 뿌릴 때가 되어 그들이 모두 까마귀로부터 씨를 지키려고 함께 나갔는데, 아브람도 그들과 함께 나갔고 그의 나이는 열네 살이었다.
18 그때 까마귀 떼가 씨를 먹으려고 몰려왔습니다. 아브람은 까마귀들이 땅에 내려앉기 전에 달려가서, 씨를 먹으려고 땅에 내려앉기 전에 소리쳐 말했습니다. "내려가지 마라! 너희가 온 곳으로 돌아가라!" 그러자 까마귀들은 돌아갔습니다.
19 그리하여 그날 까마귀 떼를 일흔 번이나 돌이키게 하셨으니, 아브람이 있던 온 땅의 모든 까마귀 중에서 한 마리도 그곳에 앉지 아니하였더라.
20 온 땅에 그와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가 외치는 것을 보았더니 모든 까마귀가 돌아갔고 그의 이름이 갈대아 온 땅에 크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21 그 해에 씨를 뿌리려는 사람들이 모두 그에게로 왔고, 그는 씨 뿌리는 시기가 끝날 때까지 그들과 함께 갔다. 그들은 자기 땅에 씨를 뿌렸고, 그 해에 충분한 곡식을 거두어 집으로 가져와 먹고 배불렀다.
22 그리고 다섯째 주 첫째 해에 아브람은 소를 위한 도구를 만드는 사람들, 곧 나무 세공인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쟁기날을 마주 보게 땅 위에 그릇을 만들어 그 위에 씨를 담았습니다. 그러자 씨가 그 그릇에서 떨어져 쟁기날 위에 떨어져 땅속에 묻히게 되었고, 그들은 더 이상 까마귀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23 이와 같이 그들은 쟁기날 위에 땅 위에 그릇들을 만들어 아브람이 명령한 대로 모든 땅에 씨를 뿌리고 경작하였더니 더 이상 새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

제 12 장

1 그리고 그 제 7 년 여섯째 주에 아브람이 그의 아버지 데라에게 이르되 아버지!
2 그러자 그가 이르되, '보라,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하고 이르되,
'네가 숭배하는 그 우상들로부터 우리가 무슨 도움과 유익을 얻겠느냐?'
그리고 너는 그 앞에 절을 하느냐?
3 그들에게는 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은 벙어리 같은 형상일 뿐이며, 마음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숭배하지 마십시오.
4. 하늘의 하나님을 경배하십시오.
누가 비와 이슬을 땅 위에 내리게 하는가?
그리고 땅 위의 모든 일을 행하시며,
그리고 그분은 자신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생명은 그분의 얼굴 앞에서 비롯됩니다.
5 어찌하여 너희는 영이 없는 것들을 숭배하느냐?
그것들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그것들을 어깨에 짊어지고 있다.
그들에게서 너희는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그런 실수를 저지르는 사람들에게는 큰 수치심의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숭배하는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숭배하지 마십시오.
6 그러자 그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나도 아노라, 아들아, 그러나 나를 자기들 앞에서 섬기게 한 백성을 어찌하여 다그치겠느냐?
7 만일 내가 그들에게 진실을 말하면 그들은 나를 죽일 것이다. 그들의 영혼은 그들에게 매달려 그들을 숭배하고 존경하기 때문이다.
8 "내 아들아, 조용히 있어라.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너를 죽일 것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두 형에게 하시니, 형들은 그에게 화를 냈지만 예수께서는 침묵하셨다.
9 그리고 40 주년 희년 둘째 주, 그 7 년째에 아브람은 사라라는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였으니, 그녀는 그의 아버지의 딸이요 그의 아내가 되었더라.
10 그리고 그의 형 하란은 셋째 주 셋째 해에 아내를 맞이하여 일곱째 해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롯이라 불렀다.
11 그리고 그의 형 나홀은 아내를 맞이했다.
12 아브람의 생애 육십 년째 되는 해, 곧 그 해 넷째 주에 아브람이 밤에 일어나 우상들의 집을 불태우고 그 집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불태웠으나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했다.
13 그들이 밤에 일어나 불길 속에서 자기들의 신들을 구하려고 애썼다.
14 하란이 그들을 구하려고 서둘러 갔으나 불길이 그를 덮쳐 타버렸고, 그는 갈대아 우르에서 그의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죽었으며, 그들은 그를 갈대아 우르에 장사지냈다.
15 데라는 그의 아들들과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나 레바논 땅과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였더라. 그는 하란 땅에 거주하였고, 아브람은 그의 아버지 데라와 함께 하란에서 두 주 동안 거주하였다.
16 그리고 그 해 5 년째 되는 여섯째 주에 아브람은 일곱째 달 초하루 밤을 새워 저녁부터 아침까지 별들을 관찰하여 그 해의 강우량이 어떠할지 알아보려고 하였고, 그가 앉아서 관찰할 때에는 혼자였다.

17 그때 그의 마음에 한 말씀이 떠올라 그가 말했습니
다. "별들의 모든 징조와 달과 해의 징조는 모두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내가 어찌 그것들을 찾아보려 합니까?"
18 그분께서 원하시면 아침저녁으로 비를 내리게 하십
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원하시면, 그것을 거두어 가십니다.
모든 것이 그의 손 안에 있다.'
19 그날 밤 예수께서 기도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오직 당신만이 나
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너와 너의 통치권을 택하였노라.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모든 것들도 그러합니다.
20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을 지배하는 악한 영들의 손에
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고 그들이 나를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지 않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주님, 저와 제 자손을 영원히 굳건히 세워 주소서
우리가 이제부터 영원토록 길을 잃지 않도록 하라.
21 그가 이르되 내가 내게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갈대아
사람들의 우르로 돌아가야 하겠나, 아니면 여기 여기에
머물러야 하겠나이다. 주께서 정하신 길이 주의 종의
손에 형통하게 하사 그 길을 이루게 하시고 내가 마음
의 거짓 가운데서 행하지 않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이
시여.
22 그가 말과 기도를 마치자, 보십시오, 주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 그에게 임했습니다. '너는 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 내
가 너를 크고 번성한 민족으로 만들겠다.'
23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내가 네 이름을 크게 하리라.
너는 땅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주님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이 복을 받으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들을 내가 축복하리라.
너를 저주하는 자들을 저주하라.
24 내가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와 네 모든 자손의 하나
님이 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부터 땅의 모든 세
대에 걸쳐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라.
25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입과 귀
를 열어 그가 듣고 그의 입으로, 곧 계시된 언어로 말하
게 하라.' 이는 바벨탑이 무너진 날부터 모든 사람의 입
에서 그 언어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26 내가 그의 입과 귀와 입술을 열고 창조의 언어인 히
브리어로 그와 말하기 시작했다.
27 그리고 그는 자기 조상들의 책들을 가져다가 히브리
어로 기록된 것을 옮겨 적고, 그때부터 그것들을 연구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알려주었고, 그는 우기 여섯 달 동안 그것들을 연구했
습니다.
28 그리고 여섯째 주의 일곱째 해에 그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자기가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서 보고
돌아오겠다고 알리더라.
29 그의 아버지 데라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
였더라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길을 곧게 하시기를 바랍
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하시고 모든 악으로부터 너를 보
호하시기를 원하노라.
주님, 당신을 보는 자들 앞에서 은혜와 자비와 호의를
베풀어 주소서.
또한 그 어떤 인간 자녀도 너를 해칠 힘을 갖지 못하게
하소서.
평안히 가십시오.
30 만일 네가 거주하기에 아름다운 땅을 보거든 일어나
나를 그곳으로 데려가고 네 형제 하란의 아들 롯도 네
아들처럼 데려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
하노라.
31 그리고 네 형 나홀은 네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나
와 함께 있으라. 우리 모두 너와 함께 가겠다.'

제 13 장

1 아브람은 하란을 떠나 그의 아내 사라와 그의 형 하란
의 아들 롯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그는 앗
수르에 이르러 세겜으로 가서 높은 상수리나무 곁에 거
주했습니다.
2 그가 보니, 하맛 어귀에서부터 높은 상수리나무에 이
르기까지 땅이 매우 아름다웠다.
3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네 자
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4 그리고 그는 거기에 제단을 쌓고,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님께 번제물을 바쳤다.
5 그리고 그는 거기서 옮겨 서쪽으로는 베델, 동쪽으로
는 아이 산으로 가서 거기에 장막을 쳤다.
6 그가 보니 그 땅은 매우 넓고 좋았으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와 석류나무와 떡갈나무와 장수나무와 담
쟁이나무와 기름나무와 백향목과 삼나무와 대추야자
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자라 있었고, 산에는 물이 있
었다.
7 그리고 그는 갈대아 우르에서 자기를 인도해 내어 이
땅으로 인도해 내신 주님을 찬양하였다.
8 그리고 그 해 첫째 해 일곱째 주 첫째 달 초하루에 그
가 이 산에 제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불러 '영원하신 하
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하고 불렀더
라.
9 그리고 그는 여호와께서 자기와 함께하시고 평생토
록 자기를 버리지 않으시기를 바라며 제단 위에 번제물
을 바쳤다.
10 그리고 그는 그곳을 떠나 남쪽으로 향하여 헤브론에
이르렀는데, 헤브론은 그때에 건설되었다. 그는 거기서
이 년 동안 거주하다가 남쪽 땅인 벨롯으로 갔는데,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11 아브람은 그 주의 삼 년에 이집트로 들어가 아내를
잃기 전까지 이집트에서 5 년을 살았습니다.
12 이집트의 타나이스는 헤브론이 세워진 지 7 년 후에
건설되었습니다.

13 바로가 아브람의 아내 사라를 사로잡았을 때, 여호와께서 아브람의 아내 사라 때문에 바로와 그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14 아브람은 양과 소와 나귀와 말과 낙타와 남종과 여종과 은과 금으로 매우 부유했습니다. 그의 조카 롯도 부유했습니다.
15 바로는 아브람의 아내 사라를 돌려보내고 그를 이집트 땅에서 내보냈다. 아브람은 처음에 장막을 쳤던 곳, 곧 제단이 있는 곳으로 돌아갔다. 그곳은 동쪽에 아이가 있고 서쪽에 벧엘이 있는 곳이었다. 그는 자기를 평화롭게 돌아오게 해 주신 주 하나님을 찬양했다.
16 그리고 희년 41 년째 되는 해 첫째 주간 3 년째에 그가 이곳으로 돌아와서 번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여, 주는 영원무궁토록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하였더라.
17 그리고 이 주간 넷째 해에 롯은 그를 떠나 소돔에 거주하였으니 소돔 사람들은 심히 죄인이었더라.
18 그리고 그는 자기 조카가 자기 곁을 떠난 것을 마음에 아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자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19 롯이 사로잡혀 간 그 해에, 롯이 아브람과 헤어진 후, 곧 이 주간의 넷째 해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살고 있는 곳에서 눈을 들어 북쪽과 남쪽, 서쪽과 동쪽을 둘러보아라.'
20 네가 보는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주겠다. 네 자손을 바닷모래처럼 많게 하겠다. 사람이 땅의 티끌을 셀 수 있을지라도 네 자손은 셀 수 없을 것이다.
21 일어나 그 땅을 종횡으로 두루 돌아보고 다 살펴보아라. 내가 그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리하여 아브람은 헤브론으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였다.
22 그 해에 엘람 왕 케돌라오멜과 시날 왕 암라펠과 셀라살 왕 아리오크와 여러 나라의 왕 테르갈이 와서 고모라 왕을 죽이고 소돔 왕은 도망쳤으며 많은 사람이 소금 바다 근처 싯딤 골짜기에서 상처를 입고 죽었다.
23 그들이 소돔과 아담과 제보임을 사로잡았고, 아브람의 형의 아들 롯과 그의 모든 소유물도 사로잡아 단으로 갔다.
24 그리고 탈출했던 한 사람이 와서 아브람에게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다고 말하자 아브람은 그의 집안 종들에게 무기를 주었다...
25 ... 아브람과 그의 자손을 위하여 첫 소산의 십일조를 여호와께 바치도록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영원한 규례로 정하사 그 앞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어 영원히 소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26 이 율법에는 날짜 제한이 없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세대에 걸쳐 영원히 모든 것, 곧 씨와 포도주와 기름과 소와 양의 십일조를 주님께 바치도록 정하셨음이라.
27 그리고 그분은 그것을 그분의 제사장들에게 주셔서 그분 앞에서 기쁨으로 먹고 마시게 하셨습니다.
28 그러자 소돔 왕이 아브람에게 나아와 그 앞에 절하며 말했습니다. '주 아브람이여, 당신이 구출하신 영혼들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러나 전리품은 당신의 것이 되십시오.'
29 아브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맹세하노니, 실오라기 하나, 신발끈 하나라도 당신의 소유물에서 취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내가 아브람을 부자로 만들었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다만 젊은이들이 먹은 음식과 나와 함께 갔던 아넬, 에스골, 마므레의 몫만은 예외입니다. 그들은 자기 몫을 가져가게 하십시오.

제 14 장

1 그 후 이 주간 넷째 해, 셋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람에게 꿈에 나타나 이르시기를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보호하고 네 상이 매우 클 것이다.' 하시니라.
2 그가 이르되 '주여, 주여, 내가 자식 없이 떠나가는데, 마섹의 아들, 곧 내 여종의 아들인 담마섹 엘리에셀이 내 후계자가 될 것이니, 주께서 내게 무엇을 주시려 하십니까? 주께서는 내게 자손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3 그리고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네 상속자가 되지 않을 것이다. 네 몸에서 나올 자가 네 상속자가 될 것이다.'
4 그리고 그분은 그를 데리고 나가셔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네가 셀 수 있거든 별들을 세어 보아라.'
5 그가 하늘을 바라보고 별들을 보았다. 그리고 그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많을 것이다.'
6 그가 주님을 믿었으므로 그것이 그의 의로 여겨졌다.
7 그리고 그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어 가나안 땅을 네게 주어 영원히 소유하게 하려는 여호와이다. 나는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8 그러자 그가 말했습니다. '주님, 주님, 제가 그것을 상속받을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9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삼 년 된 암송아지 한 마리, 삼 년 된 염소 한 마리, 삼 년 된 양 한 마리, 그리고 비둘기 한 마리, 그리고 집비둘기 한 마리를 내게 가져오너라.'
10 그리고 그는 그 달 중순에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헤브론 근처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나무 아래에 거하였다.
11 그리고 그는 거기에 제단을 쌓고 이 모든 것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들의 피를 제단 위에 붓고, 제물들을 가운데로 나누어 서로 마주 보게 놓았습니다. 그러나 새들은 나누지 못하게 했습니다.
12 그러자 새들이 그 조각들 위로 내려앉았으나 아브람은 새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그것들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였다.
13 해가 질 무렵 아브람에게 황홀경이 임하였고, 보라! 큰 어둠이 그에게 덮쳤으며, 아브람에게 이르시기를 '네 자손이 자기 땅이 아닌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종살이를 하며 사백 년 동안 고통을 당할 것을 확실히 알라' 하시니라.

14 그리고 그들이 종살이하게 될 나라도 내가 심판할
것이며, 그 후에 그들은 많은 재산을 가지고 나올 것이
다.
15 너는 평안히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고, 장수하여 좋
은 나이에 묻힐 것이다.
16 그러나 넷째 세대에 그들이 이곳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
문이다.
17 그가 잠에서 깨어나 일어나 보니 해가 져 있었고, 불
꽃이 있었는데, 보라! 화덕에서 연기가 나고 있었고, 불
꽃이 조각들 사이로 지나가고 있었다.
18 그 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언약을 맺으시고 말씀
하시기를 '내가 네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이집트 강
에서부터 큰 강 유프라테스 강까지, 그리고 겐족, 겐니
스족, 갓몬족, 페리싯족, 르바임족, 파코리족, 히위족,
아모리족, 가나안족, 기르가스족, 여부스족의 자손과
함께 주겠다.' 하시니라.
19 날이 지나고 아브람이 빵 조각들과 새들과 과일 제
물과 전제물을 바치니 불이 그것들을 삼켜 버렸다.
20 그 날에 우리는 이 달에 노아와 맺었던 언약대로 아
브람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람은 그 절기와
규례를 영원히 자신을 위해 새롭게 세웠습니다.
21 아브람은 기뻐하며 이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사라에
게 알렸다. 그는 자손을 얻을 것이라고 믿었으나 사라
는 아이를 낳지 못했다.
22 사라가 자기 남편 아브람에게 충고하여 이르되 '내
이집트 여종 하갈과 동침하여라. 내가 그녀와 함께 자
손을 번성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였더라.
23 아브람은 그의 아내 사라의 말을 듣고 "그렇게 하십
시오." 하고 말했습니다. 사라는 자기 여종인 이집트 여
인 하갈을 데려다가 남편 아브람에게 주어 아내로 삼았
습니다.
24 그가 그녀와 동침하여 그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
으니, 이 주의 다섯째 해[오전 19 시 65 분]에 그의 이름
을 이스마엘이라 불렀으니, 이는 아브람의 나이 86 세
였더라.

제 15 장

1 그리고 이 희년 넷째 주의 다섯째 해, [1979 년] 셋째
달 중순에 아브람은 곡식 추수의 첫 열매 축제를 지켰
습니다.
2 그리고 그는 새 제물을 제단 위에 드렸으니, 곧 소출
의 첫 열매를 여호와께 바치고, 암송아지 한 마리와 염
소 한 마리와 양 한 마리를 번제물로 제단 위에 드렸으
며, 그 열매 제물과 전제물도 유향과 함께 제단 위에 드
렸습니다.
3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자신을 인정
받고 온전해야 한다.'
4 내가 너와 언약을 맺고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5 아브람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하나님께서 그
에게 말씀하시기를:
6 '보라, 나의 율례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너는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7 네 이름은 다시는 아브람이라 불리지 않을 것이다.
이제부터 너의 이름은 영원히 아브라함이라 불릴 것이
다.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아버지로 삼았느니라.
8 내가 너를 매우 크게 하리라.
내가 너를 여러 민족으로 만들겠다.
그리고 왕들이 너로부터 나올 것이다.
9 내가 너와 네 후손 사이에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세우
리니, 이는 내가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기 위함이
니라.
10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나그네로 살던 땅, 곧 가
나안 땅을 주어 네가 영원히 소유하게 하리라. 그리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11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와 네 자
손이 내 언약을 지키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할례
를 행하고 포경수술도 행하여라. 이것이 나와 너 사이
에 영원한 언약의 표징이 되리라.
12 너희는 대대로 모든 남자아이를 여덟째 날에 할례를
행해야 한다. 집에서 태어난 아이든지, 돈으로 사들인
이방인 아이든지, 너희 자손이 아닌 아이든지 모두 할
례를 행해야 한다.
13 네 집에서 태어난 자는 반드시 할례를 받을 것이요,
네가 돈으로 산 자도 할례를 받을 것이며, 나의 언약이
영원한 규례로 네 살에 새겨질 것이다.
14 그리고 할례받지 않은 남자 곧 여덟째 날에 포경수
술을 받지 않은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니
이는 그가 내 언약을 어겼음이니라.
15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아내
사라의 이름은 이제 더 이상 사라라 불리지 않고 사라
라 불릴 것이다.'
16 내가 그녀를 축복하고 그녀에게서 너에게 아들을 주
겠으며, 내가 그를 축복하여 그가 한 민족을 이루고 여
러 나라의 왕들이 그에게서 나올 것이다.'
17 아브라함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뻐하며 속으
로 생각했다. '백 살 된 내게 아들이 생기다니, 아흔 살
된 사라가 아이를 낳다니!'
18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르되 이스마엘이 주 앞에서
살게 하옵소서
19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라도 네게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부르라.
내가 그와 영원한 언약을 맺고 그의 후손과도 언약을
맺으리라.'
20 이스마엘에 관해서도 내가 네 말을 들었으니, 보라,
내가 그를 축복하여 크게 번성하게 하고, 그에게서 열
두 왕자를 낳게 하며, 내가 그를 큰 민족으로 만들리라.
21 그러나 내가 사라가 너에게 낳을 이삭과 내 언약을
내년 이맘때에 세우겠다.'
22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말씀하시는 것을
마치시고 아브라함에게서 떠나가셨다.
23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
하여 그의 아들 이스마엘과 자기가 돈으로 산 집안의
모든 남자들을 데려다가 그들의 포경수술을 시행하였
다.

24 바로 그날에 아브라함도 할례를 받았고, 그의 집안의 모든 남자들과 그 집에서 태어난 자들, 그리고 그가 이방인의 자녀들에게서 돈으로 사들인 모든 사람들도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습니다.
25 이 법은 모든 세대에 영원히 적용되며, 날을 정하는 할례도 없고, 여덟 날 중 하루도 빼놓을 수 없으니, 이는 영원한 규례로서 하늘의 돌판에 기록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26 태어난 자 중에 여덟째 날에 포경수술을 하지 않은 자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의 자녀에 속하지 아니하고 멸망의 자녀에 속하며, 그에게는 여호와께 속한 자라는 표징이 전혀 없으니, 오직 땅에서 멸망하고 죽임을 당하며 뿌리 뽑힐 것이니 이는 그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맺으신 언약을 어겼음이라.
27 이는 임재의 모든 천사와 거룩하게 하는 모든 천사가 창조된 날부터 그렇게 창조되었고, 임재의 천사와 거룩하게 하는 천사들보다 앞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과 그의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있게 하려 하심이라.
28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대대로 이 언약의 표징을 영원한 규례로 지키게 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그 땅에서 뿌리 뽑히지 않을 것이다.
29 이는 그 계명이 언약을 위한 것이니,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영원히 지켜야 할 것이라.
30 이스마엘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에서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가까이 오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택하신 것은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서가 아니라 그들을 아셔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택하신 것이다.
31 그리고 그분은 그것을 거룩하게 하시고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으셨습니다. 이는 많은 민족과 많은 백성이 있고 모두 그분의 것이며, 그분은 모든 것 위에 권세를 가진 영들을 두어 그들을 그분에게서 미혹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32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위에 어떤 천사나 영도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그들의 통치자이시며, 그분의 천사들과 영들, 그리고 모든 권능을 통해 그들을 보호하시고 요구하실 것입니다. 이는 그분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며, 이제부터 영원토록 그들이 그분의 것이 되고 그분께서 그들의 것이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33 이제 내가 너에게 선포하노니, 이스라엘 자손은 이 규례를 지키지 않을 것이며, 이 모든 율법대로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할례를 행하는 과정에서 아들들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않을 것이며, 벨리알의 자손들은 모두 아들들을 태어날 때 그대로 할례를 행하지 않은 채로 둘 것이다.
34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큰 진노를 내리실 것이다. 이는 그들이 그분의 언약을 버리고 그분의 말씀을 저버렸으며, 율법의 규례를 지키지 않고 모독하고 모욕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기 지체들을 이방인처럼 대하였으므로, 그 땅에서 뿌리 뽑힐 것이다. 이 영원한 잘못으로 지은 모든 죄에 대하여는 더 이상 용서나 사면이 없을 것이다.

제 16 장

1 그리고 넷째 달 초하루에 우리가 마므레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와 이야기하고 그의 아내 사라에게서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2 그러자 사라가 웃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을 듣고 우리가 그녀를 꾸짖자, 그녀는 두려워하며 그 말 때문에 웃지 않았다고 부인했습니다.
3 그리고 우리는 그녀에게 그의 아들의 이름을 알려주었는데, 그의 이름은 하늘의 돌판에 정해진 대로 이삭이라 하였습니다.
4 그리고 우리가 정해진 시간에 그녀에게 돌아왔을 때, 그녀는 아들을 임신했을 것이다.
5 이 달에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와 제보임과 요단강 유역 전체에 심판을 내리시고 불과 유황으로 그들을 불태워 오늘까지 멸망시키셨으니,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너에게 선포한 대로 그들은 극악한 죄인이며, 스스로를 더럽히고 육체로 음행을 저지르며 땅에 더러운 일을 행하는 자들이다.
6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소돔 사람들의 부정한 행위를 따라 행한 곳에도 소돔에 내린 심판과 같은 심판을 내리실 것이다.
7 그러나 우리는 롯을 구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그를 그 혼란 속에서 구원해 내셨기 때문입니다.
8 그와 그의 딸들은 땅에서 죄를 지었는데, 이는 아담 시대 이후로 그의 시대에는 없었던 죄였으니, 그 남자가 자기 딸들과 동침하였기 때문이다.
9 보라, 그의 모든 자손에 관하여 하늘의 돌판에 새겨져 명령되었으니, 그들을 제거하고 뿌리 뽑고 소돔의 심판과 같이 심판을 행하여 심판의 날에 땅에 사람의 자손이 하나도 남지 않게 하라는 것이었다.
10 이 달에 아브라함은 헤브론을 떠나 가데스와 슈르 사이의 게라르 산에 거주하였다.
11 그리고 다섯째 달 중순에 그는 그곳을 떠나 맹세의 우물가에 거하였다.
12 그리고 여섯째 달 중순에 주님께서 사라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니 사라가 임신하였다.
13 그녀가 셋째 달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 달 중순, 곧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시기, 곧 첫 소출 축제일에 이삭이 태어났다.
14 아브라함은 여덟째 날에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였으니 이는 영원히 정한 언약에 따라 할례를 받은 첫 번째 사람이니라.
15 그리고 넷째 주의 여섯째 해에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이르러 맹세의 우물에 이르렀고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사라에게 다시 돌아올 것이며 그녀가 아들을 잉태할 것이라고 말했던 대로 말입니다.]
16 우리가 일곱째 달에 돌아와 보니 사라가 우리 앞에서 임신한 상태였다. 우리가 그를 축복하고 그에게 정해 놓은 모든 것을 알려주었다. 곧 그가 여섯 아들을 더 낳고 죽기 전에 그들을 봐야 하며, 그의 이름과 자손은 이삭을 통해 불릴 것이라는 것이다.

17 그의 아들들의 모든 자손은 이방인이 되어 이방인으로 여겨질 것이요, 이삭의 아들들 중에서 한 사람은 거룩한 자손이 되어 이방인으로 여겨지지 않을 것이다.
18 이는 그가 지극히 높으신 분의 소유가 되고 그의 모든 자손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모든 민족 가운데서 주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고 나라와 제사장과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려 함이라.
19 그리고 우리는 길을 떠나 사라에게 우리가 그에게 말한 모든 것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두 사람은 매우 기뻐했습니다.
20 그리고 그는 거기에 자기를 구원하시고 나그네 땅에서 기쁨을 주시는 주님께 제단을 쌓고, 그 달에 맹세의 우물 곁에서 세운 제단 근처에서 칠 일 동안 기쁨의 축제를 지켰다.
21 그리고 그는 이 절기에 자신과 그의 신하들을 위해 초막을 지었으며, 세상에서 초막절을 지킨 첫 번째 사람이 되었습니다.
22 그리하여 그는 칠 일 동안 날마다 제단에 번제물을 바쳤으니, 곧 소 두 마리, 숫양 두 마리, 양 일곱 마리, 숫염소 한 마리를 바쳐 자기와 자기 자손의 죄를 속죄하려 함이었다.
23 그리고 감사 제물로 숫양 일곱 마리, 새끼 염소 일곱 마리, 양 일곱 마리, 숫염소 일곱 마리와 그 열매 제물과 전제물을 바치고, 그 기름을 모두 제단 위에서 불태워 여호와께 향기로운 제물로 바쳤다.
24 아침저녁으로 그는 향기로운 향료, 곧 유향, 갈바눔, 스탁테, 나드, 몰약, 향료, 코스툼을 태웠는데, 이 일곱 가지를 모두 빻아서 같은 비율로 섞어서 순수한 상태로 제물로 바쳤다.
25 그리고 그는 칠 일 동안 이 잔치를 베풀며 온 마음과 온 영혼을 다해 기뻐하였다. 그와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했고, 그와 함께 있는 사람은 나그네도 없었고 할례받지 않은 사람도 없었다.
26 그리고 그는 자기 세대에 자기를 창조하신 창조주를 찬양하였으니 이는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그를 창조하셨음이요, 그분께서 아셔서 영원한 세대를 위한 의의 나무가 나고, 거룩한 씨앗이 되어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과 같이 될 것을 아셨음이니라.
27 그리고 그는 축복하고 기뻐하며 이 절기의 이름을 여호와의 절기라 불렀으니 이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쁨이라 하였더라.
28 우리가 그를 영원히 축복하고 그의 모든 자손을 땅의 모든 세대에 걸쳐 축복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늘의 기록에 따라 제때에 이 절기를 지켰음이라.
29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일곱째 달에 칠 일 동안 기쁨으로 초막절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하늘의 돌판에 기록되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 기뻐하시는 절기이며, 그들의 모든 세대에 걸쳐 매년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이다.
30 그리고 이 절기에는 날짜 제한이 없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이 절기를 지키고 초막에 거하며 머리에 화관을 쓰고 시냇가에서 무성한 나뭇가지와 버드나무 가지를 가져다 쓰는 것은 영원한 율법으로 정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31 아브라함은 종려나무 가지와 아름다운 나무의 열매를 가져다가 매일 아침 일곱 번씩 그 가지를 들고 제단 주위를 돌며 기쁨으로 모든 일에 대해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렸습니다.

제 17 장

1 그리고 이 희년의 다섯째 주 첫째 해에 이삭이 젖을 떼었고 [1982 AM] 아브라함은 셋째 달, 곧 그의 아들 이삭이 젖을 뗀 날에 큰 잔치를 베풀었다.
2 이집트 여인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버지 아브라함 앞에 그의 자리를 대신하여 나타났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들을 보게 되어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아들들이 자식 없이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3 그리고 그는 롯이 자기와 헤어진 날에 그분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그에게 땅 위에 자손을 주셔서 땅을 기업으로 받게 하셨음을 기뻐하며, 온 입으로 만물의 창조주를 찬양하였다.
4 사라가 이스마엘이 뛰어놀고 춤추는 것을 보고 아브라함이 크게 기뻐하는 것을 보니 이스마엘을 질투하여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십시오. 이 여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상속자가 될 수 없습니다.'
5 아브라함은 여종과 아들 때문에 그들을 쫓아내야 했기에 그 일이 몹시 괴로웠습니다.
6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이와 여종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라. 사라가 네게 말한 모든 것을 듣고 행하여라. 이삭을 통해 네 이름과 자손이 불릴 것이다.'
7 그러나 이 여종의 아들은 당신의 자손이므로 내가 그를 큰 민족으로 만들겠습니다.'
8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빵과 물 한 병을 가져다가 하갈과 아이의 어깨에 메어 주고 그녀를 보냈다.
9 그리하여 그녀는 떠나 브엘세바 광야를 방황하였다. 물병 속의 물이 다 떨어지고 아이가 목이 말라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어 쓰러졌다.
10 그의 어머니는 그를 데리고 올리브 나무 아래에 눕히고, 활 쏘는 거리만큼 떨어진 곳에 가서 그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내 아이의 죽음을 보고 싶지 않다' 고 말하며 앉아서 울었습니다.
11 하나님의 천사 곧 거룩한 자들 중 하나가 하갈에게 이르되 '하갈아, 왜 우느냐? 일어나 아기를 안아 손에 쥐어라. 하나님께서 네 목소리를 들으시고 아기를 보셨다.' 하갈이 말했다.
12 그녀가 눈을 뜨니 우물이 보였다. 그녀는 가서 물병에 물을 채워 아이에게 마시게 하고 일어나 파란 광야를 향해 갔다.
13 그 아이는 자라서 활쏘는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으며, 그의 어머니는 이집트 여인들 중에서 그를 위해 아내를 맞이하였다.
14 그녀가 아들을 낳았으니, 그가 그의 이름을 느바욧이라 불렀다. 이는 그녀가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계셨다'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15 그리고 그 희년 첫째 해 일곱째 주, 곧 이 희년 첫째 달 열두째 날에 하늘에서 아브라함에 관하여 음성이 들려왔는데, 그가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에 충실하였고, 주님을 사랑하였고,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충실하였더라 하였습니다.
16 그러자 마스테마 왕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 이삭을 사랑하고 그를 무엇보다 소중히 여깁니다. 그에게 이삭을 번제물로 제단에 바치라고 명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그가 이 명령을 행하는지 보시고, 그가 주님께서 시험하시는 모든 일에 충실한지 알게 되실 것입니다.'
17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이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충성된 자임을 아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를 나라를 괴롭히고 기근을 일으키셨을 때에도 시험하셨고, 왕들의 재물로도 시험하셨으며, 아내가 헤어지게 되었을 때에도 시험하셨고, 할례를 받게 하셨을 때에도 시험하셨으며, 여종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쫓았을 때에도 시험하셨습니다.
18 주님께서 그를 시험하신 모든 일에서 그는 충실함을 보였고, 그의 마음은 조급하지 않았으며, 행동도 더디지 않았습니다. 그는 충실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제 18 장

1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보십시오, 제가 여기 있습니다.
2 그가 이르시되 네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데리고 산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알려 줄 산들 중 하나에서 제물로 바치라 하시니라
3 그가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에 안장을 얹고 두 젊은 종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삼일째 되는 날에 그곳으로 갔는데 멀리서 그곳을 보았다.
4 예수께서 물 우물가에 이르러 자기 종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머물러 있으라. 나와 아이는 저쪽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다시 너희에게 돌아오겠다.'
5 그리고 그는 번제에 쓸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의 어깨에 얹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그와 함께 그곳으로 갔다.
6 이삭이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 하시니, 아버지가 이르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하시매, 이삭이 이르되, '불과 칼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물로 드릴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하니
7 그가 이르되 하나님께서 친히 번제물로 드릴 양을 마련해 주실 것이다, 내 아들아. 그가 하나님의 산으로 가까이 나아갔다.
8 그가 제단을 쌓고 그 제단 위에 나무를 올려놓은 다음,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위의 나무 위에 눕히고, 이삭을 죽이려고 칼을 잡으려 손을 뻗었다.
9 내가 그와 마스테마 왕자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에게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명하라. 내가 그가 주님을 경외하는 자임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10 내가 하늘에서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니 그가 두려워하며 이르되 보라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더라
11 내가 그에게 이르되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제 내가 네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네 아들, 네 맏아들을 내게 바치기를 아끼지 않았음을 보였느니라.
12 그러자 마스테마 왕자는 수치를 당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보니, 뿔이 잡힌 숫양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서 그 숫양을 잡아 자기 아들 대신 번제물로 바쳤습니다.
13 아브라함은 그곳을 '여호와께서 보셨다'라 불렀으니, 그 산에서 여호와께서 보셨다고 말하느니라. 그 산은 시온 산이니라.
14 그리고 주님께서 하늘에서 아브라함을 그의 이름으로 다시 부르셨으니, 이는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시어 주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말하게 하신 때였습니다.
15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 자신으로 맹세하노니 네가 이 일을 행하고 네 아들, 네 사랑하는 아들을 내게 바치기를 아끼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축복하고 네 자손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하리라 네 자손이 원수의 성읍들을 차지하리라
16 네 자손을 통하여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니 이는 네가 내 목소리에 순종하였고 내가 네게 말한 모든 것에 네가 내게 충실함을 내가 만인에게 나타냈음이라. 평안히 가라.
17 아브라함이 그의 젊은이들에게 가서 그들이 일어나 함께 브엘세바로 갔고 아브라함은 맹세의 우물 곁에 거하였다.
18 그리고 그는 이 절기를 해마다 칠 일 동안 기쁨으로 지켰으며, 주님께서 평화롭게 가시고 돌아오신 칠 일 동안을 따라 이 절기를 주님의 절기라 불렀습니다.
19 그러므로 이스라엘과 그 자손이 이 절기를 칠 일 동안 축제의 기쁨으로 지키도록 하늘의 돌판에 정하고 기록하였느니라.

제 19 장

1 그리고 희년 42 년 첫째 주 첫째 해에 아브라함은 돌아와서 헤브론 맞은편, 곧 기럇아르바에 두 주 동안 거주하였다.
2 그리고 이 희년 셋째 주의 첫째 해에 사라의 생애가 끝나 헤브론에서 그녀가 죽었습니다.
3 아브라함은 그녀를 위해 슬퍼하고 장사 지내러 갔는데, 우리는 그의 마음이 인내하는지, 입으로 분노하는 말을 하지 않는지 시험해 보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일에 인내하며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4 이는 예수께서 인내하는 마음으로 헷 족속 사람들과 대화하시어 자기의 죽은 자를 장사 지낼 곳을 마련해 달라고 간청하신 것이다.
5 여호와께서 그를 본 모든 사람 앞에서 은혜를 베푸시니, 그가 온유한 마음으로 헷 자손에게 간청하여 마므레 맞은편에 있는 두 동굴 땅, 곧 헤브론을 은 사백 세겔에 그에게 주었다.

6 그들이 그에게 간청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무 대가 없이 주겠나이다 하였더니 그가 아무 대가 없이 받지 아니하시고 그 땅의 값, 곧 돈을 전부 드리시고 그들 앞에 두 번 절하시고 그 후에 자기 죽은 자를 두 동굴에 장사지내셨더라
7 사라의 모든 생애는 백이십칠 년이었으니, 이는 두 희년과 사 주간과 일 년입니다. 이것이 사라의 생애의 날들입니다.
8 이것은 아브라함이 받은 열 번째 시험인데, 그는 믿음이 강하고 인내심이 있는 사람으로 드러났습니다.
9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와 그의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다는 소문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곳에 자기 죽은 자를 장사 지낼 곳을 간청했습니다. 이는 그가 신실한 자로 인정받아 하나님의 친구로 하늘의 돌판에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10 그 해 넷째 해에 그는 그의 아들 이삭을 위하여 레베카라는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였다. [2020 AM] [그녀는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들 베투엘의 딸이며, 라반의 누이요 베투엘의 딸이며, 베투엘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멜가의 아들이다.]
11 아브라함은 세 번째 아내로 케투라를 맞이했는데, 그녀의 이름은 그의 집 종들의 딸들 중에서 나온 것이었다. 하갈은 사라보다 먼저 죽었기 때문이다. 케투라는 아브라함에게 짐람, 욕산, 메단, 미디안, 이스박, 슈아라는 여섯 아들을 두 해에 걸쳐 낳았다.
12 그리고 그 해 여섯째 주, 곧 제 2 년에 리브가는 이삭에게 야곱과 에서 두 아들을 낳았다.
13 야곱은 온화하고 정직한 사람이었고, 에서는 사납고 들판에 거하는 사람이었으며 털이 많았고, 야곱은 장막에 거했다.
14 젊은이들이 자라면서 야곱은 글쓰는 법을 배웠으나 에서는 배우지 못했다. 그는 들판에서 일하는 사냥꾼이었고, 전쟁을 배웠으며, 그의 모든 행동은 사나웠다.
15 아브라함은 야곱을 사랑했고,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다.
16 아브라함은 에서의 행적을 보고 야곱에게서 자기 이름과 자손이 불릴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리브가를 불러 야곱에 관하여 명령했습니다. 이는 그가 리브가도 에서보다 야곱을 훨씬 더 사랑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17 그가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 딸아 내 아들 야곱을 잘 보살펴라 그가 땅에서 나를 대신할 것이며 사람들의 자녀들 가운데 복이 되고 셈의 온 자손의 영광이 될 것이다.
18 내가 아는 것은 주님께서 그들을 택하셔서 땅 위의 모든 민족 가운데서 자기 소유의 백성으로 삼으실 것이라는 점이다.
19 보십시오, 내 아들 이삭은 야곱보다 에서를 더 사랑하지만, 당신은 야곱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20 너희는 그에게 더욱 친절을 베풀고, 사랑스러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라. 그는 이제부터 땅의 모든 세대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복이 될 것이다.
21 네 손을 강하게 하고 네 마음을 네 아들 야곱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라. 내가 그를 내 모든 아들보다 더 사랑하였느니라. 그는 영원히 복을 받을 것이요 그의 자손이 온 땅에 충만할 것이라.
22 만일 어떤 사람이 땅의 모래를 셀 수 있다면, 그의 자손도 셀 수 있을 것이다.
23 여호와께서 나와 내 자손에게 주신 모든 복은 야곱과 그의 자손에게 영원히 속할 것이다.
24 그의 자손을 통해 내 이름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 조상 셈과 노압과 에녹과 마할랄렐과 에노스와 셋과 아담의 이름도 복을 받을 것이다.
25 이것들은 하늘의 기초를 놓는 데 쓰일 것이며, 땅을 견고하게 하고, 궁창에 있는 모든 광명체를 새롭게 하는 데 쓰일 것이다.
26 예수께서 야곱을 그의 어머니 리브가 앞에서 불러 입맞추고 축복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27 '내 사랑하는 아들 야곱아, 내 영혼이 사랑하는 너를 하나님께서 하늘 위에서 축복하시고, 아담과 에녹과 노아와 셈에게 주셨던 모든 복을 너에게도 주시기를 원한다. 또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모든 것을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붙들어 주시기를 원한다. 땅 위에 하늘이 있는 날까지 그러하기를 원한다.'
28 마스테마의 영들이 너나 네 자손을 다스려 너를 주님, 곧 너의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게 하지 못할 것이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29 주 하나님께서 너에게 아버지가 되시고 너는 맏아들이 되며, 백성에게도 항상 아버지가 되시기를 바란다.
30 '내 아들아, 평안히 가라.' 그리고 그들은 아브라함에게서 나와 함께 떠났다.
31 그리고 리브가는 야곱을 온 마음과 온 영혼을 다해 사랑하여 에서보다 훨씬 더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에서를 야곱보다 훨씬 더 많이 사랑했습니다.

제 20 장

1 그리고 42 번째 희년, 일곱 번째 주간 첫째 해에 아브라함은 이스마엘과 그의 열두 아들, 이삭과 그의 두 아들, 그리고 케투라의 여섯 아들과 그들의 아들들을 불렀다.
2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주의 도를 지키고, 의를 행하며, 각자 이웃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와 같이 행하여 땅에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라고 명하셨습니다.
3 이는 그들이 그분께서 그들과 맺으신 언약대로 그들의 아들들을 할례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모든 길에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게 하며, 모든 음행과 부정한 것을 멀리하고, 우리 가운데서 모든 음행과 부정한 것을 버리게 하려 함입니다.
4 만일 너희 가운데 어떤 여자나 처녀가 음행을 저지르면 불로 태워 죽이고, 너희로 하여금 눈과 마음으로 그녀와 음행을 저지르지 못하게 하라. 또 가나안 여인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못하게 하라. 이는 가나안의 자손이 그 땅에서 뿌리 뽑힐 것이기 때문이다.
5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거인들의 심판과 소돔 사람들의 심판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악

행 때문에 심판을 받았고, 음행과 부정한 행위와 음행
으로 말미암아 서로 타락했기 때문에 죽었는지 말씀하
셨습니다.
6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음행과 부정한 일, 그리고 모
든 죄악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이름이 저주받게 되고, 너희의 온 생애가 조롱거리가
되며, 너희의 모든 아들이 칼에 멸망당하고, 너희가 소
돔처럼 저주받고, 너희의 남은 자들이 고모라의 자손들
처럼 될 것이다.'
7 내 아들들아, 간청하노니 하늘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모든 계명을 지키라. 그들의 우상과 부정한 것을
따르지 말라.
8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부어 만들거나 새긴 신상을 만
들지 말라. 그것들은 헛된 것이며, 그것들 속에는 영이
없고,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니, 그것들을 의지하는
자는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는 자니라.
9 너희는 그것들을 섬기지도 않고 경배하지도 말라. 오
직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을 항상 경배하
라. 그리고 항상 그분의 얼굴을 사모하고, 그분 앞에서
정직하고 공의롭게 행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에게 자비를 베푸시며, 아침저녁으로
너희에게 비를 내리시고, 너희가 땅에서 행한 모든 일
에 복을 주시고, 너희의 빵과 물에 복을 주시고, 너희 태
에서 난 소와 땅에서 난 소산과 가축 떼와 양 떼에 복을
주시리라.
10 너희는 땅에서 복이 될 것이며, 땅의 모든 민족이 너
희를 사모할 것이며, 내 이름으로 너희 아들들을 축복
하여 그들도 나처럼 복을 받게 할 것이다.
11 그리고 그는 이스마엘과 그의 아들들, 그리고 케투
라의 아들들에게 선물을 주고 그들을 그의 아들 이삭에
게서 돌려보내었으며, 모든 것을 그의 아들 이삭에게
주었다.
12 이스마엘과 그의 아들들, 그리고 케투라의 아들들과
그들의 아들들은 함께 가서 파란에서 바빌론 어귀까지,
곧 동쪽 사막을 마주한 온 땅에 거주하였다.
13 그리고 이들은 서로 섞여서 아랍인과 이스마엘인이
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제 21 장

1 그리고 이 희년의 일곱째 주의 여섯째 해에 아브라함
은 그의 아들 이삭을 불러 [2057 (2050?) AM] 그에게 이
르되 내가 늙었고 내 죽음의 날을 알지 못하며 내 날이
다 찼도다.
2 보십시오, 나는 백칠십오 살입니다. 나는 평생 동안
주님을 기억하고, 온 마음을 다해 그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모든 길에서 정직하게 행하려고 노력했습니다.
3 내 영혼은 우상을 미워하였고, 그것들을 섬기는 자들
을 멸시하였으며, 내 마음과 영혼을 다 바쳐 나를 창조
하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애썼느니라.
4 이는 그분은 살아 계신 하나님이시며 거룩하시고 신
실하시며 모든 것에서 가장 의로우시며 그분은 사람을
받지도 않으시고 선물도 받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
나님은 의로우시므로 그분의 계명을 어기고 그분의 언
약을 멸시하는 모든 자에게 심판을 내리십니다.
5 내 아들아, 너는 그분의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키고
가증한 것들과 새긴 우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본받지
말라.
6 그리고 동물이나 가축의 피는 물론 하늘을 나는 어떤
새의 피도 절대 먹지 마십시오.
7 만일 네가 화목제물로 받을 만한 제물을 잡으려거든
그 제물을 잡고 그 피를 제단 위에 붓고, 그 제물의 기름
을 모두 고운 밀가루와 함께 제단 위에 올리고, 화목제
물에 기름을 섞어 넣고 그 전제물과 함께 다 번제단 위
에 올려 바치라. 이는 여호와 앞에서 향기로운 일이다.
8 너는 감사 제물의 기름을 제단 위의 불에 바치되, 배
에 있는 기름과 내장과 두 콩팥에 있는 기름과 그 위에
있는 기름을 모두 제거하고, 허리와 간에 있는 기름도
콩팥과 함께 제거하여 바치라.
9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여호와 앞에서 향기로운 제물로
드리십시오. 소제와 전제와 함께, 여호와께 향기로운
제물로 바치는 빵을 드리십시오.
10 그리고 그 고기를 그날과 둘째 날에 먹되, 둘째 날에
는 해가 지기 전에 다 먹도록 하고, 셋째 날까지 아무것
도 남기지 말라. 이는 그것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다시는 그것을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자는 누구든지 죄를 짓게 될 것이다. 이는 내가 조
상들의 책과 에녹의 말과 노아의 말에 기록된 것을 본
것이다.
11 그리고 너희는 모든 예물에 소금을 뿌려야 하며, 여
호와 앞에 드리는 너희의 모든 예물에서 언약의 소금이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12 제물로 바칠 나무에 관하여는, 잣나무, 월계수나무,
아몬드나무, 전나무, 소나무, 삼나무, 사비나무, 무화과
나무, 올리브나무, 몰약나무, 월계수나무, 아스팔라투
스 외에 다른 나무를 제단에 가져오지 않도록 조심하라.
13 제단 아래 제물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의 나무를 놓
아야 합니다. 모양이 잘 보이는 나무를 놓고, 갈라지거
나 어두운 나무는 놓지 말고, 단단하고 깨끗하며 흠 없
고 건강하고 새로 자란 나무를 놓아야 합니다. 또한 묵
은 나무는 놓지 말아야 합니다. 묵은 나무는 향기가 없
어지기 때문입니다.
14 이러한 종류의 나무 외에는 제단 위에 둘 다른 나무
가 없으니, 그 향기는 흩어져 버리고 하늘에까지 이르
지 못하기 때문이다.
15 내 아들아, 이 계명을 지키고 행하여 네 모든 행위에
있어서 정직하게 되라.
16 그러므로 너는 항상 몸을 깨끗이 하고, 제단에 나아
가기 전에 물로 몸을 씻고, 제단에 가까이 가기 전에 손
과 발을 씻으라. 제사를 마친 후에도 다시 손과 발을 씻
으라.
17 그리고 너와 네 옷에 피가 묻지 않게 하라. 내 아들아,
피를 조심하고, 아주 조심하여라. 그것을 먼지로 덮어
버리라.
18 그리고 피는 먹지 마십시오. 피는 영혼입니다. 절대
로 피를 먹지 마십시오.

19 사람의 피에 대하여는 아무것도 받지 말라. 그렇게 하면 그 피가 처벌받지 않고 심판 없이 흘려질 수 있기 때문이다. 흘린 피가 땅을 죄짓게 하는 것이며, 땅을 사람의 피로부터 깨끗하게 하려면 그 피를 흘린 자의 피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20 사람의 피를 대가로 예물이나 선물을 받지 마십시오. 피는 피로 갚으십시오. 그리하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용납될 것입니다. 그분은 선한 자들의 방패시며, 모든 악에서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모든 죽음에서 여러분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21 내 아들아, 내가 보니 사람의 모든 행위는 죄악이며 악이며, 그들의 모든 행위는 더럽고 가증스럽고 추악하며, 그들에게는 의가 없도다.
22 너희는 그들의 길을 따라 걷거나 그들의 발자취를 밟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죽음에 이르는 죄를 짓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분께서 너희에게서 얼굴을 돌리시고 너희를 너희 죄악의 손에 다시 넘겨주실 것이며, 너희를 땅에서 뿌리 뽑으시고 너희 자손도 하늘 아래에서 뿌리 뽑으실 것이며, 너희 이름과 너희 자손이 온 땅에서 사라질 것이다.
23 그들의 모든 행위와 모든 부정한 것에서 돌아서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고, 그분의 뜻을 행하며, 모든 일에 정직하게 행하십시오.
24 그분께서 네 모든 행위를 축복하시고, 너에게서 의의 나무를 일으켜 온 땅과 모든 세대에 걸쳐 번성하게 하시리니, 내 이름과 네 이름이 하늘 아래에서 영원히 잊히지 않을 것이다.
25 내 아들아, 평안히 가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며 너의 하나님이신 분께서 네가 그분의 뜻을 행하도록 강하게 하시고, 네 자손과 그 후손에게 대대로 모든 의로운 복을 내려주시어 네가 온 땅에 복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26 그리고 그는 기뻐하며 그에게서 떠나갔다.

제 22 장

1 그리고 희년 44 년 첫째 주, 곧 아브라함이 죽은 해에 이삭과 이스마엘이 맹세의 우물에서 나와 첫 수확 절기인 칠칠절을 지키려고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왔습니다. 아브라함은 두 아들이 온 것을 기뻐했습니다.
2 이삭은 브엘세바에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삭은 자주 가서 자기 재산을 보고 아버지에게 돌아오곤 했습니다.
3 그 무렵 이스마엘이 아버지를 뵈러 왔고, 두 사람은 함께 가서 이삭이 번제물을 바치고 헤브론에 있는 아버지의 제단에 봉헌하였다.
4 그리고 그는 감사 제물을 드리고 그의 형 이스마엘 앞에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리브가는 새 곡식으로 새 빵을 만들어 아들 야곱에게 주어, 야곱이 그 빵을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가져다가 땅의 첫 소산으로 먹고 죽기 전에 만물의 창조주를 찬양하게 하였습니다.
5 이삭도 야곱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가장 좋은 감사 제물을 보내어 그가 먹고 마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6 그리고 그는 먹고 마시며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땅의 모든 기름진 것들을 만드시고 그것들을 사람들의 자녀들에게 주셔서 그들이 먹고 마시며 그들의 창조주를 찬양하게 하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7 '이제 내가 주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나에게 이 날을 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나는 백칠십오 세 된 노인이요, 장수하였나이다. 내 모든 날은 내게 평화로웠나이다.'
8 주님께서 내 평생 동안 나와 내 자녀들에게 주신 모든 것에 있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원수의 칼이 나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9 나의 하나님, 주의 자비와 평화가 주의 종과 그의 자손에게 임하여, 그들이 이제부터 땅의 모든 세대와 모든 시대에 걸쳐 주의 택하신 민족이요 모든 민족 가운데서 유업이 되게 하소서.
10 그리고 야곱을 불러 이르시되 내 아들 야곱아, 만물의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시고 강하게 하셔서 의를 행하고 그분의 뜻을 행하게 하시며, 너와 네 자손을 택하셔서 네가 그분의 뜻대로 항상 그분의 기업을 받는 백성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11 "내 아들 야곱아, 내게로 와서 입맞추어라." 그가 가까이 와서 입맞추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 아들 야곱아,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모든 아들들이 영원토록 복을 받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의의 씨를 주시고, 네 아들 중 몇 사람을 온 땅 가운데서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모든 민족이 너를 섬기고, 모든 민족이 네 씨 앞에 엎드리기를 원한다."
12 사람들 앞에서 강하고 셋의 모든 자손을 다스리라. 그리하면 너와 네 아들들의 행위가 옳다고 여겨질 것이요, 그들이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13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셨던 모든 복을 너에게도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분께서 노아와 아담에게도 베푸셨던 그 모든 복을 네 자손의 거룩한 머리 위에 대대로 영원토록 머물게 하기를 원하노라.
14 주께서 너를 모든 불의와 더러움에서 깨끗하게 하셔서 네가 알지 못하고 지은 모든 죄를 용서받게 하시고, 너를 강하게 하시고, 너를 축복하시어 네가 온 땅을 상속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15 그리고 그분께서 너와 맺으신 언약을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하여 네가 그분께 속한 민족이 되어 영원토록 그분의 기업이 되게 하시고, 그분께서 너와 네 자손에게 땅의 모든 날 동안 진실하고 의로운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노라.
16 내 아들 야곱아, 내 말을 기억하고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계명을 지켜라. 이방 민족들과 구별하여 그들과 함께 먹지 말고 그들의 행위를 따르지 말고 그들과 어울리지 말라. 그들의 행위는 부정한 것이요 그들의 모든 행위는 더럽고 가증스럽고 부정한 것이니라.
17 그들은 죽은 자에게 제물을 바치고 악령을 숭배하며 무덤 위에서 음식을 먹으니 그들의 모든 행위는 헛되고 무의미하다.
18 그들은 깨달을 마음이 없고, 그들의 눈은 자기들이 행한 일이 무엇인지 보지 못하며, 나무 조각에게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돌에게 '주님은 나의 주

님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 나 잘못된 일인지 알지 못한다. [그들은 마음이 없다.]
19 내 아들 야곱아, 너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너를 도우시고, 하늘의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시어 그들의 더러움과 모든 잘못에서 너를 구원하시기를 원하노라.
20 내 아들 야곱아, 가나안 자손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들의 자손은 모두 땅에서 뿌리 뽑힐 것이다.
21 함의 범죄로 말미암아 가나안이 잘못을 범하였으므로 그의 모든 자손과 그 남은 자들은 땅에서 완전히 멸망할 것이며 심판 날에 그에게서 나온 자는 아무도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22 그리고 우상 숭배자들과 속된 자들 모두에 관하여는 (가) 그들에게는 산 자의 땅에서 아무런 희망도 없을 것이다.
(b) 그리고 땅 위에는 그들에 대한 기억이 전혀 남지 않을 것이다.
(c) 그들은 스올로 내려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d) 그리고 그들은 심판의 장소로 갈 것이다.
소돔 자손들이 땅에서 사라진 것처럼, 우상을 숭배하는 모든 자들도 그렇게 사라질 것이다.
23 내 아들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아브라함의 아들아, 낙심하지 말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너를 멸망에서 지키시고 모든 잘못된 길에서 너를 구원하시리라.
24 내가 이 집을 지은 것은 내 이름을 땅 위에 두기 위함이니, [이 집은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주어졌느니라] 이 집은 아브라함의 집이라 불릴 것이요,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주어졌느니라. 네가 내 집을 건축하고 내 이름을 하나님 앞에 영원히 세울 것이니, 네 자손과 네 이름은 땅의 모든 세대에 걸쳐 설 것이니라.
25 그리하여 그는 그에게 명령하고 축복하는 것을 그만 두었다.
26 그 둘은 한 침대에 함께 누웠고, 야곱은 그의 조상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잠들었으며, 그에게 일곱 번 입맞추고 그의 애정과 마음이 그를 기뻐하였다.
27 그러자 그는 온 마음을 다해 그를 축복하며 말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만물의 하나님이시며 만물을 창조하신 분께서 저를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해 내시고 이 땅을 제게 주셔서 영원히 기업으로 삼게 하시고 거룩한 자손을 세우게 하셨으니, 영원토록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나이다.'
28 그리고 예수께서 야곱을 축복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온 마음과 애정을 다해 기뻐하는 너에게 주의 은혜와 자비가 항상 임하고 그의 자손에게도 임하기를 원하노라.'
29 그리고 그를 버리지 마시고 영원까지 그를 업신여기지 마소서. 주의 눈을 그와 그의 자손에게 열어 주시어 그를 보존하시고 축복하시고 주의 기업으로 삼을 민족으로 거룩하게 하소서.
30 그리고 이제부터 영원무궁토록 주의 모든 복을 그에게 베푸시고, 주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그와 그의 자손과 맺으신 언약과 은혜를 땅의 모든 세대에까지 새롭게 하옵소서.

제 23 장

1 그리고 야곱의 두 손가락을 그의 눈에 얹고 신들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얼굴을 가리고 발을 뻗어 영원한 잠을 자고 그의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
2 그런데도 야곱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었고, 자기 조부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죽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3 야곱이 잠에서 깨어보니 아브라함은 얼음처럼 차가워져 있었다. 야곱이 "아버지, 아버지"라고 불렀으나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야곱은 아브라함이 죽었다는 것을 알았다.
4 그러자 아브라함이 품에서 일어나 달려가 어머니 리브가에게 알리니, 리브가는 밤에 이삭에게 가서 이 소식을 전하고, 야곱도 그들과 함께 등불을 들고 가서 아브라함이 죽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5 그러자 이삭은 아버지 얼굴에 엎드려 울며 입맞추었다.
6 아브라함의 집에서 음성이 들리니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일어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가서 아브라함과 그의 온 집안 사람들을 위하여 통곡하며 크게 울었다.
7 그의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은 그를 그의 아내 사라 곁에 있는 두 동굴에 묻고, 그의 집안 모든 남자와 이삭과 이스마엘과 그들의 모든 아들, 그리고 케투라의 모든 아들들이 그 자리에서 사십 일 동안 그를 위해 통곡하였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을 위한 통곡의 날이 끝났다.
8 그리고 그는 삼 희년 사 주간, 곧 백칠십오 년을 살아서 장수하여 그의 생애를 마쳤습니다.
9 조상들의 수명은 19 년이었습니다. 그러나 홍수 후에 그들의 수명은 19 년보다 짧아졌고, 희년이 줄어들었으며, 여러 가지 환난과 악한 행실로 말미암아 빨리 늙고 수명이 다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아브라함만은 예외였습니다.
10 아브라함은 모든 행위에 있어서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였고, 평생토록 의롭게 살았으나, 보라, 그가 악행으로 말미암아 늙고 수명이 다하여 네 희년을 채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느니라.
11 그리고 이때부터 큰 심판의 날까지 일어나는 모든 세대는 두 희년이 채 되기도 전에 늙어 버리고, 나이가 들어 지식이 사라지며, 그들의 모든 지식이 없어질 것이다.
12 그 날에 만일 어떤 사람이 1 년 반을 살면, 사람들은 그에 대하여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는 오래 살았으나 그의 날 대부분은 고통과 슬픔과 환난으로 가득 차 있고, 평화가 없도다.'
13 재앙이 재앙을 낳고, 상처가 상처를 낳고, 환난이 환난을 낳고, 악한 소식이 악한 소식을 낳고, 질병이 질병을 낳고, 이와 같은 모든 악한 심판이 연이어 닥칠 것이니 곧 질병과 멸망, 눈과 서리와 얼음, 열병과 오한과 무기력과 기근과 죽음과 칼과 포로 생활과 온갖 재난과 고통이 닥칠 것이다.

14 이 모든 것이 악한 세대에게 임할 것이니, 그들은 땅에서 범죄하며 그들의 행위는 더러움과 음행과 더러움과 가증한 일이다.
15 그때에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조상들의 수명은 천 년에 이르도록 길었고 좋았으나, 보라, 우리 수명은 사람이 오래 살아도 칠십 년이요, 강건하면 팔십 년이 되고, 그마저도 악하니, 이 악한 세대에는 평화가 없도다.'
16 그 세대에 아들들은 그들의 아버지와 장로들을 죄와 불의와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과 그들이 행하는 큰 악행,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과 맺으신 언약, 곧 그들의 모든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키고 행하며 좌우로 치우치지 않기로 한 언약을 저버린 것에 대하여 책망할 것이다.
17 이는 모든 사람이 악을 행하였고 모든 입이 불의를 말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는 더럽고 가증하며 그들의 모든 길은 더럽고 불결하고 파멸이기 때문입니다.
18 보라, 그들의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땅이 멸망할 것이며, 포도나무 씨도 없고 기름도 없을 것이다. 이는 그들의 행위가 완전히 거짓되었기 때문이며, 짐승과 가축과 새와 바다의 모든 물고기와 모든 것이 사람의 자녀들 때문에 함께 멸망할 것이다.
19 그들은 율법과 언약 때문에 서로 다툴 것이다. 젊은이와 노인, 노인과 젊은이, 가난한 자와 부자, 미천한 자와 높은 자와, 거지와 군주가 다툴 것이다. 이는 그들이 계명과 언약과 절기와 달과 안식일과 희년과 모든 법도를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20 그들이 활과 칼과 전쟁으로 그들을 되돌리려 할 것이나, 그들이 서로 간에 많은 피를 흘리기 전에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21 그리고 살아남은 자들은 악에서 돌이켜 의의 길로 돌아오지 않고, 모두 속임수와 재물에 도취되어 이웃의 것을 모두 빼앗고, 큰 이름을 부르되 진실도 아니고 의로움도 아니며, 지성소를 그들의 부정한 행위와 더러움으로 더럽힐 것이다.
22 여호와께서 이 세대의 행위에 큰 형벌을 내리실 것이며, 그들을 칼과 심판과 포로로 잡아먹히고 약탈당하게 하실 것이다.
23 그리고 그분은 자비도 없고 동정도 없는 이방인의 죄인들을 깨우쳐 그들을 대적하게 하실 것이다. 그들은 노인이나 젊은이나 가리지 않고 아무도 차별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악하고 악을 행하기에 강한 자들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폭력을 행사하고 야곱을 대적하여 범죄할 것이다. 땅 위에 많은 피가 흘려질 것이며, 그 피를 모을 자도 없고 묻을 자도 없을 것이다.
24 그 날에 그들은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이방인 죄인들의 손에서 구원받기를 간구하고 기도할 것이나, 아무도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25 아이들의 머리는 희끗희끗해지고, 삼 주 된 아이가 백 살 노인처럼 보이며, 그들의 키는 환난과 압제로 인해 망가질 것이다.
26 그 날에 아이들은 율법을 공부하고 계명을 찾으며 의의 길로 돌아오기 시작할 것이다.
27 그 날들은 점점 많아져서 그 사람들의 자녀들 가운데 천 년에 이를 때까지 이르리라. 그 날들의 수는 이전의 날 수보다 훨씬 많아지리라.
28 그리고 노인도 없고 자기 수명을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도 없을 것이니, 모두가 어린아이와 젊은이와 같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29 그들은 평생토록 평화와 기쁨으로 살 것이며, 사탄도 없고 악한 멸망시키는 자도 없을 것이니, 그들의 모든 날이 복과 치유의 날이 될 것이다.
30 그때에 주께서 그의 종들을 고치시리니 그들이 일어나 큰 평화를 보고 그들의 대적들을 쫓아내리라. 의인들은 보고 감사하며 영원무궁토록 즐거워하리라. 그리고 그들의 모든 심판과 모든 저주가 그들의 원수들에게 임하는 것을 보리라.
31 그들의 뼈는 땅에 묻히고 그들의 영혼은 큰 기쁨을 누리며 그들은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며 수많은 자와 그를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분임을 알게 될 것이다.
32 모세야, 너는 이 말씀을 기록하라. 이는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하늘의 돌판에 기록되어 영원한 세대를 위한 증거가 되기 때문이니라.

제 24 장

1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들 이삭을 축복하시매 이삭이 헤브론에서 나와 환상의 우물에 이르러 이 희년 셋째 주 첫째 해(서기 2073 년)에 7 년 동안 거주하였더라.
2 그리고 넷째 주 첫째 해에 그 땅에 기근이 시작되었는데, 이는 아브라함 시대에 있었던 첫 번째 기근 외에 또 다른 기근이었습니다.
3 야곱이 렌틸콩 죽을 끓이고 있는데, 에서가 밭에서 돌아와 배가 고파서 형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이 붉은 죽을 내게 좀 주시오." 야곱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네 장자권을 내게 팔면 내가 빵과 이 렌틸콩 죽을 좀 주겠소."
4 그러자 에서가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나는 죽을 것이다. 이 장자권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5 '그가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그것을 네게 주겠다 하시니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노라 하시매 그가 그에게 맹세하더라.'
6 야곱이 그의 형 에서에게 빵과 죽을 주어 배부르게 먹게 하였더니 에서가 장자권을 업신여기었다. 야곱이 에서에게 장자권 대신 붉은 죽을 주었으므로 에서의 이름이 에돔이라 불리게 되었다.
7 그리하여 야곱이 장로가 되었고, 에서는 그의 지위에서 밀려났다.
8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이삭은 이 주간 둘째 해에 이집트로 내려가 블레셋 왕 아비멜렉을 만나러 게라르로 갔다.
9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일러 줄 땅에 거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축복하리라.'

10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이 모든 땅을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리라. 내가 네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네 자손에게 이 모든 땅을 주리라.
11 네 자손을 통하여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니 이는 네 조상이 내 목소리에 순종하여 내 명령과 계명과 법도와 규례와 언약을 지켰고, 이제 내 목소리에 순종하여 이 땅에 거주하기 때문이니라.
12 그리고 그는 겔라르에 삼 주 동안 거주하셨습니다.
13 아비멜렉은 그와 그의 모든 소유물에 대하여 이렇게 명령하였다. '누구든지 그를 건드리거나 그의 소유물을 건드리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14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서 강성하여 많은 재산을 얻었으니, 소와 양과 낙타와 나귀와 큰 가족을 거느리게 되었습니다.
15 이삭은 블레셋 땅에 씨를 뿌려 백 배의 소출을 거두었으므로 그의 부자가 되었고 블레셋 사람들은 그를 시기하였다.
16 아브라함이 살아 있을 때 그의 종들이 파놓은 모든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막고 흙으로 메워 버렸습니다.
17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훨씬 강하니 우리를 떠나가라 하시매 이삭이 일곱째 주 첫째 해에 그곳을 떠나 게라르 골짜기에 거하였더라
18 그들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종들이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는데, 그 우물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막아 놓았던 것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아브라함이 이름을 붙였던 대로 그 우물들의 이름을 지었다.
19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 우물을 파서 생수를 발견했는데, 게라르의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들과 다투며 "이 물은 우리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삭은 그들이 우리에게 사악하게 굴었으므로 그 우물의 이름을 '배신'이라 불렀습니다.
20 그들이 두 번째 우물을 팠는데, 그 우물을 차지하려고 다투었더니 이삭이 그 이름을 '원수'라 불렀다. 이삭이 거기서 일어나 다른 우물을 팠는데, 이번에는 다투지 않았다. 이삭이 그 우물의 이름을 '방'이라 불렀더니 이삭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방을 마련해 주셨으니 우리가 이 땅에서 번성하게 되었도다' 하였다.
21 그리고 그는 거기서부터 맹세의 우물로 올라갔으니 이는 [2108 AM] 44 주년 희년 첫째 주 첫째 해였다.
22 그 밤, 곧 첫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네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축복하고 네 자손을 땅의 모래처럼 많게 하리라. 이는 내 종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23 그리고 그는 거기에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먼저 쌓았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께 제물을 바쳤다.
24 그들이 우물을 파니 생수가 나왔습니다.
25 이삭의 신하들이 다른 우물을 팠으나 물을 찾지 못하였다. 그들이 가서 이삭에게 물을 찾지 못했다고 보고하자, 이삭이 말했다. "내가 오늘 블레셋 사람들에게 맹세했는데, 이 일이 우리에게 알려졌구나."
26 그리고 그는 그곳 이름을 맹세의 우물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거기서 아비멜렉과 그의 친구 아후삿, 그리고 총독 피콜 또는 그의 군대에게 맹세했기 때문이다.
27 이삭은 그날 자기가 마지못해 그들과 화해하기로 맹세했음을 알았다.
28 그날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을 저주하며 말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진노와 분노의 날까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조롱거리와 저주거리와 진노와 분노의 대상으로 삼으시어 죄인들인 이방인들과 깃딤 사람들의 손에 들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29 원수와 킷팀의 칼을 피해 살아남은 자는 누구든지 의로운 민족이 하늘 아래에서 심판하여 뿌리 뽑을 것이니, 그들은 대대로 내 자손의 원수가 되어 땅 위에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30 그들에게는 남은 자가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며, 심판의 진노의 날에 구원받을 자가 하나도 없을 것이다. 블레셋 자손은 모두 멸망하고 뿌리 뽑히고 땅에서 쫓겨날 것이기 때문이다. 가브도림 자손에게는 땅에 이름도 자손도 남지 않을 것이다.
31 그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서 내려올 것이요, 땅에서 강성할지라도 거기서 끌려나올 것이요, 여러 나라 가운데 숨을지라도 거기서 뿌리 뽑힐 것이요, 스올에 내려갈지라도 거기서 큰 심판을 받을 것이요, 거기서 평화를 누리지 못할 것이다.
32 만일 그가 사로잡혀 가면, 그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의 손에 의해 길에서 죽임을 당할 것이며, 온 땅에 그의 이름도 자손도 남지 않을 것이니, 그는 영원한 저주 속으로 떠날 것이다.
33 그러므로 그에 관하여 하늘의 돌판에 이와 같이 기록되고 새겨져 있으니, 심판 날에 그에게 행해질 일이라. 그리하여 그가 땅에서 뿌리 뽑히게 될 것이다.

제 25 장

1 그리고 이 희년의 이 주간 둘째 해에 리브가가 자기 아들 야곱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네 형 에서처럼 가나안 여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에서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그들의 부정한 행위로 내 마음이 괴로워졌느니라. 그들의 모든 행위는 음행과 정욕뿐이요 그들에게는 의가 없고 악하니라.
2 그리고 내 아들아, 나는 너를 매우 사랑하며, 내 마음과 애정은 낮과 밤 매 순간 너를 축복한다.
3 이제 내 아들아, 내 말을 잘 듣고 어머니의 뜻을 행하여 이 땅의 딸들을 아내로 맞이하지 말고 내 아버지 집안, 곧 내 아버지 친척의 딸들을 아내로 맞이하여라. 네가 내 아버지 집안의 딸들을 아내로 맞이하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시고 네 자손은 의로운 대대로 거룩한 자손이 될 것이다.'
4 그때 야곱이 그의 어머니 리브가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아홉 살이 되었는데, 아직 여자를 알지도 못하고, 어떤 여자와도 관계를 맺은 적도 없고, 약혼한 적도 없으며, 가나안 여인 중에서 아내로 맞이할 생각조차 해 본 적이 없습니다.'

5 어머니, 저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말씀을 기억합니
다. 그는 저에게 가나안 여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아버지 집안의 자손과 친족 중에서 아내를 취하
라고 명하셨습니다.
6 내가 전에 네 형 라반에게 딸들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기로 마음먹었노
라.
7 그러므로 나는 평생토록 죄를 짓거나 타락하지 않도
록 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
께서 정욕과 음행에 관하여 내게 많은 계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8 그리고 그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이십
이 년 동안 내 형은 나와 다투며 자주 내게 말하기를 '형
님, 내 두 아내의 여동생을 아내로 맞이하십시오' 하였
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의 말대로 하기를 거부합니다.
9 어머니, 내가 평생 동안 가나안 자손의 딸 중에서 아
내를 맞이하지 않겠으며, 내 형처럼 악한 일을 행하지
않겠습니다.
10 어머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어머니의 뜻을
행하고 정직하게 행하며 영원히 타락하지 않겠습니다.
11 그러자 마리아는 얼굴을 하늘로 향하고 손가락을 펴
고 입을 열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지극히 높으신 하
나님을 찬양하고 감사와 찬미를 드렸다.
12 그러자 그녀가 말했습니다. '주 하나님께 찬양을 드
립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야곱을 순결한 아들과 거룩한
씨로 주셨습니다. 그는 주님의 것이며, 그의 자손도 영
원토록 모든 세대에 걸쳐 주님의 것이 될 것입니다.'
13 주님, 그를 축복하시고 내 입에 의로운 축복을 주셔
서 내가 그를 축복하게 하소서.
14 그 시간에 의의 영이 그녀의 입에 내려왔으므로, 그
녀는 두 손을 야곱의 머리에 얹고 말했습니다.
15 의의 주,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여, 찬양받으소서. 주
님께서 모든 세대에 걸쳐 당신을 축복하시기를 원합니
다. 내 아들아, 주님께서 너에게 의의 길을 보여 주시고,
네 자손에게 의를 나타내시기를 원합니다.
16 주께서 네 평생 동안 네 아들을 많이 주시고, 그들이
일 년의 달 수만큼 많아지게 하시며, 그들의 자손이 하
늘의 별보다 더 많아지고, 그 수가 바다의 모래보다 더
많아지게 하소서.
17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 아름다운 땅을 주시기
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영원
히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듯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땅을 영원히 소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18 내 아들아, 내 평생 동안 네게서 복된 자녀들이 태어
나게 하시고, 네 자손이 모두 복되고 거룩한 씨가 되게
하소서.
19 네가 살아생전 어머니의 마음을 새롭게 하였으므로,
너를 낳으신 어머니의 태가 너를 축복하고, 내 애정과
젖가슴이 너를 축복하며, 내 입과 혀가 너를 크게 찬양
하노라.
20 번성하여 온 땅에 퍼지게 하소서. 주의 자손이 하늘
과 땅의 기쁨 가운데 영원토록 온전하게 하소서. 주의
자손이 기뻐하게 하소서. 큰 평화의 날에 평화를 누리
게 하소서.
21 주의 이름과 주의 자손이 영원토록 이어지게 하소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게 하소서.
의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거하게 하소서. 그들을 통
하여 그분의 성소가 영원토록 세워지게 하소서.
22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거짓으
로 저주하는 모든 육체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23 그리고 그녀는 그에게 입맞추며 말했습니다. '세상
의 주님께서 너를 사랑하시기를, 네 어머니의 마음과
애정처럼 너를 기뻐하시고 축복하시기를.' 그리고 그녀
는 축복을 그쳤습니다.

제 26 장

1 그리고 이 주간의 일곱째 해에 이삭이 그의 맏아들 에
서를 불러 이르되 내가 늙었고 내 눈이 흐려져서 내가
죽을 날을 알지 못하노라 하였더라
2 이제 네 사냥 도구인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판으로
나가서 나를 위해 (사슴고기) 사냥을 하여 내 영혼이 좋
아하는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내게 가져다 주어 내가
먹게 하고, 내가 죽기 전에 너를 축복하게 하거라.
3 그러나 리브가는 이삭이 에서와 이야기하는 것을 들
었다.
4 에서가 아침 일찍 들판으로 나가 사냥을 하여 잡아 아
버지께 가져다 드리려고 했다.
5 리브가가 자기 아들 야곱을 불러 이르되 내가 네 아버
지 이삭이 네 형 에서에게 이르기를 “나를 위해 사냥하
여 맛있는 고기를 만들어 내게 가져오라” 하시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6 내가 죽기 전에 주님 앞에서 너를 축복하며 먹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이제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명령하는
것을 순종하여라. 네 양 떼에게 가서 좋은 새끼 염소 두
마리를 가져오너라. 내가 그것으로 네 아버지가 좋아하
시는 맛있는 고기를 만들어 주겠다. 너는 그것을 네 아
버지께 가져다 드리너라. 그러면 아버지가 죽기 전에
주님 앞에서 너를 축복하며 드실 수 있을 것이다. 그리
하면 너도 복을 받을 것이다.
7 야곱이 그의 어머니 리브가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께서 드시고 싶어 하시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제
가 막지 않겠습니다. 다만, 어머니, 아버지께서 제 목소
리를 알아듣고 저를 만지려 하실까 두렵습니다.'
8 너도 알다시피 나는 털이 없고 내 형 에서는 털이 많
으니, 내가 그의 눈앞에서 악인으로 보이고 그가 명하
지 않은 일을 행하면 그가 내게 노할 것이며, 나는 축복
이 아니라 저주를 자초하게 될 것이다.'
9 그러자 그의 어머니 레베카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아, 네가 나에게 저주를 내리더라도 내 말만은 들
어라.'
10 야곱은 그의 어머니 리브가의 말을 듣고 가서 살찐
새끼 염소 두 마리를 잡아 어머니에게 가져왔습니다.
어머니는 그 염소들로 야곱이 좋아하는 맛있는 고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11 그리고 리브가는 집에 함께 있던 맏아들 에서의 아
름다운 옷을 가져다가 둘째 아들 야곱에게도 입히고,
염소 가죽을 그의 손과 목덜미에 덮어 주었다.

12 그리고 그녀는 자기가 준비한 고기와 빵을 아들 야
곱의 손에 주었다.
13 야곱이 아버지에게 들어가 말했습니다. '저는 아버
지의 아들입니다.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다 했습니다.
일어나 앉으셔서 제가 잡은 고기를 드십시오. 그러면
아버지께서 저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14 이삭이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어찌하여 그토
록 빨리 찾았느냐?
15 야곱이 이르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찾게 하
셨음이라 하였더라
16 그러자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게 가까이 오너라,
내 아들아, 네가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만져보
겠다 하였더라.
17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서 그를 만져 보
고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손은 에
서의 손입니다.'
18 그러나 이삭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늘
의 섭리로 그의 지각 능력을 없애 버린 것이었고 이삭
은 그의 손에 형 에서의 털처럼 털이 많아 그를 알아보
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19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내 아들 에서냐? 하니 그가 이르
되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다. 그가 이르시되 네가 잡은
것을 내게로 가져오너라 내 아들아, 내가 먹게 하노라.
그리하면 내 마음이 너를 축복하리라 하셨다.
20 그가 음식을 가져다 주어 그가 먹게 하였고, 포도주
를 가져다 주어 그가 마시게 하였다.
21 그러자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아, 내게 가까이 와서 입맞추렴.'
22 그가 가까이 나아가 그에게 입맞추고 그의 옷 향기
를 맡고 축복하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의 향기는 여호
와께서 복 주신 풍성한 밭의 향기 같도다' 하시니라
23 여호와께서 네게 하늘의 이슬과 땅의 이슬을 주시고
곡식과 기름을 풍성하게 주시리니 나라들이 너를 섬기
며 백성들이 네게 절하리라
24 네 형제들을 다스리고 네 어머니의 아들들이 네 앞
에 절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나와 내 아버지 아브라함
에게 베푸신 모든 복을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미치
게 하라.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
는 자는 복을 받을지어다.
25 이삭이 아들 야곱에게 축복을 마치고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서 나와 숨었을 때, 그의 형 에서가 사냥을 마
치고 돌아왔다.
26 그리고 그는 맛있는 고기를 만들어 아버지께 가져가
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일어나셔서 제가 잡은 사슴고
기를 드십시오. 그러면 아버지의 영혼이 저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27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
가 대답하노라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아버
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였습니다.
28 그러자 이삭이 매우 놀라서 말했습니다. '누가 사냥
하여 그것을 내게 가져왔느냐? 내가 네가 오기 전에 그
것을 모두 먹고 그에게 복을 주었으니, 그와 그의 모든
자손이 영원히 복을 받을 것이다.'
29 에서가 아버지 이삭의 말을 듣고 매우 크고 통곡하
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 저도 축복해 주십시오.'
하였더라.
30 그러자 그가 그에게 이르되 네 형이 간교하게 와서
네 복을 빼앗아 갔느니라. 그가 이르되 이제야 그의 이
름이 야곱이라 불리는 이유를 알겠도다. 보라, 그가 두
번이나 나를 몰아냈고, 내 장자권을 빼앗았으며, 이제
는 내 복을 빼앗아 갔도다.
31 그가 이르되 아버지여, 저를 위해 복을 예비해 두지
않으셨습니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라
내가 그를 네 주인으로 삼았고 그의 모든 형제들을 그
의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족하게
하여 그를 강하게 하였으니 내 아들아, 이제 내가 너를
위해 무엇을 해 주겠느냐?
32 그러자 에서가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말했습니다. '
아버지, 축복이 하나밖에 없으십니까? 저에게도 축복
을 내려주십시오.'
33 그러자 에서가 큰 소리로 울었다. 이삭이 그에게 대
답하여 이르되, 보라, 네 거처는 땅의 이슬이 내리는 곳
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하늘의 이슬도 내리는 곳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것이다.
34 네가 칼로 살 것이며 네 형제를 섬길 것이다. 네가 크
게 번성하여 그의 멍에를 네 목에서 벗어던질 때에 너
는 죽음에 이르는 큰 죄를 지을 것이며 네 자손은 하늘
아래에서 뿌리 뽑힐 것이다.
35 에서가 아버지 야곱이 자신에게 준 축복 때문에 야
곱을 계속해서 위협하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의 장례가 치러지면 내 동생 야곱을 죽여 버리겠다.'

제 27 장

1 그리고 리브가는 맏아들 에서의 말을 꿈에서 듣게 되
었고, 리브가는 사람을 보내어 둘째 아들 야곱을 불러
왔다.
2 그리고 그에게 이르되 '보라, 네 형 에서가 너에게 복
수하여 너를 죽일 것이다.'
3 그러므로 내 아들아, 내 말을 듣고 일어나 하란에 있
는 내 형 라반에게로 피난하여 가서, 네 형의 노여움이
가라앉고 너에 대한 분노를 거두어 네가 저지른 모든
일을 잊어버릴 때까지 며칠 동안 그와 함께 머물러 있
으라. 그러면 내가 사람을 보내 너를 거기서 데려오겠
다.'
4 야곱이 말했습니다.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만일 그
가 나를 죽이려 한다면, 내가 그를 죽이겠습니다.'
5 그러나 그녀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하루에 두 아들을
모두 잃는 슬픔을 겪지 않게 해 주십시오.'
6 야곱이 그의 어머니 리브가에게 말했습니다. '보십시
오, 어머니도 아시다시피, 제 아버지는 늙으시고 눈이
침침하셔서 앞을 잘 보지 못하십니다. 제가 아버지를
떠나 어머니 곁을 떠나면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좋지 않
을 것입니다. 제가 아버지를 떠나 어머니 곁을 떠나면
아버지께서 노하셔서 저를 저주하실 것입니다. 저는 가
지 않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실 때에야 가겠습
니다.'

7 그러자 리브가가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들어가서 그에게 이야기하면, 그가 너를 보내줄 것이다.'
8 그러자 리브가가 들어가서 이삭에게 말했습니다. "에서가 헷의 두 딸을 아내로 맞이했기에 저는 제 삶이 너무나 싫습니다. 만일 야곱이 이 땅의 딸들 중에서 이런 여자들을 아내로 맞이한다면, 제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가나안의 딸들은 악합니다."
9 이삭이 야곱을 불러 축복하고 훈계하며 이르되 '가나안의 딸들 중에서 누구와도 결혼하지 말라.
10 일어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네 어머니의 아버지인 베투엘의 집으로 가서, 네 어머니의 오빠인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여라.
11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시고 너를 번성하게 하시어 네가 여러 민족의 무리가 되게 하시고 내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셔서 네가 나그네로 살던 땅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모든 땅을 상속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 아들아, 평안히 가라.
12 이삭은 야곱을 보내어 메소포타미아로 갔는데, 그곳에는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빠인 시리아 사람 베투엘의 아들 라반이 있었다.
13 야곱이 메소포타미아로 떠나간 후에 리브가는 아들을 잃고 슬퍼하며 울었다.
14 이삭이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누이여 내 아들 야곱 때문에 울지 말라 그가 평안히 가고 평안히 돌아올 것이니라
15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그를 모든 악에서 지키시고 그와 함께하시리니, 그의 평생 동안 그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16 내가 아노니 그가 어디로 가시든지 모든 일에 형통하실 것이며, 그가 평안히 우리에게 돌아오실 때까지, 우리가 평안히 그를 뵙게 될 것이다.
17 내 누이여, 그로 인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는 올바른 길을 걷고 있으며 온전한 사람입니다. 그는 신실하며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울지 마십시오.
18 이삭은 아들 야곱 때문에 리브가를 위로하고 그를 축복하였다.
19 야곱은 맹세의 우물에서 출발하여 하란으로 가려고 이 주 둘째 주의 첫째 해에 산 위의 루스 곧 베델에 이르렀는데, 이 주의 첫째 달 초하루(오전 21 시 15 분)에 그곳에 이르러 저녁에 길에서 서쪽으로 돌아서서 거기서 잤습니다. 해가 졌기 때문입니다.
20 그리고 그는 그곳의 돌 하나를 가져다가 나무 아래 머리맡에 두고 홀로 길을 가다가 잠이 들었다.
21 그날 밤 예수께서 꿈을 꾸셨는데, 땅 위에 사다리가 세워져 있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었으며, 주의 천사들이 그 사다리를 오르내리고 있었고, 주께서 그 사다리 위에 서 계셨습니다.
22 그리고 그분은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네가 자고 있는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
23 네 자손은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며, 너는 서쪽과 동쪽, 북쪽과 남쪽으로 번성할 것이요, 너와 네 자손을 통하여 모든 민족의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24 보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 줄 것이며, 너를 다시 이 땅으로 평안히 인도해 올 것이다.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25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 말했습니다. '참으로 이곳은 여호와의 집이로다. 그런데 나는 그것을 알지 못했구나.' 그는 두려워하며 말했습니다. '이곳은 참으로 무서운 곳이다.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며, 하늘의 문이다.'
26 야곱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머리 밑에 두었던 돌을 가져다가 표징으로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다. 그러나 그곳의 원래 이름은 루스였다.
27 야곱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만일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하시고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며 내게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셔서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이 곳에 세운 이 돌을 표징으로 삼아 여호와의 성전이 되며 주께서 내게 주시는 모든 것의 십일조를 주께 바치겠습니다.

제 28 장

1 그리고 그는 여행을 떠나 동방 땅에 이르러 리브가의 오빠 라반을 만났고, 그와 함께 지내며 그의 딸 라헬을 위해 일주일 동안 그를 섬겼다.
2 그리고 셋째 주의 첫째 해에 [2122 년]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7 년 동안 당신을 섬긴 내 아내를 내게 주시오. 하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네 아내를 네게 주겠노라 하였더라.
3 라반이 잔치를 베풀고 그의 맏딸 레아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아내로 주고, 그의 여종 질바를 시녀로 주었다. 야곱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레아가 라헬인 줄로 생각했다.
4 야곱이 그녀에게 들어가 보니, 그녀는 레아였다. 야곱은 라반에게 화를 내며 말했다.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내가 라헬 때문에 당신을 섬긴 것이지 레아 때문에 섬긴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나에게 불공평하게 대하느냐?'
5 "네 딸을 데리고 가거라. 네가 내게 악을 행하였도다." 야곱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였다. 레아는 눈이 약했지만 용모가 아름다웠고, 라헬은 눈도 아름답고 용모도 아름다웠기 때문이다.
6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우리 나라에서는 맏딸보다 맏딸을 먼저 주는 것이 관습이 아니니라. 이는 옳지 아니하니라. 하늘의 계명에 이르기를 맏딸보다 맏딸을 먼저 주고 그 다음에 맏딸을 주어야 하느니라. 이같이 행하는 자는 하늘에 죄악이 기록되리니, 이 일을 행하는 자는 의롭지 못하느니라. 이는 여호와 앞에서 악한 일이니라.
7 그리고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명하여 그들이 이런 일을 하지 못하게 하라. 맏이를 주기 전에는 동생을 받거나 주지 못하게 하라. 이는 매우 악한 일이다.

8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이번 명절 칠 일만 지나면 내
가 라헬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면 너는 지난주처럼 내
양 떼를 돌보며 칠 년 동안 나를 섬길 수 있을 것이다.
9 레아의 축제가 칠 일 지난 날에 라반은 라헬을 야곱에
게 주어 칠 년 동안 자기를 섬기게 하였고, 질바의 자매
빌하를 라헬의 여종으로 주었다.
10 그리고 그는 라헬을 위하여 칠 년을 더 섬겼으니, 레
아는 그에게 아무 대가 없이 주어졌기 때문이다.
11 여호와께서 레아의 태를 여시니 그녀가 임신하여 야
곱에게 아들을 낳았으니 야곱이 그의 이름을 르우벤이
라 하였더라. 그 날은 아홉째 달 열넷째 날, 셋째 주 첫
째 날이었더라. [2122 AM]
12 그러나 라헬의 태는 닫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레아
는 미움을 받고 라헬은 사랑을 받는 것을 보셨음이라.
13 야곱이 다시 레아와 동침하여 레아가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낳았으니, 야곱이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 불렀다.
이는 열 번째 달 스물한 번째 날, 이 주간 삼 년째 되는
해였다. [오전 21:24]
14 야곱이 다시 레아와 동침하여 그녀가 임신하여 셋째
아들을 낳았으니, 야곱은 그 이름을 레위라 불렀다. 이
는 이 주간의 여섯째 해 첫째 달 초하루에 일어난 일이
었다. [오전 21 시 27 분]
15 야곱이 다시 그녀와 동침하여 그녀가 임신하여 넷째
아들을 낳았으니, 야곱은 그 이름을 유다라 지었다. 이
는 셋째 달 열다섯째 날, 넷째 주 첫째 해였다. [2129
AM]
16 이 모든 일 때문에 라헬은 레아를 시기했습니다. 레
아는 아이를 낳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라헬은 야곱에게
“제게 아이를 주세요”라고 말했습니다. 야곱은 “내가
네 태중의 열매를 주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버렸느
냐?”라고 대답했습니다.
17 라헬이 레아가 야곱에게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 네 아들을 낳은 것을 보고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
내 여종 빌하와 동침하여 그녀가 임신하여 내게 아들을
낳게 하소서.' (그리고 라헬은 자기 여종 빌하를 야곱에
게 아내로 주었습니다.)
18 그가 그녀와 동침하여 그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
으니, 그가 그 이름을 단이라 불렀으니, 이는 6 월 9 일, 6
년 3 주 차에 해당하였다. [2127 AM]
19 야곱이 다시 빌하와 동침하여 임신하여 야곱에게 또
다른 아들을 낳았는데, 라헬은 그 아들의 이름을 납달
리라 지었다. 이는 일곱째 달 다섯째 날, 넷째 주 둘째
해에 일어난 일이었다. [오전 21 시 30 분]
20 레아가 자기가 아이를 낳지 못하게 된 것을 보고 라
헬을 시기하여, 자기 여종 질바를 야곱에게 아내로 주
니, 질바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고, 레아는 그 이름을
갓이라 불렀다. 그 날은 넷째 주 삼 년째 해 여덟째 달
열두째 날이었다. [2131 AM]
21 그가 다시 그녀와 동침하여 그녀가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낳았으니, 레아가 그 이름을 아셀이라 불렀으니,
이는 넷째 주 다섯째 해 열한째 달 둘째 날이었다. [2133
AM]
22 야곱이 레아에게 들어가니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고 그의 이름을 잇사갈이라 불렀으니 이는 넷째 해
넷째 주 넷째 달 넷째 날에[2132 AM] 그를 유모에게 주
었다.
23 야곱이 다시 그녀와 동침하여 그녀가 임신하여 아들
과 딸 둘을 낳았는데, 아들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고
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으니, 이는 제 7 월 7 일, 제 6 년
넷째 주에 거행되었다. [2134 AM]
24 여호와께서 라헬에게 은혜를 베푸시어 그녀의 태를
열어 주시니, 그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고, 그 이름
을 요셉이라 불렀으니, 이는 여섯째 해 넷째 주 넷째 달
초하루에 일어난 일이었다. [오전 21 시 34 분]
25 요셉이 태어난 날에 야곱이 라반에게 말했습니다. '
내 아내들과 아들들을 내게 주시고, 내가 아버지 이삭
에게로 돌아가 집을 짓게 해 주십시오. 내가 당신의 두
딸을 위해 당신을 섬긴 기간이 다 되었으니 이제 아버
지 집으로 가겠습니다.'
26 라반이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내 곁에 머물면서 품
삯을 받고, 내 양 떼를 돌보아 주어라.'
27 그들은 서로 합의하여 그에게 검은색, 얼룩무늬, 흰
색으로 태어난 어린 양과 새끼 염소를 품삯으로 주기로
했습니다.
28 그러자 모든 양들이 얼룩무늬와 점박이와 검은 무늬
를 비롯한 여러 가지 무늬를 가지고 새끼를 낳았는데,
얼룩무늬가 있는 양들은 야곱의 것이요, 얼룩무늬가 없
는 양들은 라반의 것이었다.
29 야곱의 소유는 매우 많아져서 소와 양과 나귀와 낙
타와 남종과 여종을 거느리게 되었습니다.
30 라반과 그의 아들들은 야곱을 시기하여 라반은 야곱
에게서 양 떼를 빼앗고 악의적인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
았다.

제 29 장

1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라반은 양털을 깎으러 갔는
데, 양떼들이 그에게서 사흘 길이나 떨어진 곳에 있었
다.
2 야곱은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가는 것을 보고 레아와
라헬을 불러 가나안 땅으로 함께 가자고 권유하였다.
3 예수께서 그들에게 꿈에서 본 모든 것, 곧 아버지 집
으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이야기하시니,
그들이 이르되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마다 우리도 함께
가겠습니다' 하더라.
4 야곱은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과 그의 조부의 아
브라함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일어나 아내들과 자녀들
을 데리고 그의 모든 소유를 가지고 강을 건너 길르앗
땅에 이르렀다. 야곱은 라반에게 그의 계획을 숨기고
말하지 않았다.
5 그리고 일곱째 해 넷째 주에 야곱은 첫째 달 스물한째
날에 길르앗으로 향하였다. 라반은 그를 뒤쫓아 셋째
달 열셋째 날에 길르앗 산에서 야곱을 따라잡았다.
6 여호와께서 야곱을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니, 밤에 꿈
에 나타나셔서 라반에게 말씀하셨느니라.
7 그 열다섯째 날에 야곱은 라반과 그와 함께 온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다. 그리고 그날 야곱은
라반에게 맹세하고, 라반도 야곱에게 맹세하여, 서로

악한 의도를 품고 길르앗 산을 건너가지 않겠다고 맹세하였다.
8 그리고 그는 거기에 증거로 무더기를 쌓았으니, 그 무더기의 이름을 따서 그곳을 '증거의 무더기'라 부르게 되었다.
9 그러나 전에는 그들이 길르앗 땅을 르바임 땅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 땅이 르바임 족속의 땅이었고 르바임 족속이 거기에서 태어났기 때문이라. 그들은 키가 10, 9, 8 에서 7 규빗에 이르는 거인들이었더라.
10 그들의 거주지는 암몬 자손의 땅에서 헤르몬 산까지 이르렀고, 그들의 왕국의 중심지는 카르나임과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와 미수르와 베온이었다.
11 여호와께서 그들의 악한 행위 때문에 그들을 멸망시키셨으니, 그들은 매우 악랄하였고 아모리 족속이 그들의 자리에 거하였으니, 그들도 악하고 죄악에 물들어 있었느니라. 오늘날 그들의 모든 죄를 온전히 범한 민족은 없으며, 그들은 더 이상 땅에서 오래 살지 못할 것이니라.
12 야곱은 라반을 돌려보내고 동방 땅 메소포타미아로 떠났으며, 야곱은 길르앗 땅으로 돌아왔다.
13 야곱은 아홉째 달 열한째 날에 얍복 강을 건넜습니다. 그날 그의 형 에서가 그에게 와서 그와 화해하고 세일 땅으로 떠났습니다. 야곱은 그곳에서 장막에 거했습니다.
14 그리고 이 희년의 다섯째 주 첫째 해에 [오전 2136 년] 그는 요단 강을 건너 요단 강 건너편에 거주하며, 양 떼를 바다에서부터 벳산과 도단과 아크랍빔 숲까지 방목하였다.
15 그리하여 그는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재산과 옷과 음식과 고기와 마실 것과 우유와 버터와 치즈와 골짜기에서 나는 대추야자를 보냈습니다.
16 그리고 그의 어머니 레베카에게도 일 년에 네 번, 즉 달의 시기 사이, 밭갈이와 추수 사이, 가을과 우기 사이, 겨울과 봄 사이에 아브라함의 망대에 이르도록 기도했습니다.
17 이삭은 맹세의 우물에서 돌아와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망대에 올라가서, 거기서 그의 아들 에서와 따로 살았습니다.
18 야곱이 메소포타미아로 갔을 때에 에서가 이스마엘의 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고, 그의 아버지와 그의 아내들의 모든 양 떼를 모아 세일 산으로 올라가서 거주하고, 그의 아버지 이삭을 맹세의 우물에 홀로 남겨 두었다.
19 이삭은 맹세의 우물에서 나와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망대에 거하였으니, 그 망대는 헤브론 산에 있었다.
20 야곱은 그때그때 아버지와 어머니께 보내던 모든 것을 그곳으로 보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부모님은 온 마음과 온 영혼을 다해 야곱을 축복했습니다.

제 30 장

1 그리고 여섯째 주의 첫째 해에 [2143 년 AM] 그는 평안히 넷째 달에 세겜 동쪽의 살렘으로 올라갔다.
2 그리고 그들은 야곱의 딸 디나를 그 땅의 통치자 하몰의 아들 히위 족속 세겜의 집으로 데려가서, 세겜이 디나와 동침하여 더럽혔는데, 디나는 열두 살 된 어린 소녀였다.
3 야곱은 그의 아버지와 그녀의 형제들에게 디나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게 해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세겜 사람들 때문에 노했습니다. 세겜 사람들이 그들의 누이 디나를 더럽혔고, 악한 의도로 그들에게 말하고 속이고 기만했기 때문입니다.
4 시므온과 레위가 갑자기 세겜에 와서 세겜의 모든 사람을 심판하고 그곳에서 발견하는 모든 사람을 죽여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누이 디나를 모욕하였기 때문이라.
5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의 딸이 더럽혀지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 이는 하늘에서 세겜 사람들의 모든 남자를 칼로 멸절시키라는 심판이 정해졌기 때문이니, 그들이 이스라엘에 수치를 안겨 주었기 때문이다.
6 여호와께서 그들을 야곱의 자손의 손에 넘겨주셔서 그들이 칼로 그들을 멸절시키고 심판을 내리게 하셨으니, 이는 이스라엘에서 다시는 처녀가 더럽혀지는 일이 없도록 하려 하심이라.
7 만일 이스라엘 사람 중에 누구든지 자기 딸이나 누이를 이방인의 자손에게 주려는 자가 있으면, 그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니, 돌로 쳐 죽여야 한다. 이는 그가 이스라엘에 수치를 끼쳤기 때문이다. 또 그 여자는 불에 태워 죽여야 한다. 이는 그녀가 자기 조상의 집안 이름을 욕되게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녀는 이스라엘에서 뿌리 뽑힐 것이다.
8 그리고 이스라엘에는 대대로 음행하는 여자와 더러운 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거룩한 땅이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을 더럽힌 자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 그들은 그를 돌로 쳐 죽일 것이다.
9 이는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 관하여 하늘의 돌판에 정하고 기록한 바와 같으니, 그것을 더럽히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며 돌로 쳐 죽임을 당할 것이다.
10 이 율법에는 기한도 없고, 사면도 없고, 속죄도 없으니, 자기 딸을 더럽힌 자는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뿌리 뽑힐 것이다. 이는 그가 자기 씨를 몰록에게 바치고 불경건하게 행하여 그것을 더럽혔기 때문이다.
11 모세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권면하여 그들의 딸들을 이방인에게 주지 말고, 또한 그들의 아들로 이방인의 딸들을 택하지 말라고 하라. 이는 여호와 앞에서 가증한 일이다.
12 그러므로 내가 율법의 말씀으로 너를 위해 세겜 사람들이 디나에게 행한 모든 일과 야곱의 자손들이 '우리는 할례받지 않은 남자에게 우리 딸을 주지 않겠다. 그것은 우리에게 수치가 될 것이다.'라고 말한 것을 기록해 두었다.
13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살아 있는 자들에게, 그리고 이방인의 딸들을 취하는 자들에게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정한 것이며 가증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14 만일 이스라엘이 이방인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거나, 이방인 남자에게 자기 딸을 주면 이 부정함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15 만일 그가 이런 일을 행하거나 부정한 일을 행하는 자들과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히는 자들과 그의 거룩한 이름을 모독하는 자들을 외면한다면, 온 나라가 그 사람의 모든 부정한 행위와 모독죄 때문에 함께 심판을 받을 것이다.
16 사람을 차별하지도 말고, 사람을 배려하지도 말고, 그에게서 과일과 제물과 번제물과 기름도 받지도 말고, 향기로운 냄새도 받지 않을 것이다. 성소를 더럽히는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와 여자는 이와 같이 될 것이다.
17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에게 이 증언을 하라. 세겜 사람들과 그들의 자손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보라. 그들이 야곱의 두 아들의 손에 넘겨져 고문을 당하며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것이 그들에게 의로 여겨졌고, 이것이 그들에게 의로 기록되었다.' 하였느니라.
18 레위 자손은 제사장 직분을 위해, 곧 레위 사람으로 택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들이 우리처럼 주님 앞에서 끊임없이 섬기게 하려 함이요, 레위와 그의 자손들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는 레위가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일어난 모든 자들에게 의와 공의와 복수를 행하는 데 열심을 냈음이니라.
19 그리하여 그들은 만물의 하나님 앞에서 그의 은혜와 의로움을 증거하기 위해 하늘의 돌판에 새겨 넣었습니다.
20 우리는 그 사람이 평생 동안 행한 의를 일 년 내내 기억하며, 천 대에 이르도록 기록할 것이요, 그와 그의 후손에게까지 전해질 것이며, 그는 친구요 의로운 사람으로 하늘의 돌판에 기록되었느니라.
21 내가 이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기록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그들이 죄를 짓지 말고 율법을 어기지 말고 자기들을 위하여 정한 언약을 깨뜨리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지켜서 친구로 기록되게 하라고 명하였다.
22 그러나 만일 그들이 범죄하고 온갖 더러운 일을 행하면, 그들은 하늘의 돌판에 대적자로 기록될 것이며, 생명책에서 지워질 것이며, 멸망할 자들의 책과 땅에서 뿌리 뽑힐 자들의 책에 기록될 것이다.
23 야곱의 자손들이 세겜을 죽인 날에 하늘에는 그들의 공의와 정직을 행하고 죄인들에게 복수했다는 기록이 축복으로 새겨졌습니다.
24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의 누이 디나를 세겜 집에서 데리고 나왔고, 세겜에 있는 모든 것, 곧 양과 소와 나귀와 모든 재산과 모든 가축 떼를 사로잡아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로 데려왔다.
25 그리고 그는 그들이 그 성읍을 칼로 함락시킨 것을 꾸짖었습니다. 이는 그가 그 땅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과 페리싯 사람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26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세겜 주변의 모든 성읍에 임하여 그들이 야곱의 자손을 추격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혔음이라.

제 31 장

1 그 달 초하루에 야곱이 자기 집안 모든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는 몸을 정결하게 하고 옷을 갈아입고 일어나 벧엘로 올라가자. 내가 형 에서의 얼굴을 피해 도망치던 날에 그분께 서원한 곳이 바로 벧엘이다. 그분께서 나와 함께하시어 나를 이 땅으로 평안히 인도해 주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 신들을 내쫓으라.
2 그들이 이방 신상들과 귀에 꽂은 것과 목에 걸고 있던 것과 라헬이 아버지 라반에게서 훔친 우상들을 모두 버리고 야곱에게 주었다. 야곱은 그것들을 불태우고 부수어 없애 버리고 세겜 땅에 있는 상수리나무 아래에 숨겼다.
3 그리고 예수께서는 일곱째 달 초하루에 벧엘로 올라가셔서 자기가 자던 곳에 제단을 쌓고 기둥을 세우고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에게 사람을 보내어 자기 제사에 참여하도록 하셨다.
4 그러자 이삭이 말했습니다. '내 아들 야곱을 오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그를 보게 해 주십시오.'
5 야곱은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를 만나러, 곧 아버지 아브라함의 집으로 갔다. 그는 두 아들 레위와 유다를 데리고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에게로 갔다.
6 그리고 리브가는 야곱에게 입맞추고 껴안으려고 망대에서 나와 망대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녀는 '보십시오, 당신의 아들 야곱이 왔습니다'라는 말을 듣고 기운을 차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야곱에게 입맞추었습니다.
7 그녀가 그의 두 아들을 보고 그들을 알아보며 말했습니다. "내 아들아, 이 아이들이 네 아들들이냐?" 그리고 그들을 껴안고 입맞추며 축복했습니다. "너희를 통해 아브라함의 자손이 번성할 것이며, 너희는 땅에서 복이 될 것이다."
8 야곱이 아버지 이삭이 누워 있는 방으로 들어가니 두 아들이 그와 함께 있었다. 야곱이 아버지의 손을 잡고 몸을 굽혀 입맞추니 이삭이 아들 야곱의 목을 끌어안고 울었다.
9 그러자 이삭의 눈에서 어둠이 사라지고 야곱의 두 아들 레위와 유다가 보였다. 이삭이 말했다. '내 아들아, 이들이 네 아들들이냐? 너를 닮았구나.'
10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들은 참으로 네 아들들이니라. '네가 참으로 그들이 내 아들들이라는 것을 보았도다.'
11 그들이 예수께 가까이 나아오자,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에게 입맞추시고 그들을 함께 껴안으셨다.
12 그러자 예언의 영이 그의 입에 내려와서, 그는 오른손으로 레위를, 왼손으로 유다를 잡았다.
13 그리고 예수께서 먼저 레위에게로 돌아서서 그를 먼저 축복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만물의 하나님, 만세의 주께서 너와 네 자손을 만세 동안 축복하시기를 원한다."
14 주님께서 너와 네 자손에게 위대함과 큰 영광을 주시고, 너와 네 자손이 모든 육체 가운데서 그분께 나아가 그분의 성전에서 천사들과 거룩한 자들처럼 섬기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들처럼 네 자손도 영광과 위대함과 거룩함에 이르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들을 영원무궁토록 위대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15 그들은 재판관과 방백과 야곱 자손의 모든 후손의 지도자들이 될 것이며, 그들은 의롭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고, 그의 모든 심판을 의롭게 심판할 것이다. 그들은 야곱에게 나의 길을, 이스라엘에게 나의 길을 선포할 것이다. 그들의 입에는 여호와의 복이 있어 사랑하는 자의 모든 후손을 축복할 것이다.
16 네 어머니가 네 이름을 레위라 불렀으니, 그 이름이 옳도다. 너는 여호와와 합하여 야곱의 모든 자손과 함께할 것이니, 그의 식탁이 네 것이 되고 너와 네 자손이 그것을 먹을지니라. 네 식탁이 대대로 가득 차고 네 양식이 영원토록 떨어지지 아니할지니라.
17 너를 미워하는 자는 모두 네 앞에 엎드러지고, 네 원수는 모두 뿌리 뽑혀 멸망할지어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나라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18 그리고 유다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네게 힘과 권능을 주시어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를 밟아 버리게 하시고 너와 네 아들 중 하나가 야곱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되게 하시며 네 이름과 네 아들의 이름이 모든 땅과 지역에 퍼져 나가게 하시고 이방 민족이 네 앞에서 두려워하며 모든 나라가 떨게 하시리라 하시니라
19 야곱의 도움은 주 안에서 이루어지며, 이스라엘의 구원도 주 안에서 발견될 것이다.
20 주께서 의로우심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때에 사랑하는 아들들의 모든 자손에게 큰 평화가 임할 것이요, 주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요, 주를 미워하고 괴롭히고 저주하는 자는 땅에서 뿌리 뽑혀 멸망하고 저주를 받을 것이라.
21 그리고 돌아서서 다시 그에게 입맞추고 껴안으며 크게 기뻐하였다. 이는 그가 자기 아들 야곱의 아들들을 참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22 그러자 그는 그의 발 사이에서 나와 엎드려 그에게 절하고 그들을 축복한 후 그날 밤 그의 아버지 이삭과 함께 거기서 쉬며 즐겁게 먹고 마셨다.
23 그리고 그는 야곱의 두 아들을 재우셨으니,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두셨다.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24 야곱은 밤새 아버지에게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얼마나 큰 자비를 베푸셨는지, 그리고 그의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시고 모든 악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 주셨는지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25 이삭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종 이삭의 아들들에게서 자비와 공의를 거두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26 아침에 야곱은 아버지 이삭에게 자기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과 본 환상에 대하여, 제단을 쌓았고, 서원한 대로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릴 모든 준비를 마쳤으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나귀에 태우시려고 오셨다고 말했습니다.
27 이삭이 그의 아들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너와 함께 갈 수 없노라. 내가 늙어서 길을 갈 수 없느니라. 아들아, 평안히 가거라. 내가 오늘로 백육십오 세이니 더 이상 여행할 수 없느니라. 네 어머니를 나귀에 태워 너와 함께 가게 하라.
28 내 아들아, 네가 나 때문에 온 것을 나는 안다. 네가 내가 살아 있는 것을 본 오늘, 그리고 나도 너를 본 오늘이 복된 날이 되기를 바란다.
29 네가 형통하여 네가 서원한 것을 지키기를 원하노라. 서원을 미루지 말라. 너는 그 서원에 관하여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니, 이제 서둘러 서원을 이행하여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께서 기뻐하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그분께 서원하였느니라.
30 그리고 예수께서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네 아들 야곱과 함께 가라 하시매 리브가가 자기 아들 야곱과 드보라와 함께 가서 벧엘에 이르니라
31 야곱은 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이 자신과 두 아들 레위와 유다를 축복하며 드렸던 기도를 기억하고 기뻐하며 그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을 축복하였다.
32 그가 이르되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소망을 가졌으며 내 아들들도 그러함을 아노라 하시니라. 이로써 그 둘에 대하여 정해진 바가 이루어졌으니, 이삭이 그들을 축복한 것을 하늘의 돌판에 영원한 증거로 기록하였느니라.

제 32 장

1 그날 밤 레위는 벧엘에 머물렀는데, 레위가 꿈을 꾸어 자기와 자기 아들들이 영원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세워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잠에서 깨어나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2 야곱은 이 달 14 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자기와 함께 온 모든 것, 곧 사람과 가축, 금과 모든 그릇과 의복의 십일조를 바쳤습니다. 참으로 그는 모든 것의 십일조를 바쳤습니다.
3 그 무렵 라헬이 아들 베냐민을 임신하였다. 야곱은 자기 아들들을 차례로 세어 보았는데, 레위가 여호와께 속한 몫이 되었다. 그의 아버지는 레위에게 제사장 옷을 입히고 그의 손을 가득 채웠다.
4 이 달 열다섯째 날에 그는 가축 중에서 소 열네 마리와 숫양 스물여덟 마리, 양 마흔아홉 마리, 어린 양 일곱 마리, 그리고 염소 새끼 스물한 마리를 번제물로 제단에 가져왔으니, 이는 하나님 앞에서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다.
5 이것은 그가 서원한 대로 그들의 과일 제물과 음료 제물과 함께 십일조를 바치겠다는 약속에 따른 그의 예물이었다.
6 불이 그것을 다 태워 버리자, 그는 불 위에 향을 피우고 감사 제물로 소 두 마리와 숫양 네 마리와 양 네 마리와 숫염소 네 마리와 일 년 된 양 두 마리와 새끼 염소 두 마리를 바쳤습니다. 이렇게 칠 일 동안 매일 반복했습니다.
7 그와 그의 모든 아들과 그의 종들은 거기서 칠 일 동안 기쁨으로 이것을 먹으며 그를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

시고 그의 서원을 들어주신 주님께 축복하고 감사했습니다.
8 그리고 그는 모든 정결한 짐승의 십일조를 드리고 번제물을 드렸으나 부정한 짐승은 그의 아들 레위에게 주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의 영혼을 그에게 주었다.
9 레위는 그의 아버지 야곱 앞에서 벧엘에서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였고, 그의 열 형제보다 먼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그에게 서원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여 그는 십일조를 다시 여호와께 바치고 거룩하게 하였으므로, 그것은 그분께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10 그러므로 하늘의 돌판에 십일조를 다시 바쳐 주님 앞에서 해마다 그분의 이름이 거하시도록 택하신 곳에서 먹도록 율법을 정하였으니, 이 율법에는 영원한 기한이 없느니라.
11 이 규례는 해마다 주님 앞에서 택하신 장소에서 둘째 십일조를 먹음으로써 지켜지도록 기록되었으며, 이 해에서 다음 해로 남는 것이 없어야 합니다.
12 그 해의 씨는 그 해의 씨를 거두는 날까지 먹고, 포도주는 포도주를 내는 날까지 먹고, 기름은 제철까지 먹을 것이다.
13 그리고 그 가운데 남은 것, 곧 낡은 것은 모두 부정한 것으로 여겨 불태워 버려야 한다. 그것은 부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14 그러므로 그들이 그것을 성소에서 함께 먹게 하고, 그것이 썩지 않게 하십시오.
15 소와 양의 모든 십일조는 여호와께 거룩하게 바쳐야 하며, 그의 제사장들이 해마다 그분 앞에서 먹을 것이니, 이는 십일조에 관하여 하늘의 돌판에 이렇게 정하고 새겨 놓았음이니라.
16 그리고 그 다음 날 밤, 곧 이 달 스물두째 날에 야곱은 그곳에 건축하고 뜰을 성벽으로 둘러싸서 자신과 그의 후손을 위하여 영원히 거룩하게 하기로 결심하였다.
17 여호와께서 밤에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축복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름은 야곱이라 불리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불릴 것이다.'
18 그리고 그분께서 다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늘과 땅을 창조한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고 왕들을 네게서 나올 것이며, 그들은 사람의 발이 닿는 모든 곳을 다스릴 것이다.'
19 내가 하늘 아래 있는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그들이 모든 민족을 그들의 뜻대로 다스릴 것이요 그 후에 온 땅을 차지하여 영원히 상속받을 것이라.
20 예수께서 그와 말씀을 마치시고 그에게서 떠나가셨다. 야곱은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까지 바라보았다.
21 그리고 야곱이 밤에 환상 중에 보니, 한 천사가 손에 일곱 돌판을 들고 하늘에서 내려와 야곱에게 주었더라. 야곱이 그 돌판을 읽고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을 알았으니, 이는 자기와 그의 자손에게 대대로 일어날 일들이었다.
22 예수께서 그에게 돌판에 기록된 모든 것을 보여 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건축하지 말고, 영원한 성소로 삼지 말고, 여기에 거주하지도 마라. 이곳은 네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니다.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집으로 가서 네 아버지 이삭과 함께 네 아버지가 죽는 날까지 거하라.'
23 이는 네가 이집트에서 평안히 죽을 것이며, 이 땅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함께 네 조상들의 무덤에 존귀하게 묻힐 것이기 때문이다.
24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보고 읽은 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니, 네가 보고 읽은 대로 모든 것을 기록하라.
25 야곱이 이르되 '주님, 제가 읽고 본 모든 것을 어떻게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게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해 주겠다.' 하셨느니라
26 그리고 그는 그에게서 떠나 잠에서 깨어나 읽고 본 모든 것을 기억하고 읽고 본 모든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27 그리고 그는 거기서 또 하루를 지키고 이전 날들에 바쳤던 모든 제사와 똑같이 제사를 드렸으며, 그 날을 '추가된 날'이라 불렀다. 이는 이 날이 추가되었고 이전 날들은 '절기'라 불렀기 때문이다.
28 이와 같이 그렇게 될 것이 분명해졌고, 하늘의 돌판에 기록되었으니, 그에게는 그것을 지키고 칠일의 절기에 더하라는 계시가 내려졌느니라.
29 그 이름은 '덧셈'이라 불렸는데, 이는 그 날이 연중 날 수에 따라 절기들 가운데 기록되었기 때문이다.
30 그리고 이 달 23 일 밤에 레베카의 유모 드보라가 죽으니, 사람들이 그녀를 성읍 아래 강가의 상수리나무 밑에 묻고, 그곳 이름을 '드보라의 강'이라 하고, 그 상수리나무 이름을 '드보라의 애도의 상수리나무'라 불렀다.
31 그리고 리브가는 아버지 이삭이 계신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야곱은 리브가를 통해 숫양과 양과 숫염소를 보내어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음식을 준비하게 했습니다.
32 그리고 그는 어머니를 따라 가브라탄 땅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였다.
33 라헬이 밤에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내 슬픔의 아들'이라 불렀으니, 이는 해산의 고통 때문이었다. 그의 아버지는 그 이름을 베냐민이라 불렀는데, 이는 이 희년의 여섯째 주 첫째 날인 여덟째 달 열한째 날에 지은 것이다. [2143 AM]
34 라헬은 거기서 죽어 에브랏 땅, 곧 베들레헴에 묻혔고 야곱은 라헬의 무덤 위에, 그 무덤 바로 위 길에 기둥을 세웠다.

제 33 장

1 야곱은 막달라드라엡 남쪽으로 가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열 번째 달 초승달에 그와 그의 아내 레아와 함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갔습니다.
2 그리고 르우벤은 라헬의 여종이며 자기 아버지의 첩인 빌하가 은밀한 곳에서 목욕하는 것을 보고 그녀를 사랑하게 되었다.
3 그리고 그는 밤에 숨어서 빌하의 집에 들어가 보니, 빌하는 집 안 침대에 혼자 자고 있었다.
4 그가 그녀와 동침하니 그녀가 깨어나 보니 르우벤이 자기와 함께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녀는 이불 자락을 걷어 올리고 그를 붙잡고 소리 질렀다. 그가 르우벤인 것을 알아차린 것이다.

5 그러자 그녀는 그 때문에 부끄러워 손을 놓으니 그가 도망쳤다.
6 그녀는 이 일 때문에 몹시 슬퍼하며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7 야곱이 돌아와 그녀를 찾았을 때, 그녀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 앞에서 깨끗하지 못합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더럽혀졌기 때문입니다. 르우벤이 나를 더럽혔습니다. 그는 밤에 나와 동침했는데, 나는 자고 있어서 그가 내 치마를 벗기고 나와 동침할 때까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8 야곱은 르우벤이 빌하와 동침하여 아버지의 치마폭을 들췄으므로 그에게 몹시 노하였다.
9 야곱은 르우벤이 그녀를 더럽혔으므로 다시는 그녀에게 가까이 가지 않았다. 아버지의 옷자락을 벗기는 자는 심히 악한 자이니, 여호와 앞에서 가증한 일이다.
10 그러므로 하늘의 돌판에 기록되어 정해졌으니, 남자는 자기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지 말고, 자기 아버지의 치마폭을 드러내지 말라. 이는 부정한 것이니라. 자기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남자와 여자는 반드시 함께 죽을 것이니, 이는 그들이 땅에 부정한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11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소유로 택하신 나라에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것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12 또 이렇게 두 번째로 기록되어 있다. '자기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는 그가 자기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냈음이니라.' 그러자 주님의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말했다.
13 모세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말씀을 지키도록 명하여라. 이는 사형에 처할 만한 죄이며, 부정한 것이요, 이 죄를 범한 자는 영원히 속죄할 길이 없으니, 돌로 쳐 죽임을 당하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뿌리 뽑혀야 할 것이다.
14 이스라엘에서 그렇게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땅에서 하루라도 살아남을 수 없으니, 그는 가증스럽고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15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말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르우벤은 아버지의 첩과 동침한 후에 생명과 용서를 받았고, 그 첩에게도 남편이 있었고, 그녀의 남편인 야곱, 곧 그의 아버지도 아직 살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생명과 용서를 받았다."
16 그때 이전에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규례와 법과 법도가 온전히 계시되지 아니하였으나, 네 시대에 이르러서야 계절과 날짜에 따른 법, 영원한 세대를 위한 영원한 법으로 계시되었느니라.
17 이 법에는 소멸시효도 없고 속죄일도 없으니, 그들은 그 둘 다 백성 가운데서 뿌리 뽑아야 한다. 그들이 그 법을 어긴 날에 그들을 죽여야 한다.
18 모세야, 너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기록하여 그들이 지키고 이 말씀대로 행하여 죽음에 이르는 죄를 짓지 않게 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심판자이시며 사람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선물을 받지 아니하시느니라.
19 그리고 그들에게 이 언약의 말씀을 전하여 그들이 듣고 지키며, 이 일들을 조심하여 멸망당하거나 그 땅에서 뿌리 뽑히지 않도록 하십시오. 땅에서 이 일을 행하는 자들은 모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것이요 가증한 것이요 더러움이요 부정한 것이요 부정한 것이요 부정한 것이요 부정한 것이요 부정한 것이요 부정한 것이요 부정한 것이요 부정한 것이요 부정한 것이요 부정한 것이요 부정한 것이요 부정한 것이요 부정한 것이요 부정한 것이요 부정한 것이요 부정한 것이요 부정한 것이요 부정한 것이니라
20 땅에서 행하는 음행보다 더 큰 죄는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주 하나님께 거룩한 민족이요, 유업을 받은 민족이요, 제사장 나라요, 왕족 나라요, 그분의 소유된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민족 가운데 그런 부정한 일이 나타나서는 안 됩니다.
21 그리고 이 여섯째 주의 삼 년째에 야곱과 그의 모든 아들들은 가서 아브라함의 집에 거하였으니, 그의 아버지 이삭과 그의 어머니 리브가 곁에서 살았습니다.
22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맏아들로는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잇사갈, 제불론이요, 레아의 아들들은 라헬의 아들들로는 요셉, 베냐민이요, 빌하의 아들들로는 단, 납달리가요, 질바의 아들들로는 갓, 아셀이요, 레아의 딸로 야곱의 외딸인 디나가니라.
23 그들이 와서 이삭과 리브가에게 절하고, 그들을 보자 야곱과 그의 모든 아들들을 축복했습니다. 이삭은 야곱의 아들들, 특히 그의 막내아들을 보고 매우 기뻐하며 그들을 축복했습니다.

제 34 장

1 그리고 이 44 번째 희년의 이 주간의 여섯째 해에 야곱은 그의 아들들을 보내어 양을 치게 하였고, 그의 종들도 그들과 함께 세겜의 목초지로 보냈습니다.
2 아모리 사람의 일곱 왕이 그들을 죽이려고 모여 나무 아래에 숨고 그들의 가축을 약탈했습니다.
3 야곱과 레위와 유다와 요셉은 아버지 이삭과 함께 집에 있었다. 이삭의 마음이 슬퍼서 그들은 그를 떠날 수 없었다. 베냐민은 막내였으므로 아버지와 함께 남았다.
4 그리고 다푸의 왕, 아레사의 왕, 세라간의 왕, 셀로의 왕, 가아스의 왕, 베토론의 왕, 마아니사키르의 왕, 그리고 이 산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 가나안 땅의 숲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이 왔습니다.
5 그들이 야곱에게 이르되, 아모리 왕들이 네 아들들을 포위하고 그들의 가축 떼를 약탈하였느니라 하였더라.
6 그리하여 그는 자기 집에서 일어나 세 아들과 아버지의 모든 종들과 자기 종들을 데리고 칼을 든 육천 명의 군사들과 함께 그들을 치러 나갔다.
7 그가 세겜 목초지에서 그들을 죽이고 도망치는 자들을 추격하여 칼날로 그들을 죽였으며 아레사와 다푸와 사레간과 셀로와 아마니사키르와 가가아스를 죽이고 자기의 가축 떼를 되찾았다.
8 그리하여 그는 그들을 이기고 그들에게 자기 땅의 다섯 가지 과일을 조공으로 바치도록 강요했으며, 로벨과 탐나타레스 성을 건축하였다.

9 그리고 그는 평안히 돌아와 그들과 화평을 이루었고, 그들은 그와 그의 아들들이 이집트로 내려가는 날까지 그의 종이 되었습니다.
10 그리고 이 주간의 일곱째 해에 [오전 21 시 49 분] 그는 요셉을 자기 집의 형제들의 안부를 알아보려고 세겜 땅으로 보냈는데, 요셉은 도단 땅에서 그들을 만났다.
11 그들은 예수를 배신하고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으나 마음을 바꾸어 예수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았고, 그들은 예수를 이집트로 데려가서 바로의 환관이며 요리 사장이요 엘레우 성읍의 제사장인 포티파르에게 팔았습니다.
12 야곱의 아들들이 어린 염소를 잡아 그 피에 요셉의 옷을 적셔서 일곱째 달 열째 날에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보냈다.
13 그가 그날 밤 내내 슬퍼하였으니, 저녁에 그들이 요셉의 시체를 그에게 가져왔기 때문이었다. 그는 요셉의 죽음을 슬퍼하며 열이 났고, "사나운 짐승이 요셉을 삼켰도다"라고 말했다. 그의 온 가족도 그날 그와 함께 슬퍼하며 온종일 애통했다.
14 그러자 그의 아들들과 딸이 일어나 그를 위로하려 했으나, 그는 아들 때문에 위로받기를 거부하였다.
15 그날 빌하는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애도하며 죽었습니다. 그녀는 까프라테프에 살고 있었는데, 그의 딸 디나도 요셉이 죽은 후에 죽었습니다.
16 한 달 동안 이스라엘에 세 번의 슬픔이 닥쳤다. 그들은 빌하를 라헬의 무덤 맞은편에 묻었고, 그의 딸 디나도 거기에 묻었다.
17 그리고 그는 요셉을 위하여 일 년 동안 슬퍼하였고, 슬퍼하는 것을 그치지 않았다. 그는 '내 아들을 위하여 슬퍼하며 무덤으로 내려가게 해다오'라고 말했다.
18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열째 날에, 곧 요셉에 대한 소식이 야곱에게 전해져 야곱이 눈물을 흘린 날에, 일 년에 한 번씩 어린 염소 한 마리를 제물로 바쳐 자기 죄를 속죄해야 한다는 율법을 세웠다. 이는 그들이 아들 요셉에 대한 아버지의 애정을 슬프게 했기 때문이다.
19 그리고 이 날은 그들이 자기들의 죄와 모든 허물과 모든 잘못을 생각하여 슬퍼하고, 일 년에 한 번 이 날에 자기들을 정결하게 하도록 제정된 것이다.
20 요셉이 죽은 후에 야곱의 아들들은 각자 아내를 맞이하였다. 르우벤의 아내는 아다요, 시므온의 아내는 가나안 사람 아들바아요, 레위의 아내는 아람의 딸들 중 하나이며 데라의 자손인 멜가요, 유다의 아내는 가나안 사람 벳수엘요, 잇사갈의 아내는 헤사카요, 스불론의 아내는 니만요, 단의 아내는 에글라요, 납달리의 아내는 메소포타미아 사람 라수우요, 갓의 아내는 마카요, 아셀의 아내는 이요나요, 요셉의 아내는 이집트 사람 아세낫요, 베냐민의 아내는 이자사카였다.
21 그러자 시므온은 마음을 바꾸어 메소포타미아 출신의 아내를 두어 그의 형제들과 결혼했습니다.

제 35 장

1 그리고 45 주년 희년 첫째 주(서기 2157 년) 첫째 해에 리브가는 자기 아들 야곱을 불러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을 평생토록 공경하라고 명하였다.
2 야곱이 이르되 내가 주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행하리니 이는 내게 영광과 위대함이요 여호와 앞에서 의로움이 되리라 내가 그들을 영화롭게 하리라
3 어머니, 당신도 제가 태어난 때부터 오늘까지 제 모든 행적과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아시잖아요. 제가 항상 모든 일에 대해 선한 생각을 한다는 것을요.
4 어찌 내가 당신께서 내게 명하신 이 일, 곧 내 아버지와 내 형제를 공경하는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5 어머니, 제게서 어떤 악덕을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 악덕에서 돌아서겠습니다. 그러면 저에게 자비가 임할 것입니다.
6 그러자 그녀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아, 나는 평생 네게서 악한 행실을 하나도 보지 못하고 오직 정직한 행실만 보았다. 그런데도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해 주겠다. 내 아들아, 나는 올해 죽을 것이다. 내 생애에서 올해를 넘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꿈에서 내 죽음의 날을 보았는데, 내가 155 세를 넘기지 못할 것이라고 했기 때문이다. 보십시오, 나는 내 수명의 모든 날을 다 채웠습니다.'
7 야곱은 어머니의 말을 듣고 웃었다. 어머니는 그에게 자신이 죽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사실 그녀는 건강하게 그의 맞은편에 앉아 있었다. 어머니는 몸이 약하지 않았다. 드나들며 시력도 좋았고, 이도 튼튼했으며, 평생 동안 아무런 질병도 앓지 않았다.
8 야곱이 어머니에게 이르되, 내 수명이 어머니의 수명에 가까워지고 내 힘이 어머니의 힘처럼 남아 있다면 나는 복이 있으리라. 그리하여 어머니께서 죽지 않으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음에 관하여 내게 농담하시는 것이로다.
9 그리하여 그녀가 이삭에게 나아가 이르되 내가 간청하노니 에서에게 야곱을 해치지 아니하고 원한을 품고 쫓아가지 않겠다고 맹세하게 하소서. 주께서 아시되 에서의 생각은 어려서부터 사악하고 선함이 없으며, 주께서 죽으신 후에 야곱을 죽이려 함이니라.
10 그리고 너는 그의 형 야곱이 하란으로 간 날부터 오늘까지 그가 행한 모든 일을 알고 있다. 그는 온 마음으로 우리를 버리고 우리에게 악을 행했으며, 네 양 떼를 자기 것으로 삼고 네 모든 소유를 네 앞에서 빼앗아 갔다.
11 우리가 우리에게 속한 것을 달라고 간청하고 애원했을 때, 그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처럼 행동하셨습니다.
12 그가 당신에게 원한을 품는 것은 당신이 온전하고 정직한 아들 야곱을 축복했기 때문입니다. 야곱에게는 악이 없고 오직 선만 있습니다. 그는 하란에서 온 이후로 오늘까지 우리에게서 아무것도 빼앗지 않았습니다. 그는 항상 제때에 모든 것을 가져다주고, 우리가 그의 손을 잡을 때 온 마음으로 기뻐하며 우리를 축복합니다. 그는 하란에서 온 이후로 오늘까지 우리와 헤어지지 않고 항상 우리와 함께 집에 머물며 우리를 존중합니다.

13 이삭이 그녀에게 이르되 나도 우리와 함께 있는 야곱의 행실을 알고 보고 있다. 그가 온 마음으로 우리를 존중하는 것도 알고 있다. 그러나 전에는 에서가 맏아들이었으므로 야곱보다 에서를 더 사랑하였다. 하지만 이제는 야곱을 에서보다 더 사랑한다. 야곱은 온갖 악행을 저질렀고, 그에게는 의로움이 전혀 없으며, 그의 모든 행위는 불의와 폭력뿐이다. [그 주변에는 의로움이 없다.]
14 이제 그의 모든 행위 때문에 내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와 그의 자손은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땅에서 멸망하고 하늘 아래에서 뿌리 뽑힐 자들입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버리고 그의 아내들과 그들의 부정한 것과 그들의 잘못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와 그의 자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5 그리고 당신은 내게 그가 그의 형 야곱을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하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맹세를 지키지 않고 선을 행하지 않고 악만 행할지라도 말입니다.
16 그러나 만일 그가 그의 형 야곱을 죽이려거든 야곱의 손에 넘겨질 것이요,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니, 그가 그의 손에 떨어질 것이다.
17 야곱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야곱의 수호자는 에서의 수호자보다 더 크고 강하고 존귀하며 칭찬받을 만한 분이시다.
18 리브가가 사람을 보내 에서를 불러오니 그가 그녀에게 왔습니다. 리브가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너에게 부탁할 것이 있으니, 꼭 들어주겠다고 약속하렴.'
19 그러자 그가 말했습니다. '네가 내게 말하는 모든 것을 내가 행하겠다. 네 간청을 거절하지 않겠다.'
20 그러자 그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죽는 날에 나를 거두어 네 아버지의 어머니인 사라 곁에 묻어 주고, 너와 야곱이 서로 사랑하여 서로에게 악을 행하려 하지 말고 오직 서로 사랑하기만 하면 너희가 번성하여 이 땅에서 존경받을 것이며 원수가 너희를 해치지 못할 것이요 너희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의 눈에 너희가 복과 은혜가 될 것이라 하니라
21 그러자 그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죽는 날에 내 아버지의 어머니인 사라 곁에 당신을 묻겠습니다. 당신이 바라셨던 대로 그녀의 뼈가 당신의 뼈 곁에 있게 하겠습니다.'
22 그리고 내 형제 야곱도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사랑할 것이다. 온 세상에 내게는 그 외에 형제가 없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사랑하는 것은 내게 큰 공로가 아니다. 그는 내 형제이며, 우리는 함께 네 몸에서 씨를 받았고, 함께 네 태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만일 내가 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누구를 사랑하겠느냐?
23 그러므로 나 자신이 야곱에게 나와 내 아들들을 위하여 권면해 주시기를 간청하노라. 내가 아노라. 야곱이 반드시 나와 내 아들들의 왕이 될 것이니라. 내 아버지가 그를 축복하신 날에 그를 더 높이시고 나를 더 낮게 하셨느니라.
24 내가 너에게 맹세하노니, 나는 그를 사랑하고 내 평생 동안 그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오직 선만을 행하리라.
25 그리하여 야곱은 이 모든 일에 관하여 야곱에게 맹세하였다. 야곱은 에서 앞에서 야곱을 불러 에서에게 했던 말대로 그에게 명령하였다.
26 그가 이르되 내가 네 뜻을 행하리라. 나를 믿으라. 나와 내 아들들은 에서에게 아무런 악한 일도 행하지 않을 것이며, 나는 사랑 외에는 모든 일에서 첫째가 되리라.
27 그날 밤, 그녀와 그녀의 아들들은 먹고 마셨습니다. 그녀는 그날 밤에 죽었는데, 그때 그녀의 나이는 삼십일이고 일주일이었으며 한 살이었습니다. 그녀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은 그녀를 아버지의 어머니인 사라의 동굴에 묻었습니다.

제 36 장

1 그리고 이 주간의 여섯째 해에 [2162 년] 이삭이 그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을 부르니 그들이 그에게로 왔다.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아, 나는 내 조상들이 계신 영원한 집으로 가는 길을 따라 간다.'
2 그러므로 나를 내 아버지 아브라함 곁에 묻어 주소서. 헷 사람 에프론의 밭에 있는 두 개의 굴에 묻어 주소서. 그곳은 아브라함이 묻히려고 무덤을 산 곳입니다. 내가 직접 판 무덤에 나를 묻어 주소서.
3 그리고 내 아들들아, 내가 너희에게 명하노니, 땅에서 의와 정직을 행하라. 그리하면 주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신 모든 것을 너희에게도 행하실 것이다.
4 내 아들들아, 너희 형제들을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것처럼 서로 사랑하고, 각자 자기 형제에게 유익이 될 만한 일을 찾고, 땅에서 함께 협력하며, 서로 자기 영혼처럼 사랑하라.
5 그리고 우상에 관한 문제에 관해서 내가 너희에게 명하노니, 그것들을 버리고 미워하며 사랑하지 말라. 그것들은 그것들을 숭배하고 그것들에게 절하는 자들을 속이는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6 내 아들들아,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나도 그분을 경배하고 섬기며 의와 기쁨으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분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고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시며, 너희를 땅 위에 뿌리 뽑히지 않는 의의 나무처럼 세우시어 모든 세대에 영원히 이르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다.
7 이제 내가 너희에게 큰 맹세를 하게 하겠다. 이보다 더 큰 맹세는 없으니, 영광스럽고 존귀하고 위대하고 찬란하고 놀랍고 전능하신 분, 하늘과 땅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 맹세는 너희가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경배하는 것이다.
8 그리고 각 사람은 형제를 사랑과 의로움으로 사랑하고, 이제부터 평생토록 형제에게 악을 행하려는 마음을 품지 마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의 모든 행위가 형통하고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9 만일 너희 중 누구든지 자기 형제에게 악을 꾀하면, 이제부터 자기 형제에게 악을 꾀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의 손에 잡혀 산 자들의 땅에서 뿌리 뽑히고 그의 자손은 하늘 아래에서 멸망할 것을 알라.
10 그러나 소란과 저주와 진노와 분노의 날에, 그분께서 소돔을 불태우셨던 것처럼, 타오르는 불로 그의 땅과 성읍과 그의 모든 소유를 불태우실 것이며, 그는 인류의 징계 책에서 지워지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고 멸망에 처한 책에 기록될 것이며, 영원한 저주에 들어갈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의 정죄가 미움과 저주와 진노와 고통과 분노와 전염병과 질병 가운데 영원히 새롭게 될 것이다.
11 내가 너희 아들들에게 말하고 증언하노니, 자기 형제를 해치려는 자에게 임할 심판과 같으니라.
12 그날 그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는데, 더 큰 몫을 맏아들에게 주었고, 망대와 그 주변의 모든 것, 그리고 아브라함이 맹세의 우물에서 소유했던 모든 것도 주었다.
13 그리고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더 큰 몫은 맏아들에게 주겠다.'
14 그러자 에서가 말했습니다. '나는 야곱에게 내 재산을 팔고 장자권을 야곱에게 주었으니, 그에게 주어지게 하십시오. 나는 그것에 대해 한마디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의 것입니다.'
15 이삭이 이르되 오늘 너희 아들들과 너희 자손에게 복이 임하리니 너희가 내게 안식을 주었으므로 내 마음이 장자권 때문에 괴로워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그것 때문에 악을 행할까 염려하지 아니하노라.
16.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의를 행하는 사람과 그의 자손을 영원토록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17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축복하시니, 그들은 예수 앞에서 함께 먹고 마셨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마음이 한마음인 것을 보고 기뻐하셨다. 그들은 예수에게서 나와 그날 쉬고 잠들었다.
18 이삭은 그날 기뻐하며 침대에 누워 잠들었다. 그리고 영원한 잠에 빠져 백팔십 세에 죽었다. 그는 스물다섯 주와 오십오 년을 살았고, 그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지냈다.
19 에서가 에돔 땅 세일 산지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였다.
20 야곱은 헤브론 산에 있는, 그의 조상 아브라함이 거주하던 땅의 망대에 거하며, 온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경배하고, 그분께서 그의 세대의 날들을 나누어 주신 대로 눈에 보이는 계명대로 행하였다.
21 그의 아내 레아가 45 주년 희년 둘째 주 4 년에 죽었고, 그는 그녀를 그의 어머니 리브가의 무덤 근처, 그의 아버지의 어머니 사라의 무덤 왼쪽에 있는 이중 동굴에 묻었다.
22 그리고 그녀의 모든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이 그의 아내 레아를 위해 그와 함께 슬퍼하고 그녀를 위로하려고 왔습니다. 그는 그녀의 언니 라헬이 죽은 후에 그녀를 매우 사랑했기 때문에 그녀를 애도하고 있었습니다.
23 이는 그녀가 모든 일에 온전하고 정직했으며 야곱을 공경하였으므로, 그녀가 야곱과 함께 사는 동안 야곱은 그녀의 입에서 거친 말을 한 번도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녀가 온유하고 평화롭고 정직하고 존경할 만한 사람이었음이라.
24 그리고 그는 그녀가 살아생전에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고 그녀를 몹시 애통해하였다. 이는 그가 온 마음과 온 영혼을 다해 그녀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제 37 장

1 야곱과 에서의 아버지 이삭이 죽은 날에 에서의 아들들은 이삭이 장자의 몫을 차남 야곱에게 주었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노하였다.
2 그러자 그들이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야곱에게는 장자의 몫을 주시고, 너는 빼놓고 주셨느냐? 네가 장자이고 야곱은 차자인데 말이다.
3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 값에 장자권을 팔았는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어 사냥해서 먹을 것을 가져오라고 하시고 나를 축복해 주시라고 하신 날에 야곱이 꾀를 써서 아버지께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가져다 드렸더니, 아버지께서 그를 축복하시고 나를 그의 손아귀에 넣으셨느니라.
4 이제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둘에게 맹세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형제를 해치려는 음모를 꾸미지 않고, 각자 형제와 사랑과 평화 가운데 지내며 우리의 행실을 타락시키지 않겠다고 맹세하게 하셨습니다.
5 그들이 예수께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말을 듣고 그와 화해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힘이 그보다 강하고, 우리가 그보다 더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를 쳐죽이고 그와 그의 아들들을 멸망시킬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면, 우리는 당신에게도 해를 가할 것입니다.'
6 이제 우리 말을 들으십시오. 아람과 블레셋과 모압과 암몬에 사람을 보내어 전쟁에 열정적인 용사들을 뽑아 그를 쳐부수고 싸워서 그가 강성해지기 전에 땅에서 완전히 멸절시켜 버립시다.'
7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와 싸우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그 앞에 쓰러질 것이다.
8 그들이 예수께 이르되 이것이 네가 어려서부터 오늘날까지 행해 온 방식과 똑같으니 너는 그의 멍에 아래에 네 목을 내밀고 있도다.
9 '우리는 이 말을 듣지 않겠다.' 그리고 그들은 아람과 아두람에 있는 그들의 아버지의 친구에게 사람을 보내어 정예 용사 천 명을 고용하여 함께 오게 하였다.
10 모압과 암몬 자손 중에서 용사 천 명이 그들에게 왔고, 블레셋에서도 용사 천 명이 왔으며, 에돔과 호리 자손에서도 용사 천 명이 왔고, 킷팀에서도 용맹한 전사들이 왔다.
11 그들이 아버지에게 이르되, '어서 나가서 저들을 인도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아버지를 죽이겠습니다.'
12 그리고 그는 아들들이 자기를 앞세워 형 야곱을 대적하러 나가라고 강요하는 것을 보고 분노와 격분으로 가득 찼다.

13 그러나 그 후에 그는 형 야곱에 대한 악한 생각을 마음속에 숨겨두었던 모든 것을 기억해냈고, 아버지와 어머니께 맹세했던, 평생 야곱에게 악한 생각을 품지 않겠다는 맹세를 잊어버렸습니다.
14 그런데도 야곱은 그들이 자기를 치러 전쟁을 하러 오는 줄을 알지 못하고, 아내 레아를 애도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그들이 사천 명의 용사와 정예 군사들을 이끌고 망대 바로 가까이까지 다가왔다.
15 헤브론 사람들이 야곱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네 형이 너와 싸우려고 칼을 찬 사천 명의 군대를 이끌고 왔으니, 그들은 방패와 무기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 이는 그들이 에서보다 야곱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라. 야곱은 에서보다 더 너그럽고 자비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16 그러나 야곱은 그들이 탑에 아주 가까이 갈 때까지 믿지 않았다.
17 그리하여 그는 망대를 닫고 성벽 위에 서서 그의 형 에서에게 말했습니다. '내 아내가 죽은 것을 슬퍼하며 나를 위로하러 온 네 마음이 참으로 고귀하구나. 그런데 이것이 네가 아버지와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맹세했던 그 맹세냐? 너는 그 맹세를 어겼으니, 네가 아버지께 맹세한 바로 그 순간 이미 정죄를 받은 것이다.'
18 그러자 에서가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의 자녀나 땅의 짐승들이 맹세하여 영원히 유효한 의로운 맹세를 한 적이 없으나, 날마다 서로 악을 꾀하여 자기 원수를 죽이려 하느니라.
19 너는 나와 내 자식들을 영원히 미워하는구나. 너와는 형제 관계를 지킬 수 없구나.
20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을 들으라. 만일 멧돼지가 가죽을 벗고 털을 양털처럼 부드럽게 만들 수 있거나, 사슴이나 양의 뿔처럼 머리에 뿔을 낼 수 있다면, 나는 너와 형제 관계를 맺으리라. 만일 젖가슴이 어미에게서 떨어져 나갔다 하더라도, 네가 내 형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21 만일 이리들이 어린 양들과 화해하여 잡아먹거나 해치지 아니하고 그들의 마음이 어린 양들에게 선하다면, 내 마음도 너를 향하여 화평하리라.
22 만일 사자가 소와 친구가 되어 그와 화목하고, 그와 한 멍에를 메고 함께 밭을 갈면, 나도 너와 화목하리라.
23 까마귀가 라자처럼 희어지면, 내가 너를 사랑하여 너와 화해할 것임을 알라. 너는 뿌리 뽑힐 것이며, 네 아들들도 뿌리 뽑힐 것이며, 너에게는 평화가 없을 것이다.
24 야곱은 그가 마음과 온 힘을 다해 그를 죽이려고 악한 마음을 품고, 마치 창에 찔려 죽임을 당하는 멧돼지처럼 달려들어 도망치지 않는 것을 보고,
25 그러자 그는 자기 백성과 신하들에게 자기와 그의 모든 동료들을 공격하라고 말했다.

제 38 장

1 그 후에 유다가 그의 아버지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버지여, 활을 당겨 화살을 쏘아 대적을 쓰러뜨리고 적을 죽이십시오. 아버지께서 그 권세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동생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같고, 아버지와 같으니, 그에게 이 영광을 돌려줍시다.'
2 그때 야곱이 활을 당겨 화살을 쏘아 그의 형 에서의 오른쪽 가슴을 맞추어 죽였다.
3 그러자 그가 다시 화살을 쏘아 아람 사람 아도란의 왼쪽 가슴을 맞추어 그를 뒤로 밀어 죽였다.
4 그러자 야곱의 아들들과 그들의 종들이 나와서 망대 사방으로 흩어져 진을 쳤다.
5 유다가 앞장서서 납달리와 갓과 그와 함께 신하 50 명을 데리고 망대 남쪽으로 나아가서 그들 앞에 있는 자들을 모두 죽였으니 한 사람도 도망치지 못했다.
6 레위 지파와 단 지파와 아셀 지파가 그들과 함께 오십 명의 군사를 이끌고 망대 동쪽으로 나아가 모압과 암몬의 군사들을 죽였다.
7 르우벤과 잇사갈과 제불론은 그들과 함께 오십 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망대 북쪽으로 나아가 블레셋 사람들의 용사들을 죽였다.
8 시므온과 베냐민과 르우벤의 아들 에녹이 그들과 함께 오십 명과 함께 망대 서쪽으로 나아가 에돔과 호리 족속의 용맹한 전사 사백 명을 죽였더라. 육백 명이 도망쳤고, 에서의 아들 네 명도 그들과 함께 도망하여 아버지 에서의 죽은 자를 아두람 언덕에 그대로 남겨 두었더라.
9 야곱의 아들들은 세일 산까지 그들을 추격했습니다. 야곱은 아두람에 있는 언덕에 그의 형을 묻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10 야곱의 자손들이 세일 산에서 에서의 자손들을 맹렬히 추격하여 그들의 목을 굽히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야곱의 자손들의 종이 되었다.
11 그리고 그들은 아버지에게 사람을 보내어 그들과 화해해야 할지 아니면 죽여야 할지 물어보았습니다.
12 야곱은 자기 아들들에게 사람을 보내어 화해하라고 하였고, 그들은 야곱과 그의 아들들과 화해하고 노예의 멍에를 씌워 야곱과 그의 아들들에게 항상 조공을 바치게 하였다.
13 그들은 야곱이 이집트로 내려가는 날까지 계속해서 그에게 조공을 바쳤다.
14 에돔 자손은 야곱의 열두 아들이 그들에게 씌운 종의 멍에에서 오늘날까지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15 그리고 이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에돔 땅에 세워지기 전, [오늘날까지] 에돔 땅에서 통치했던 왕들이다.
16 브올의 아들 발락이 에돔을 다스렸는데, 그의 성읍 이름은 다나바였다.
17 그리고 발락이 죽고 보세르의 자라의 아들 요밥이 그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다.
18 요밥이 죽고 데만 땅의 아삼이 그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다.
19 아삼이 죽고, 모압 들판에서 미디안 사람을 죽인 바라드의 아들 아닷이 그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으며, 그의 성읍 이름은 아비트였다.
20 아다트가 죽고 아마세카 출신의 살만이 그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다.

21 살만이 죽고 라아봇 강가의 사울이 그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다.
22 사울이 죽고 아크볼의 아들 바엘루난이 그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다.
23 아크볼의 아들 바엘루난이 죽고 아닷이 그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는데, 그의 아내는 마타랏의 딸이자 메타베드자압의 딸인 마이타빗이었다.
24 이들은 에돔 땅을 다스렸던 왕들이다.

제 39 장

1 야곱은 그의 아버지 야곱이 거주하던 가나안 땅에 살았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족보입니다.
2 요셉은 열일곱 살 때 이집트 땅으로 끌려갔는데, 바로의 내시이자 수석 요리사인 보디발이 그를 샀습니다.
3 그리하여 이집트 사람은 요셉을 온 집안의 가장으로 삼았고, 요셉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이집트 사람의 집에 복을 주셨으며,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셨다.
4 이집트 사람은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며,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5 요셉의 용모가 보기 좋았으므로 그의 주인의 아내가 눈을 들어 요셉을 보고 그에게 반하여 그와 동침하기를 간청하였다.
6 그러나 그는 자기 목숨을 내놓지 않고 주님을 기억하고, 그의 아버지 야곱이 아브라함의 말씀 가운데서 읽어 주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그 말씀은 남편이 있는 여자와 음행을 저지르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를 위해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죽음의 형벌이 정해져 있으며, 그의 죄는 주님 앞에서 영원한 책에 영원히 기록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7 요셉은 이 말을 기억하고 그녀와 동침하기를 거부했다.
8 그녀가 일 년 동안 그에게 간청했으나 그는 거절하고 듣지 않았다.
9 그러나 그녀는 그를 껴안고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가 억지로 동침하게 하려고 집 문을 닫고 그를 꽉 붙잡았다. 그러나 그는 자기 옷을 그녀의 손에 남겨두고 문을 부수고 밖으로 도망쳤다.
10 그 여자는 그가 자기와 동침하지 않으려는 것을 보고, 주인 앞에서 그를 비방하며 말했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히브리인 종이 저와 동침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소리치자 그는 도망치면서 제 손에 옷을 남겨두고 문을 부수고 나갔습니다.'
11 이집트 사람은 요셉의 옷과 부서진 문을 보고, 그의 아내의 말을 듣고, 요셉을 왕이 투옥한 죄수들이 갇혀 있는 곳에 가두었다.
12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 주님께서 간수장의 눈에 요셉에게 호감을 사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간수장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13 그리하여 그는 모든 것을 요셉의 손에 맡겼고, 간수장은 요셉이 하는 일을 전혀 알지 못했다. 요셉이 모든 것을 행하였고, 주님께서 그것을 완성하셨기 때문이다.
14 그리고 그는 거기에서 이 년을 머물렀다. 그 무렵 이집트 왕 파라오는 그의 두 내시,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빵 굽는 관원에게 노하여 그들을 요셉이 갇혀 있던 감옥, 곧 요리사의 집에 가두었다.
15 그러자 간수장이 요셉을 임명하여 그들을 섬기게 하였고, 요셉은 그들 앞에서 섬겼다.
16 술 맡은 관원장과 빵 굽는 관장이 둘 다 꿈을 꾸고 그 꿈을 요셉에게 이야기하였다.
17 요셉이 그들에게 통역해 준 대로 그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바로는 술 맡은 관원을 그의 직책에 복직시키고, 죽였던 빵 굽는 관원을 풀어 주었습니다. 이는 요셉이 그들에게 통역해 준 대로 된 것입니다.
18 그러나 술 맡은 관장의 책임자는 요셉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있는 요셉을 잊어버렸고, 요셉이 자신에게 어떻게 말했는지 바로에게 알리는 것도 잊어버렸습니다.

제 40 장

1 그 무렵 바로가 하룻밤 사이에 온 땅에 닥칠 기근에 관한 두 가지 꿈을 꾸었다. 그는 잠에서 깨어나 이집트에 있는 모든 꿈해몽가와 마술사들을 불러 모아 자기 꿈 이야기를 하였으나, 그들은 그 의미를 설명할 수 없었다.
2 그러자 술 맡은 관장이 요셉을 기억하고 왕에게 그에 대해 말하여 그를 감옥에서 데리고 나와 왕 앞에서 그의 두 가지 꿈을 이야기해 주었다.
3 그가 바로 앞에서 자기의 두 꿈이 하나라고 말하며 이르되 칠 년 동안 이집트 온 땅에 풍요가 넘치고 그 후에 칠 년 동안은 온 땅에 전에 없던 흉년이 들 것이라 하였더라
4 이제 바로는 온 이집트 땅에 감독관들을 세우고, 그들이 풍년이 드는 동안 모든 성읍에 식량을 비축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칠 년의 흉년에도 먹을 것이 있을 것이며, 그 흉년이 심할지라도 그 땅은 황폐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5 여호와께서 요셉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니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처럼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을 다시 찾지 못할 것이다. 이는 여호와의 영이 그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6 그리고 그는 그를 온 왕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자로 세우고 온 이집트를 다스릴 권한을 주었으며, 바로의 두 번째 병거에 타게 하였습니다.
7 그리고 그는 그에게 비단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 주었으며, (전령을 통해) 그 앞에서 '엘엘 와 아비레르'라고 선포하고 그의 손에 반지를 끼워 주어 온 집안의 통치자로 삼고 그를 높이며 말했습니다. '오직 왕좌에서만 내가 너보다 높을 것이다.'
8 요셉은 온 이집트 땅을 다스렸는데, 바로의 모든 신하들과 그의 모든 신하들과 왕의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를 사랑했습니다. 이는 그가 정직하게 행하고, 교만하지 않고, 허영하지 않고,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선물을 받지 않았으며, 온 땅의 백성을 공정하게 재판했기 때문입니다.

9 요셉으로 말미암아 이집트 땅은 바로 앞에서 평화로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를 아는 모든 사람들과 그에 대한 소문을 들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의 모든 세대에 걸쳐 은혜와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바로의 나라는 질서가 잘 잡혀 있었고, 사탄도 없고 악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10 왕은 요셉의 이름을 세판티판이라 부르고, 헬리오폴리스 제사장의 딸이자 수석 요리사인 보디발의 딸을 요셉에게 아내로 주었다.
11 요셉이 바로 앞에 섰을 때 그의 나이는 서른 살이었습니다.
12 그 해에 이삭이 죽었다. 요셉이 두 꿈을 해석하여 말한 대로, 이집트 온 땅에 칠 년 동안 풍년이 들었고, 이집트 땅은 풍성하게 소출을 내어 한 되에 천팔백 되를 거두었다.
13 요셉은 모든 성읍에 식량을 모아들였는데, 그 양이 너무 많아 셀 수도, 측량할 수도 없을 정도가 되었다.

제 41 장

1 그리고 45 번째 희년 둘째 주, (그리고) 둘째 해에 유다는 그의 맏아들 에르를 위해 아람의 딸들 중에서 타마르라는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였다.
2 그러나 그는 그녀를 미워하여 그녀와 동침하지 않았다. 그의 어머니는 가나안 족속의 딸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어머니의 친척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고 싶었지만, 그의 아버지 유다가 허락하지 않았다.
3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악한 자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다.
4 유다가 그의 형 오난에게 이르되 네 형의 아내에게 들어가 남편의 형제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다하고 네 형을 위하여 자녀를 낳아 주어라 하였더라
5 오난은 그 씨가 자기 것이 아니라 형의 것인 줄 알고 형수 집에 가서 그 씨를 땅에 쏟았습니다.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자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습니다.
6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마르에게 이르되 너는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할 때까지 과부로 아버지 집에 머물러 있으라. 내가 너를 셀라에게 아내로 주겠다.
7 그리고 셀라는 장성하였다. 그러나 유다의 아내 벳수엘은 자기 아들 셀라의 결혼을 허락하지 않았다. 유다의 아내 벳수엘은 이 주간의 5 년째 되는 해에 죽었다. [오전 21:68]
8 그리고 여섯째 해에 유다는 양털을 깎으러 팀나로 올라갔다. [2169 AM] 그들이 타마르에게 이르되 '보라, 네 시아버지가 양털을 깎으러 팀나로 올라간다.'
9 그리하여 그녀는 과부의 옷을 벗고 베일을 쓰고 단장한 후, 팀나로 가는 길목에 있는 문에 앉았다.
10 유다가 길을 가다가 그녀를 만나 창녀라고 생각하고 말했습니다. "내가 네 안으로 들어가게 해 줘." 그녀가 "들어오세요."라고 대답하자 유다가 들어갔습니다.
11 그러자 그녀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 품삯을 주십시오." 그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내 손에는 손가락에 낀 반지와 목걸이와 손에 든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12 그녀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품삯을 보내주실 때까지 이것들을 내게 주십시오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염소 새끼 한 마리를 너에게 보내 주겠다 하시며 이것들을 그녀에게 주었고 그가 그녀와 동침하여 그녀가 그와의 사이에서 임신하였다.
13 유다는 자기 양 떼에게로 갔고, 그녀는 아버지 집으로 갔다.
14 유다가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아둘람 사람인 그의 목자를 통해 보냈으나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가 그곳 사람들에게 "여기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니, 그들이 "여기에는 창녀가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15 그가 돌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그녀를 찾지 못하였으니, 내가 그곳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이곳에는 창녀가 없다'고 하였느니라.
16 그러자 그가 말했습니다. '그녀가 (아이들을) 지키게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조롱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석 달이 되자 임신한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유다에게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당신의 며느리 타마르가 음행으로 임신했습니다.'
17 유다가 그녀의 아버지 집으로 가서 아버지와 오빠들에게 말했습니다. '저 여자를 끌어내어 불태워 죽이십시오. 저 여자가 이스라엘에 부정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18 그들이 그녀를 화형시키려고 끌어냈을 때, 그녀는 시아버지에게 반지와 목걸이와 지팡이를 보내며 말했습니다. '이것들이 누구의 것인지 알아보십시오. 제가 그에게서 임신했습니다.'
19 그러자 유다가 인정하며 말했습니다. '다마르가 나보다 더 의롭습니다.'
20 그러므로 그녀를 불태우지 말라.' 이 때문에 그녀는 셀라에게 주어지지 않았고, 셀라는 다시는 그녀에게 가까이 가지 않았다.
21 그 후에 그녀는 이 둘째 주의 일곱째 해에 페레스 [2170 AM]와 제라라는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22 그리하여 요셉이 바로에게 말한 대로 칠 년의 풍년 기간이 차 되었습니다.
23 유다는 자기가 행한 일이 악한 것임을 인정하였다. 며느리와 동침하였으므로 그는 그것을 몹시 가증스럽게 여겼다. 또 자기가 범죄하여 잘못된 길로 들어섰음을 인정하였다. 아들의 옷자락을 드러냈으므로 그는 자기의 죄악 때문에 여호와 앞에 슬퍼하며 간구하기 시작했다.
24 그리고 우리는 꿈에 나타나서 그가 간절히 기도하고 슬퍼하며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았으므로 용서받았다고 말했습니다.
25 그가 죄와 무지에서 돌이켰으므로 용서를 받았으니, 그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크게 범죄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행하는 자, 곧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불에 태워 죽게 하라. 그들에게는 부정한 것과 더러움이 있으니, 불로 태워 죽게 하라.

26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 가운데 부정한 것이 없도록 하라. 며느리나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부정한 일을 행한 것이니, 그 남자와 여자를 불로 태워 죽이라. 그러면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서 진노와 형벌을 거두실 것이다.
27 그리고 우리는 유다에게 그의 두 아들이 그녀와 동침하지 않았으므로 그의 자손이 대대로 이어져 뿌리 뽑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8 이는 그가 한결같은 마음으로 가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들에게 명한 대로 벌을 내리려고 하였으므로, 유다는 그녀를 불태워 죽이려 하였느니라.

제 42 장

1 그리고 45 번째 희년 셋째 주의 첫째 해에 기근이 그 땅에 임하기 시작하여 비가 땅에 내리기를 거부하여 전혀 내리지 아니하였더라.
2 땅은 메말라 버렸으나 이집트 땅에는 먹을 것이 있었으니 이는 요셉이 풍년이 든 칠 년 동안 그 땅의 씨앗을 모아 저장해 두었기 때문이었다.
3 이집트 사람들이 요셉에게 와서 먹을 것을 얻어 달라고 하니, 요셉이 곡식이 저장된 창고를 열어 그 곡식을 그 땅 사람들에게 금으로 팔았다.
4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야곱은 이집트에 먹을 것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열 아들을 이집트로 보내어 먹을 것을 구해 오게 하였더라. 그러나 베냐민은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야곱의 열 아들은 이집트로 간 자들 가운데 도착하였더라.
5 요셉은 그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다.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여 묻기를, '너희는 정탐꾼이 아니냐? 이 땅의 어귀를 정탐하러 온 것이 아니냐?' 하고 그들을 감금하였다.
6 그 후에 그는 그들을 다시 풀어주고 시므온만 따로 붙잡아 두고 그의 아홉 형제는 보내 버렸다.
7 그리고 그는 그들의 자루에 곡식을 가득 채우고, 그들의 자루에 금을 넣어 주었는데,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다.
8 그러자 그는 그들에게 그들의 동생을 데려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자기들의 아버지와 동생이 살아 있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9 그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와 가나안 땅에 이르러, 자기들에게 일어난 모든 일과 그 땅의 영주가 그들에게 심하게 꾸짖고 시므온을 붙잡아 베냐민을 데려올 때까지 있게 했다는 것을 아버지에게 이야기하였다.
10 야곱이 이르되 너희가 내게서 자식들을 빼앗아 갔도다! 요셉도 없고 시므온도 없는데, 너희가 베냐민까지 데려가려 하다니! 너희의 악행이 내게까지 이르렀도다.
11 '그러자 그가 말했습니다. '내 아들은 당신들과 함께 내려가지 않겠습니다. 혹시라도 병에 걸릴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어머니는 아들 둘을 낳았는데 하나는 죽었고, 당신들은 이 아이마저 내게서 데려가려 합니다. 만일 그 아이가 길에서 열병에 걸리면 당신들은 내 노년을 슬픔으로 몰아넣어 죽음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12 그가 보니 그들의 돈이 각자의 자루에 돌려져 있었으므로 그를 보내기를 두려워하였더라.
13 그리고 가나안 땅과 이집트 땅을 제외한 모든 땅에서 기근이 심해졌습니다. 이는 이집트 자손 중 많은 이들이 요셉이 씨를 모아 창고에 저장하고 기근이 올 때까지 식량으로 쓸 씨를 비축해 두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14 이집트 사람들은 기근이 든 첫 해 동안 그것으로 끼니를 해결했습니다.
15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구원자가 나타나지 않자 아들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가 죽지 않도록 먹을 것을 구해 오라' 하였더라.
16 그들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가지 않겠습니다. 막내 동생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면 가지 않겠습니다.'
17 이스라엘 백성은 만일 그가 그를 자기들과 함께 보내지 않으면 기근으로 말미암아 모두 멸망할 것을 깨달았다.
18 그러자 르우벤이 말했습니다. '그를 내 손에 넘겨주십시오. 만일 내가 그를 당신께 돌려보내지 않으면, 그의 목숨 대신 내 두 아들을 죽이십시오.'
19 그가 유다에게 이르되 '그는 너와 함께 가지 못할 것이다.' 하니 유다가 가까이 가서 이르되 '그를 나와 함께 보내 주십시오. 만일 내가 그를 데려오지 못하면 내가 평생토록 그 책임을 지겠습니다.' 하였더라
20 그리고 그분은 이 주간 둘째 해 [2172 Am] 월초에 그들을 그들과 함께 보내셨고, 그들은 가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이집트 땅에 이르렀으며, 그들의 손에는 스타크테와 아몬드와 테레빈트 열매와 순수한 꿀이 예물로 있었습니다.
21 그들이 가서 요셉 앞에 섰을 때, 요셉은 그의 동생 베냐민을 보고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당신들의 막내 동생입니까?"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그입니다." 요셉이 말했습니다. "내 아들아, 주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22 그가 그를 자기 집으로 보내니, 그는 시므온을 그들에게 데려와서 잔치를 베풀었고, 그들은 자기들이 손에 가져온 선물을 그에게 드렸습니다.
23 그들이 예수 앞에서 식사를 하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모두 몫을 주셨는데, 베냐민 지파의 몫은 다른 지파의 몫보다 일곱 배나 많았다.
24 그들은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자기 나귀들과 함께 있었다.
25 요셉은 그들 가운데 화평을 바라는 마음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한 가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자기 집을 맡은 관리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의 자루에 음식을 가득 채우고, 돈은 그들의 그릇에 돌려주되, 내가 마시는 은잔은 막내의 자루에 넣어 보내라.'

제 43 장

1 그리고 그는 요셉이 말한 대로 하여 그들의 자루에 음식을 가득 채워 주고, 돈도 자루에 넣어 주고, 잔은 베냐민의 자루에 넣어 주었다.

2 그리고 이른 아침에 그들이 떠났습니다. 그들이 그곳을 떠난 후, 요셉이 그의 집사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을 뒤쫓아가서 붙잡아라. "너희가 내게 선을 행하였으니 악으로 갚았도다. 너희가 내 주인께서 마시시던 은잔을 훔쳤도다."라고 말하여라. 그리고 그들의 막내 동생을 데려와라. 내가 재판석으로 나가기 전에 어서 데려오너라.'
3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을 뒤쫓아가서 이 말씀대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4 그들이 예수께 이르되 '주의 종들이 그런 짓을 하여 주의 집에서 그릇을 훔치고, 또 우리가 처음에 자루에서 발견한 돈까지 훔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의 종들이 가나안 땅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5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릇을 훔치겠습니까? 보십시오, 여기 우리와 우리의 자루들이 있습니다. 수색해 보십시오. 우리 중 누구의 자루에서라도 잔을 발견하면 그를 죽이십시오. 그러면 우리와 우리의 나귀들이 당신의 주인을 섬기겠습니다.'
6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않다. 내가 만나는 그 사람만 종으로 삼겠다. 너희는 평안히 집으로 돌아가라.'
7 그가 그들의 그릇들을 샅샅이 뒤지되, 맏이부터 시작하여 막내까지 살펴보니, 베냐민의 자루에서 그것이 발견되었다.
8 그들은 옷을 찢고 나귀에 짐을 싣고 성읍으로 돌아와 요셉의 집에 이르러 모두 그 앞에 엎드려 절하였다.
9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악을 행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하며 어떻게 변명하겠습니까 우리 주께서 그의 종들의 허물을 드러내셨으니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 주의 종이며 우리 나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0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도 여호와를 두려워하노라. 너희는 집으로 돌아가고 너희 형을 내 종으로 삼으라. 너희는 악을 행하였도다. 사람이 이 잔을 기뻐하는 것처럼 나도 이 잔을 기뻐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도 너희는 내게서 이 잔을 훔쳐 갔도다.
11 그러자 유다가 말했습니다. '주여, 부디 당신의 종이 당신의 귀에 한 마디만 전해 주십시오. 당신의 종의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에게 두 아들을 낳으셨는데, 한 아들이 집을 나가서 잃어버렸고,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어머니 곁에 남은 아들은 그 아이뿐입니다. 당신의 종인 우리 아버지는 그 아이를 사랑하시고, 아버지의 생명도 그 아이의 생명과 뗄 수 없이 달려 있습니다.'
12 우리가 주의 종인 우리 아버지께로 갈 때에 그 아이가 우리와 함께 있지 않으면 그 아이가 죽게 될 것이고, 우리는 슬픔에 잠겨 우리 아버지를 죽음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13 이제 차라리 저, 당신의 종이 그 아이 대신 주인님께 종으로 남아 있게 해 주십시오. 그 아이는 형제들과 함께 가게 해 주십시오. 제가 당신의 종인 우리 아버지를 통해 그 아이의 보증을 섰습니다. 만일 제가 그 아이를 데려오지 못하면, 당신의 종은 그 책임을 우리 아버지께 영원히 져야 할 것입니다.'
14 요셉은 그들이 모두 한마음으로 선한 것을 보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자기가 요셉이라고 소개하였다.
15 그리고 그는 그들과 히브리어로 이야기하며 그들의 목을 껴안고 울었다.
16 그러나 그들은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울기 시작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위해 울지 말고 어서 와서 내 아버지를 내게 데려오십시오. 그러면 내 입이 말하고 내 동생 베냐민의 눈이 보고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17 보십시오, 벌써 흉년이 든 지 2 년째인데, 앞으로도 5 년 동안 수확도 없고 나무 열매도 없고 밭을 갈 수도 없습니다.
18 너희와 너희 가족은 속히 내려오라. 그리하여 기근으로 멸망하지 않도록 하라. 또한 너희 소유를 슬퍼하지 말라. 주께서 많은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바로잡게 하시려고 나를 너희보다 앞서 보내셨다.
19 그리고 내 아버지께 내가 아직 살아 있다고 전하십시오. 보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바로의 아버지처럼 여기시고 그의 집과 이집트 온 땅을 다스리는 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
20 그리고 내 아버지께 내 모든 영광과 주께서 내게 주신 모든 부와 영광을 전하여라.'
21 바로의 명령에 따라 그는 그들에게 병거와 길에 필요한 양식을 주었고, 또한 여러 색깔의 옷과 은을 주었습니다.
22 그리고 그들의 아버지에게 의복과 은과 곡식을 나르는 나귀 열 마리를 보내어 그들을 떠나보냈다.
23 그들이 올라가서 아버지에게 요셉이 살아 있고, 온 땅의 모든 민족에게 곡식을 나누어 주고 있으며, 이집트 온 땅을 다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24 그들의 아버지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너무나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보낸 수레들을 보자 그의 마음이 다시 살아나서 말했습니다. '요셉이 살아 있으면 내게는 충분하다. 내가 죽기 전에 내려가서 그를 만나 봐야겠다.'

제 44 장

1 이스라엘은 셋째 달 초하루에 자기 집 하란을 떠나 맹세의 우물길로 가서 그 달 일곱째 날에 자기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2 야곱은 벧엘에서 본 꿈을 기억하고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3 그리고 그는 요셉에게 사람을 보내어 자기에게 오라고 하고 자신은 내려가지 않겠다고 말할 생각을 하면서, 혹시 그곳에 머물러야 할지 내려가야 할지에 대한 환상을 볼 수 있을까 하여 칠 일 동안 그곳에 머물렀다.
4 그리고 그는 묵은 곡식으로 첫 열매 추수 축제를 지켰으니, 이는 가나안 온 땅에 씨앗 한 줌도 없었음이라. 기근이 모든 짐승과 가축과 새뿐 아니라 사람에게까지 미쳤음이라.
5 그리고 열여섯째 날에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아, 야곱아!" 야곱이 대답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네 조상들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가서 너를 다시 인도해 낼 것이다. 너는 이 땅에 묻힐 것이며, 요셉이 네 눈에 손을 얹을 것이다."
6 두려워하지 말고 이집트로 내려가라.
7 그러자 그의 아들들이 일어나고, 그의 손자들도 일어나서, 그들은 아버지와 그의 소유물을 수레에 실었다.
8 이스라엘 백성은 이 셋째 달 열여섯째 날에 맹세의 우물에서 나와 이집트 땅으로 갔다.
9 이스라엘은 유다를 먼저 보내어 아들 요셉에게 고센 땅을 정탐하게 하였습니다. 이는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그곳에 와서 살면서 자기 곁에 있으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10 그리고 이곳은 이집트 땅에서 가장 좋은 땅이었고, 그들에게 가까이 있었으며, 모든 사람과 가축에게도 적합한 곳이었습니다.
11 야곱의 아들들 이름은 이러하니라. 그들은 아버지 야곱과 함께 이집트로 갔느니라.
12 르우벤은 이스라엘의 맏아들이요, 그의 아들들의 이름은 에녹, 팔루, 헤즈론, 카르미다섯이다.
13 시므온과 그의 아들들. 그의 아들들의 이름은 유무엘, 야민, 오핫, 야긴, 조할, 그리고 스팟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울이니, 일곱 명이다.
14 레위와 그의 아들들. 그의 아들들의 이름은 게르손, 고핫, 그리고 므라리푸르이다.
15 유다와 그의 아들들. 그의 아들들의 이름은 셀라, 페레스, 제라 넷이다.
16 잇사갈과 그의 아들들. 그의 아들들의 이름은 톨라, 푸아, 야수브, 시므론이다.
17 스불론과 그의 아들들. 그의 아들들의 이름은 세렛, 엘론, 야흘렐이다.
18 야곱의 아들들과 메소포타미아에서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아들들 여섯, 그리고 그들의 누이 디나와 레아의 아들들과 그들의 아들들 모두 야곱과 함께 이집트로 간 자들은 스물아홉 명이요, 야곱도 그들과 함께 있었으니 서른 명이었다.
19 야곱의 아내 레아의 여종 질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수르였다.
20 이집트로 그와 함께 간 그들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갓의 아들들은 지피온, 하기, 수니, 에즈본, 에리, 아렐리, 아로디팔이다.
21 아셀의 아들들은 임나, 이쉬바, 이쉬비, 베리아, 세라, 그리고 그들의 누이 한 명을 포함하여 여섯 명이다.
22 모든 사람의 수는 열네 명이었고, 레아의 자녀는 모두 마흔네 명이었다.
23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24 요셉에게는 그의 아버지가 이집트로 오기 전에 이집트에서 태어났는데, 헬리오폴리스의 제사장 보디발의 딸 아세낫이 그에게 낳은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셋이었다.
25 베냐민의 아들들은 벨라와 베헤르와 아쉬벨과 게라와 나아만과 에히와 로쉬와 무핌과 후핌과 아르드-일레븐이다.
26 라헬의 자녀들은 모두 열네 명이었다.
27 야곱의 아내 라헬의 여종 빌하가 야곱에게 낳은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였다.
28 이집트로 그들과 함께 간 그들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단의 아들들은 후심, 사몬, 아수디, 이자카, 솔로몬이었다.
29 그들은 이집트에 들어간 해에 죽었고, 단 후심만 남았다.
30 납달리의 아들들의 이름은 야히엘, 구니, 예제르, 샬룸, 그리고 이브입니다.
31 그리고 기근 이후에 태어난 이브는 이집트에서 죽었다.
32 라헬의 자녀들은 모두 스물여섯 명이었다.
33 야곱의 자손 중 이집트로 간 자는 모두 칠십 명이었다. 이들은 야곱의 자녀와 손자녀를 포함하여 모두 칠십 명인데, 그중 다섯 명은 요셉보다 먼저 이집트에서 죽었고 자녀가 없었다.
34 유다의 두 아들 에르와 오난이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들에게는 자녀가 없었다. 이스라엘 자손은 죽은 자들을 장사 지냈고 그들은 칠십 이방 민족 가운데 하나로 여겨졌다.

제 45 장

1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땅, 곧 고센 땅으로 들어갔으니, 이는 45 년 희년 셋째 주의 둘째 해 넷째 달 초하루에 된 날이었다.
2 요셉은 아버지 야곱을 만나러 고센 땅으로 갔다가 아버지의 목을 껴안고 울었다.
3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보았으니 이제 죽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께서 그의 종 야곱에게 자비와 은혜를 아끼지 않으셨으니 찬양받으시기를 원하노라.
4 내가 살아 있는 동안 주의 얼굴을 뵈었으니 내게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참으로 내가 벧엘에서 본 환상은 참되도다. 영원무궁토록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5 요셉과 그의 형들이 아버지 야곱 앞에서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니, 야곱은 요셉이 형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을 보고 크게 기뻐하며, 자신을 보존하시고 열두 아들을 보존해 주신 만물의 창조주를 찬양하였다.
6 요셉은 그의 아버지와 형들에게 고센 땅과 라메세스와 그 주변 모든 지역에 거주할 권리를 선물로 주었는데, 그는 바로 앞에서 그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이스라엘과 그의 아들들은 이집트 땅에서 가장 좋은 곳인 고센 땅에 거주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에 들어갈 때 130 세였습니다.
7 요셉은 아버지와 형제들과 그들의 재산을 위해 칠 년 동안의 기근 동안 그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을 만큼의 빵을 만들어 주었다.
8 이집트 땅은 기근으로 인해 고통을 받았고, 요셉은 식량을 얻는 대가로 이집트의 모든 땅을 파라오에게 넘겨주었으며, 백성과 가축과 모든 것을 파라오에게 돌려주었습니다.

9 흉년이 다하자 요셉은 그 땅의 백성들에게 씨와 식량을 주어 8 년째 되는 해에 씨를 뿌리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강물이 이집트 온 땅을 범람했기 때문입니다.
10 칠 년 동안의 흉년에는 강물이 범람하지 않고 강둑의 몇몇 곳만 적셨으나, 이제는 강물이 범람하여 이집트 사람들이 그 땅에 씨를 뿌리니 그 해에 많은 곡식이 열렸다.
11 이것은 [2178 년] 희년 4 주째 주의 첫해였습니다.
12 요셉은 추수한 곡식의 오분의 일을 왕에게 드리고, 나머지 네 부분은 그들이 먹을 것과 씨를 뿌리기 위해 남겨 두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것을 오늘날까지 이집트 땅의 규례로 삼았습니다.
13 이스라엘은 이집트 땅에서 십칠 년을 살았는데, 그가 살았던 모든 날은 세 희년, 곧 백사십칠 년이었고, 그는 사십오 희년 다섯째 주의 넷째 해에 죽었습니다.
14 이스라엘은 죽기 전에 아들들을 축복하고 이집트 땅에서 그들에게 일어날 모든 일을 말해 주었으며, 마지막 날에 그들에게 닥칠 일도 알려주었다. 그리고 그들을 축복하고 요셉에게 그 땅의 두 몫을 주었다.
15 그리고 그는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들었고, 가나안 땅의 이중 굴에 묻혔는데, 그곳은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헤브론 땅의 이중 굴에 스스로 판 무덤과 같았다.
16 그리고 그는 자기의 모든 책과 조상들의 책들을 그의 아들 레위에게 주어, 그가 그것들을 보존하고 오늘날까지 그의 자손들을 위해 새롭게 하도록 하였습니다.

제 46 장

1 야곱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은 이집트 땅에서 번성하여 큰 민족이 되었고, 그들은 마음이 한마음이 되어 형제끼리 서로 사랑하고 형제끼리 서로 도왔으며, 요셉의 생애 동안 십 년(2242 AM) 동안 번성하여 매우 많아졌습니다.
2 요셉이 그의 아버지 야곱 이후에 살았던 평생 동안 사탄도 없고 악한 일도 없었으니 이는 모든 이집트 사람들이 요셉이 살아 있는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존중했기 때문이라.
3 요셉은 110 세에 죽었습니다. 그는 가나안 땅에서 17 년을 살았고, 10 년은 종으로 살았으며, 3 년은 감옥에 있었고, 80 년은 왕의 지배를 받으며 이집트 온 땅을 다스렸습니다.
4 그리고 그와 그의 모든 형제들과 그 세대의 모든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5 그리고 그는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집트 땅에서 나올 때 자기 뼈를 가지고 가라고 명하셨다.
6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그의 뼈에 관하여 맹세하게 하였습니다. 이는 이집트 사람들이 다시는 그의 뼈를 꺼내어 가나안 땅에 묻지 않을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왕 마카마론이 앗수르 땅에 거주하면서 골짜기에서 이집트 왕과 싸워 그를 죽이고 이집트 사람들을 에르몬 성문까지 추격했기 때문입니다.
7 그러나 그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다른 왕, 곧 새로운 왕이 이집트의 왕이 되었는데, 그는 이전 왕보다 더 강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갔고, 이집트의 성문은 닫혔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이집트에서 나가지 못하고 아무도 이집트로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8 요셉은 46 번째 희년의 여섯 번째 주간, 즉 2 년째에 죽었고, 그들은 그를 이집트 땅에 장사 지냈으며 그의 모든 형제들도 그 후에 죽었습니다.
9 이집트 왕이 가나안 왕과 전쟁을 하러 나갔는데[2263 년] 이는 희년 47 년째 되는 해 둘째 주에 일어난 일이었다. 이스라엘 자손은 야곱 자손의 모든 뼈 중에서 요셉의 뼈만 빼고 모두 꺼내어 산에 있는 두 개의 굴에 있는 밭에 묻었다.
10 그들 대부분은 이집트로 돌아갔으나, 소수는 헤브론 산에 남았고, 너의 아버지 암람도 그들과 함께 남았다.
11 가나안 왕이 이집트 왕을 물리치고 이집트 성문을 닫았습니다.
12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자손을 괴롭히려고 악한 계략을 꾸몄습니다.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우리보다 훨씬 많아졌습니다.'
13 자, 우리가 그들이 너무 많아지기 전에 지혜롭게 처리하고, 전쟁이 일어나기 전, 그리고 그들마저 우리와 싸우기 전에 그들을 노예로 삼아 괴롭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우리 원수들과 합세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땅에서 그들을 몰아내십시오. 그들의 마음과 얼굴이 가나안 땅을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4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감독관들을 세워 노예로 삼아 괴롭히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바로와 피톰과 람세스를 위해 견고한 성읍들을 건축하였고, 이집트 성읍들에서 무너졌던 모든 성벽과 요새들을 다시 세웠습니다.
15 그들은 그들을 가혹하게 부렸고, 그들을 더욱 학대할수록 그들의 수는 더욱 늘어났습니다.
16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미워하였다.

제 47 장

1 일곱째 주, 일곱째 해, 곧 마흔일곱 번째 희년에 너의 아버지가 가나안 땅에서 나가셨고 너는 넷째 주, 그 여섯째 해, 곧 마흔여덟 번째 희년에 태어났으니 이때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환난의 때였다.
2 그러자 이집트의 왕 파라오는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태어난 모든 남자아이들을 강에 던지라고 했습니다.
3 그리고 그들은 네가 태어날 때까지 칠 개월 동안 그것들을 가두어 두었다.
4 네 어머니는 너를 석 달 동안 숨겼는데 사람들이 그 일에 대해 네 어머니를 고발하였다. 그래서 네 어머니는 너를 위해 방주를 만들어 역청과 아스팔트로 덮고 강둑의 돌밭에 두었다. 그리고 너를 그 안에 칠 일 동안 두었는데, 네 어머니는 밤에 와서 네게 젖을 먹이고 낮에는 네 누이 미리암이 새들로부터 너를 지켰다.
5 그 무렵에 바로의 딸 타르무트가 강에 목욕하러 왔다가 너의 울음소리를 듣고 자기 시녀들에게 너를 데려오라고 시키니, 시녀들이 너를 데려왔다.

6 그리고 그녀는 너를 방주에서 꺼내어 너를 불쌍히 여겼다.
7 네 누이가 그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들 중 한 사람을 불러 이 아기를 젖먹이게 할까?
8 그러자 그녀가 이르되 '가라' 하니 그녀가 가서 네 어머니 요게벳을 불러와 품삯을 주고 너를 양육하였더라.
9 그 후에 네가 장성하여 바로의 딸에게로 갔더니 너는 그녀의 아들이 되었고, 네 아버지 암람이 너에게 글을 가르쳤으며, 네가 삼 주가 지난 후에 왕궁으로 들어갔다.
10 그리고 너는 궁정에서 3 주간 머물다가 왕궁에서 나와 이집트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인 네 친구를 때리는 것을 보고 그를 죽여 모래 속에 숨겼다.
11 그리고 둘째 날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 두 사람이 다투는 것을 보고 잘못을 저지른 자에게 '어찌하여 네 형제를 치느냐?' 하고 말하였다.
12 그러자 그는 노하여 분개하며 말했습니다. '누가 너를 우리 위에 군주와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어제 이집트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 하느냐?' 너는 이 말을 듣고 두려워 도망쳤습니다.

제 48 장

1 그리고 49 번째 희년 셋째 주의 여섯째 해에 너는 떠나 미디안 땅에 5 주 1 년 동안 거주하였고, 50 번째 희년 둘째 해 둘째 주에 이집트로 돌아왔느니라.
2 그리고 너 자신도 그분께서 시나이 산에서 너에게 하신 말씀과 마스테마 왕자가 네가 이집트로 돌아가는 길에 숙소에서 그를 만났을 때 너와 무엇을 하기를 원했는지 알고 있다.
3 그가 온 힘을 다해 너를 죽이고 이집트 사람들을 네 손에서 구원하려 하지 않았느냐? 네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심판과 복수를 행하도록 보내졌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 말이다.
4 내가 너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였고, 너는 이집트에서 바로와 그의 온 집과 그의 신하들과 그의 백성을 대적하여 네가 행하도록 보내진 표적과 기적을 행하였다.
5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들에게 큰 진노를 내리시어 피와 개구리, 이와 파리, 그리고 종기에서 솟아나는 악성 종기로 그들을 치셨고, 그들의 가축을 죽음으로, 우박으로 그들을 위해 자라는 모든 것을 파괴하게 하셨으며, 우박이 그친 후 남은 것을 먹어치우는 메뚜기로, 그리고 흑암으로, 사람과 짐승의 맏아들을 죽음으로, 그리고 그들의 모든 우상에 대해 진노하시고 불태우셨습니다.
6 모든 것이 당신의 손을 통해 보내졌으니, 이는 당신이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며, 당신은 이집트 왕과 그의 모든 신하와 백성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
7 그리고 모든 것이 당신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당신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이집트 땅에 복수하시려고 열 가지 크고 무서운 심판이 임했습니다.
8 여호와께서는 이 모든 일을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셨으며,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대로 행하셨습니다. 그 언약은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을 강제로 종노릇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복수하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9 그러자 마스테마 왕자가 너에게 맞서 너를 파라오의 손에 넘기려 하였고, 이집트의 마술사들을 도왔다.
10 그리고 그들은 일어나서 당신 앞에서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악행을 저지르도록 허락했지만, 우리가 그들의 손으로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11 주님께서 그들에게 악성 궤양을 내리시어 그들이 서 있을 수 없게 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그들을 멸망시켜 그들이 아무런 표적도 행하지 못하게 하였음이라.
12 이 모든 표적과 기적에도 불구하고 마스테마 왕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용기를 내어 이집트인들에게 온 군대와 전차와 말과 온 백성의 군대를 이끌고 너를 추격하라고 외쳤습니다.
13 내가 이집트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이에 서서 이스라엘을 이집트 사람들의 손에서, 그리고 그의 백성의 손에서 구원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마치 마른 땅처럼 바다 가운데로 인도하셨느니라.
14 이스라엘을 추격하도록 이끌고 온 모든 민족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다 가운데, 곧 이스라엘 자손 아래 깊은 심연에 던져 버리셨으니, 이는 이집트 사람들이 자기 자식들을 강에 던진 것과 같으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 백만 명에게 보응하시고, 강하고 용맹한 남자 천 명이 그들이 강에 던진 네 백성의 젖먹이 자식 하나 때문에 죽임을 당하게 하셨느니라.
15 그리고 열넷째 날과 열다섯째 날과 열여섯째 날과 열일곱째 날과 열여덟째 날에 마스테마 왕자는 이스라엘 자손을 고발하지 못하도록 그들 뒤에 결박되어 투옥되었다.
16 그리고 19 일에 우리는 그들을 풀어주어 이집트 사람들을 도와 이스라엘 자손을 추격하게 했습니다.
17 그리고 그들은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고집을 세웠으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집트 사람들을 쳐서 바다에 던지시려고 계획하신 것이니라.
18 그리고 14 일에 우리는 그를 결박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사람들에게 은 그릇과 옷과 청동 그릇을 요구하여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노예로 삼았던 것에 대한 보답으로 이집트 사람들을 약탈하려 할 때,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고발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19 우리가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낼 때 빈손으로 내어 나온 것이 아닙니다.

제 49 장

1 너희는 주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유월절에 관한 계명을 기억하라. 곧 첫째 달 열넷째 날에 정해진 절기에 유월절을 지키고, 해가 지기 전에 짐승을 잡아서 열다섯째 날 저녁 해 질 무렵에 먹으라는 계명이었다.
2 이 밤, 곧 축제의 시작이요 기쁨의 시작이 되는 밤에 너희는 이집트에서 유월절 음식을 먹고 있었는데, 그때 마스테마의 모든 권세가 풀려나 이집트 땅의 모든 장자를 죽였으니, 바로의 장자부터 맷돌에 잡힌 여종의 장

자, 그리고 가축에 이르기까지 모두 죽임을 당하였느니라.
3 그리고 주께서 그들에게 주신 표징은 이것이니, 일 년 된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묻어 있는 집은 들어가 죽이지 말고 지나쳐야 하니, 이는 그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이는 문설주에 피의 표징이 있었기 때문이니라.
4 여호와의 권능들이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모든 것을 행하여 이스라엘 온 자손을 지나갔으므로 그 재앙이 그들에게 미치지 아니하여 가축이나 사람이나 개 중에 한 마리도 죽이지 아니하였더라.
5 이집트에 그 재앙이 심하여 이집트에는 죽은 자가 없는 집이 하나도 없었고, 통곡과 애곡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6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은 유월절 어린양의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며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찬양과 축복과 감사를 드렸으며, 이집트의 멍에와 악한 종살이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바랐다.
7 너는 이 날을 평생토록 기억하고, 일 년에 한 번씩 이 날에 그 모든 율법에 따라 지키고, 날마다 또는 달마다 미루지 말라.
8 이는 영원한 규례이며,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대대로 매년 그 날에 지켜야 할 의무를 하늘의 돌판에 새겨 놓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날짜에 제한이 없으니, 이는 영원히 정해진 규례입니다.
9 그리고 부정한 것이 없으면서도 그 절기를 지키지 않고, 여호와 앞에 합당한 제물을 바치지 않고, 그 절기에 여호와 앞에서 먹고 마시지 않는 사람은, 비록 깨끗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일지라도 끊어질 것이다. 그가 정해진 때에 여호와께 제물을 바치지 않았으므로, 그 죄를 자기 몫으로 져야 할 것이다.
10 이스라엘 자손은 와서 정해진 유월절 날, 곧 첫째 달 열넷째 날에, 저녁 사이, 낮의 삼분의 일에서 밤의 삼분의 일 사이에 유월절을 지키라. 낮의 두 부분은 낮에 할애되고, 삼분의 일은 저녁에 할애되기 때문이다.
11 이것은 주님께서 너에게 저녁 사이에 지키라고 명하신 것이다.
12 낮 시간에는 그 동물을 잡아서는 안 되며, 저녁 무렵에 잡아서 저녁 시간부터 밤 삼분의 시간까지 먹게 하고, 밤 삼분의 시간 이후에 남은 모든 고기는 불에 태워야 한다.
13 그들은 그것을 물에 삶지도 말고 날것으로 먹지도 말고 불에 구워 먹어야 한다. 그들은 그것을 정성껏 먹어야 하며, 머리와 내장을 함께 먹고 발은 불에 구워야 한다. 그리고 뼈를 하나도 부러뜨려서는 안 된다. 이스라엘 자손은 뼈를 부러뜨려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14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정해진 날에 지키라고 명하셨으니, 그들은 뼈를 부러뜨리지 말라. 이는 명절이며, 정해진 날이기 때문이니라. 날마다, 달마다 다른 날에는 지키지 말고, 오직 그 명절 날에 지켜야 하느니라.
15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의 일생 동안, 매년 정해진 날에 유월절을 지키게 하라. 이는 여호와 앞에서 기뻐하시는 기념일이 될 것이며,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모든 것을 지켜 유월절을 제때에 지키는 해에는 어떤 재앙도 그들에게 임하여 그들을 죽이거나 치지 않을 것이다.
16 그들은 여호와의 성소 밖에서는 그것을 먹지 말고 여호와의 성소 앞에서 먹어야 하며, 이스라엘 회중의 모든 백성은 정해진 절기에 그것을 지켜야 한다.
17 그리고 그 날에 온 모든 남자는 스무 살 이상이면 너희 하나님의 성소에서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먹어야 한다. 이는 여호와의 성소에서 그것을 먹어야 한다는 것이 기록되고 정해졌음이니라.
18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이 차지할 땅,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 가운데에 있는 한 지파에 여호와의 장막을 세우고, 여호와의 성전이 그 땅에 완공될 때까지는 그 장막 가운데에 와서 유월절을 지키고, 해마다 여호와 앞에서 가축을 잡아 제물로 바치게 하라.
19 그들이 그들의 기업 땅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성전이 건축된 날에는 거기에 가서 저녁 해 질 무렵, 곧 낮의 삼분의 일에 유월절 제물을 잡을 것이다.
20 그들은 그 피를 제단 문지방에 바치고, 그 기름은 제단 위의 불에 올려놓고, 그 살코기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거룩하게 된 성전 뜰에서 불에 구워 먹을지니라.
21 그들은 자기 성읍이나 다른 어떤 곳에서도 유월절을 지켜서는 안 되며, 오직 여호와의 장막 앞이나 그의 이름이 거하신 그의 집 앞에서만 지켜야 한다. 그리고 그들은 여호와에게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
22 모세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네게 명하신 대로 유월절 규례를 지키도록 명하고, 매년 그 날과 그 날들을 그들에게 선포하여 무교병 축제를 지키게 하고, 칠 일 동안 무교병을 먹고 그 축제를 지키며, 그 칠 일 동안 매일 여호와 앞에 네 하나님 제단에서 제물을 바치도록 명하라.
23 너희는 이집트에서 나와 숲 광야에 이르기까지 이 절기를 급히 지켰고, 바닷가에서 그 절기를 마쳤느니라.

제 50 장

1 그리고 이 율법 후에 내가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시내 광야에서 안식일을 지키도록 너에게 알려주었느니라.
2 내가 시내산에서 그 땅의 안식년에 대하여 너에게 말하였고, 매년 안식년 중 희년에 대하여도 말하였으나, 그 해가 언제인지는 너희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말해 주지 아니하였느니라.
3 그들이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그 땅도 안식일을 지켜야 하며, 그들은 희년을 알게 될 것이다.
4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연과 주와 해와 희년을 정하였으니 아담의 날로부터 오늘까지 사십구년과 한 주와 이년이 있고, 앞으로 사십 년이 더 남아 있으니, 그들이 요단 강을 서쪽으로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주의 계명을 배워야 하리라.
5 그리고 희년이 지나가면 이스라엘이 음행과 부정과 더러움과 죄와 오류의 모든 죄악에서 깨끗이 씻겨지고 온 땅에 담대히 거하게 될 것이며 다시는 사탄이나 악

한 자가 없을 것이며 그 땅은 그때부터 영원히 깨끗할
것이다.
6 그리고 안식일에 관한 계명을 보라.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들을 기록하였고, 그 모든 법도 기록하였다.
7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의 안식일이니, 그 날에는 너희와 너희 아들들과 너희
남종들과 여종들과 너희 모든 가축과 너희와 함께 있는
나그네까지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8 그 날에 어떤 일을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날을 더
럽히는 자, 아내와 동침하는 자, 매매를 위해 길을 나서
겠다고 말하는 자, 여섯째 날에 준비하지 않은 물을 길
는 자, 자기 장막이나 집 밖으로 짐을 나르는 자는 죽을
것이다.
9 너희는 안식일에는 여섯째 날에 너희가 준비한 음식
외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곧 먹고 마시고 쉬며 모든
일을 하지 않고 안식일을 지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분은 너희에게 축제일과 거룩한 날을 주셨
으니, 이 날은 온 이스라엘을 위한 거룩한 나라의 날이
며 영원히 그들의 날들 가운데 하나니라.
10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영광이 크도다. 그
들이 이 절기에 먹고 마시고 배부르게 하며, 유향을 피
우고 여호와 앞에 제물과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 외에
는 사람의 모든 노동을 쉬게 하셨으니, 이는 날마다 그
리고 안식일에 행하는 일뿐이니라.
11 너희는 오직 이 일만 안식일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의 성소에서 행해야 한다. 이는 그들이 날마다 이스라
엘을 위하여 제사를 드려 여호와 앞에 기쁘게 기념이
되게 하고, 여호와께서 너희가 명령받은 대로 날마다
그들을 항상 영접하시게 하려 함이다.
12 그리고 누구든지 그 땅에서 일을 하거나 여행을 가
거나 자기 집이나 다른 곳에서 농사를 짓거나 불을 피
우거나 짐승을 타거나 배를 타고 바다를 항해하거나 무
엇을 치거나 죽이거나 짐승이나 새를 도살하거나 동물
이나 새나 물고기를 잡거나 안식일에 금식하거나 전쟁
을 하는 사람은 모두 안식일을 지키지 말아야 합니다.
13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 이는 이
스라엘 자손이 그 땅의 안식일에 관한 계명대로 안식일
을 지키게 하려 함이라. 이는 그분께서 내게 주신 돌판
에 기록된 대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절기의 법과 그 절
기를 날별로 나누어 기록하게 하신 것이라. 이로써 날
들을 나누는 것에 대한 설명이 완성되었느니라.